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79-01

Hosted by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onday, May 14, 2012, 1pm-5pm

**Main Conference Room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 UCLA**

- Analysis & Projec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 Policy Suggestions for Advanc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CLA 한국학연 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 심포지움 프로그램 ■■■

□ 일시 : 2012. 5. 14(월) 13:00~17:00

□ 장소 : UCLA 도서관 국제회의실

| 시 간 | 일 정 |
|-------------|---|
| [오전] | 행사준비 |
| 13:00~13:10 | 등 록 |
| 13:10~14:10 | ❖ 개 회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원재천 (한동대 교수) • 개 회 사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환 영 사 : David Schaberg (UCLA 인문대학장) • 기조연설 : 라종일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 탈북자 증언 (2명) • 동영상 (15분) |
| 14:10~15:25 | ❖ Session I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John Duncan (UCLA 한국학연구소장) • 발 제 : 김성영 (인권위원) • 토론1 : 정치범수용소 문제 (David Haw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 토론2 : 아동권리 침해 문제 (Sandra Fahy 박사, USC) • 토론3 : 이산가족 문제 (이기욱,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지회 고문) • 토론4 : 재중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 (Hannah Song, LINK 대표) • Q & A |
| 15:25~15:35 | coffee break |

| 시 간 | 일 정 |
|-------------|---|
| 15:35~16:50 | <p>❖ Session II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국제사회의 역할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원재천 (한동대 교수) • 발 제 : DAVID KANG (USC 한국학센터 소장) • 토론1 : UN 메카니즘 활용방안 (David Haw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 토론2 : UNICEF, WFP 등 국제기구의 역할 (David Austin, Mercy Corps. 프로그램 책임자) • 토론3 : INGO 역할 (Lynn LEE, NED, 박사) • 토론4 : 재외 교민의 역할 (신기욱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 Q & A |
| 16:50~17:00 | <p>마무리</p> |



개 회 사

감사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위원장(Chairperson) 현병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가 UCLA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여 주신 존 던컨(John Duncan) UCLA 한국학연구소 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인권위는 2010년도 워싱턴 D.C.에서 미국무성 관계자와 북한인권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지난 해는 EU의회와 공동으로 유럽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이곳 LA에서 이런 뜻 깊은 행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인권의 현주소

잘 아시다시피 UN 및 EU의 북한인권결의안,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프리덤 하우스 등 우수한 국제인권단체에서 발간하는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그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고 참혹합니다.



식량난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생명권 침해, 약 15만명 이상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비인간적인 구금, 공개처형, 연좌제, 고문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특히,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차단 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인권 상황은 3대 권력세습, 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cy),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 내부 요인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핵 문제 등과 연계되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의 탈북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인신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의 강제송환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지난 3월 UN 인권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초에 발표된 국가별 아동노동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97개 국가 중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농촌이나 사회주의 건설현장에 집단으로 강제 동원되며 인성과 지식 함양 등을 통한 자기 개발 보다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주체사상, 군사훈련, 외화벌이(아편재배) 등 과도한 노동과 집단적 사상교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 국가가 책무를 갖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인권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위 주요 추진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UN이 정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2001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전담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각종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권위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보고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권위는 각종 대북 인권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나 국회에 필요한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고로는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 보장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정책 권고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촉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인권위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보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북한당국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 이전 1961년 서독이 잘쓰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기록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위원회는 834명으로부터 북한정권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사례집을 발간하여 우리국민들과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사례를 추적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론화된 여론은 북한정권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인권위는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심포지엄, 북한인권포럼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 분들도 북한인권과 관련된 인권위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인권 전망과 기대

세계화된 현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한 나라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가동되듯이, 북한인권을 의제로 한 국제협력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리비아에서 불기 시작한 중동의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란 원칙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북한정권도 이런 국제적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의 북한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그의 3남 김정은이 군부와 김정일 주변세력들에 의해 새로운 북한의 리더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리더십을 공공히 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예정), 핵실험 재개(시도) 등 새



로운 모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북한 특유의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북한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하고있는 문을 활짝 열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북한의 뉴 리더쉽이 전향적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인권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고민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할 때 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청년그룹들의 결성도 이곳 LA 청년 교민들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서 나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북한에게 비난과 압력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북한에게도 남북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재설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의 모든 양심이 북한을 주목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나는 북한주민이 우선 굶주림 등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는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면 탈북자 등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인권현안들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나는 오늘 이 심포지엄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기회가 될과 동시에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UCLA 관계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Contents

:: 기조연설문 / 1

- 마음의 어두움 – 국가권력에 의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관하여 –
라종일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Session I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 11

- (사회) John Duncan (UCLA 한국학연구소장)
- (발제) 북한인권 상황 진단과 전망 / 13
김성영 (인권위원)
- (토론) David Haw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 25
Sandrea Fahy (박사, USC) / 33
이기욱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지회 고문) / 39
Hannah Song (LINK 대표) / 45

Session II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국제사회의 역할 중심) / 49

- (사회) 원재천 (한동대 교수)
- (발제) 어둠을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을 밝힐 것인가? / 51
DAVID KANG (USC 한국학센터 소장)
- (토론) David Haw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 57
David Austin (Mercy Corps. 프로그램 책임자) / 65
Lynn LEE (NED, 박사) / 73
신기욱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 77

:: 참고자료 / 83

- 북한인권침해 주요 사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기조연설문

마음의 어두움

- 국가권력에 의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관하여 -

라 종 일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마음의 어두움 - 국가권력에 의한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관하여 -

라 종 일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강항은 16~17세기 유학자이자 한국의 관료(官僚)였다(1567~1618). 그는 일본의 침략으로 발생한 조일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가족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 그와 가족은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참기 어려운 곤욕과 참담함을 겪게 되었는데, 그 중 한 사례로, 8살 된 아이가 일본으로 끌려가는 동안 갈증을 참다못해 바닷물을 들이키고 토하기 시작했는데, 한 일본군 병사가 다가 와서는 아이를 들어서 바다로 던져 버렸다. 부모는 속절없이 앉아서 바다에 빠진 아이가 숨을 쉬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자서전적 기술에서 가장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은 그가 겪은 고충을 다룬 부분이 아니다. 포로의 신분이 되어 나가사키에 도달했을 때 굶주림과 고단함으로 완전 소진되어 움직일 수도 없어 길거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들에게 연민을 보인 이들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다가와 귀리죽 한 사발을 건네며 당시 일본의 통치자인인 히데요시가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면 비난하는 것이었다.

강항에게는 각성의 순간이었으며 어찌면 그 자신에게 있어 구원의 순간이었다. 그는 이 순간 그 곳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하고 국가 또는 정치적 차이와 무관하게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점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래 악한 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떤 권력 시스템으로 인해 이들이 잔혹한 범죄를 자행하는 되는 것이다. 그는 일본으로 끌려가 수년간 붙들려 있다가 마침내 고향인 한국(당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간양록(看羊錄)이라는 회고록을 쓰고 이것이 후세에 전해지게 된다.

현대 전체주의 상황에서도 있었을 법한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통째로 규정하려드는 국가권력의 너무도 위압적인 통제와 무게, 그리고 압박에 대항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고, 자율성(autonomy)과 인간적인 따듯함(warmth)과 빛(light)을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 자체를 말살하려드는 체제하에서 인간이 겪는 역경은 어떠했을까? 한 예(例)로, 엘리 위젤(Elie Wiesel)은 나치수용소에서 그가 겪은 경험들을 감동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 관리하는 이 수용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인성(humanity)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점차 퇴색되어 간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긴 증언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행한 그 모든 잔혹한 행위들이 미치는 스며드는(침투적인) 속성(pervasive nature)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에 가해자들은 악의 화신이자 고문을 자행하는 인간의 형상을 한 기계로 단지 악한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어떤 형태를 띤 인간들이 자행한 잔학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다시 말해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과 방관한 사람들 그리고 가해자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가해자들은 지각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장기적으로 인성의 타락을 초래하게 되고 최소한 자신들의 인간적 마음을 상실시켰다는 점에서 그들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첫 피해자(손실)가 진실이라면, 인간 학대(abuse of human beings)로 인한 첫 피해자(손실)는, 특히 국가권력의 지휘 아래 이러한 남용이 발생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인간의 마음(human hearts)이다.

불행하게도, 다른 인간들의 손에 의해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지난 세기에 끝나지 않고 금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중 하나가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정치 질서의 붕괴로, 국가의 실패(the failure of statehood)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상황이 그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온전한 법 집행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을 압제하는 국가체계가 그것이다. 지속 기간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란 상태가 끝나거나 문제의 국가가 붕괴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 또한 지구상에는 질서의 붕괴로 사람들이 궁핍과 공포로 고통 받는 일부 지역이 있는데,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잘 조직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례들은 희망컨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성공하거나 또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통한 질서의 회복을 거쳐 시정될 것이다.

최악의 사례는 국가에 의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 국민의 일부에게 자행되는 잔학행위들이다. 이러한 경우 학대는 물리적 형태만으로 제한되는 단순한 폭력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얼핏 보기에는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며 바로 끝이듣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토대위에 이데올로기적 설득뿐 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통제로 규정하려 드는 문화적 통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자발적이든 수동적이든 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국가의 행위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인류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이라 할 홀로코스트(Holocaust)는 비교적 짧은 기간 지속되었으나 인류의 의식(human consciousness)에 지울 수 없는 외상(trauma)을 남겼다. 스탈린주의 공포(Stalinist terror)는 수용소(gulags)와 함께 더 긴 기간 지속되었으나 어느 정도 변모되고 약화되더니 체제가 사라지면서 완전히 종식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규모로 가한 비극이라 할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은, 그 이름만 큼이나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인간에 대한 학대(abuse of human beings)라 할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지나서는 힘을 잃더니 발생했을 때만큼 신비한 방식으로 종식되었다.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자행했던 잔학행위의 역사에서 또 다른 소름끼치는 사건인 킬링필드(Killing Fields)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힘입어 종료된바 있다. 반대로 인간에 대한 끔찍한 학대(abuse of human beings)가 어느 지역에서 반세기 이상 지속된 때에는, 직접적 이해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다 진지한 검토를 요하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1943년 5월 12일 런던에 망명중인 폴란드 정부의 국가평의회 회원인 슈멜 지기엘보임(Shmel Zygielbojm)이 독일인들이 바르샤바의 빈민지구에 일어난 소요를 진압하는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때 그가 남긴 기록에는 “유대인들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책

임은 무엇보다 가해자들에게 있지만, 간접적인 책임은 인류 모두가 져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외부 사람들은 대부분 나치 체제하의 유럽에서 특정 인종에 속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무관심하거나 태만했다. 이는 일부분 적절한 정보가 부재했다는데 기인한 면도 있고 모든 세계가 개입된 필사적 투쟁에 연유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여 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남긴 이 메시지는 인권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류전체의 공동책임임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 다른 국가내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까지 민첩하게 대응했는데, 예컨대 1960년대 인종차별에 항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너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했다.

우리 눈앞에 수차례 펼쳐지는, 수십 년 전 미국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참혹한 현실을 접하면서, 가장 나쁜 것은 편안히 앉아서 지켜만 보는 것이다. 북한 내 수용소의 환경에 대한 서술에서,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는 북한보다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또 간과되고 있는 곳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바바라 드믹(Barbara Demick)은 북한 체제의 힘은 사람들을 바깥세상과 완전히 고립시키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 사람들은 바깥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고립되어 있다. 엄격히 말해서, 정치적인 사안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상황에 대해 상호간 진정한 소통이 없다. 심지어 체제의 최고위층 인사들도 서로 간에 대해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포함하여 인민들을 감시하는 대규모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절친한 친구사이나 가족 간의 대화에서까지도 밀고자나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끊임없이 경계하고 말조심을 해야 한다. 사적인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곧바로 의심을 받게 된다. 실제로 북한이라는 국가에서는 자발적 모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간에 진정한 접촉이 있을 수 없다. 단지 체제에 좌지우지되는 분자화된 개인들(atomized individuals)이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던 이들에 의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잔혹한 장면들이 전해지

고 있다. 가장 참혹한 것은 친부모를 포함한 처형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제되었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러한 육체적 탄압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적, 정서적 악화(affective deprivations)로, 사람들에게 대해 거의 완벽할 정도의 사고통제(thought control)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공식 지침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향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어떤 한 북한이탈민이 회상하기를 울어야 할 상황에서 울 자유도 없다고 한다.

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통제가 오랜 기간 계속되고 사람들이 외부적 강요에 적응하는 것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 일종의 국가적 규모의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이 생기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잘 수용하기 위해 억압적인 시스템을 내재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체제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것과 하도록 교육받은 것을 최소한 그 당시에는 진짜로 믿게 된다.

수용소 생활에 대한 참혹한 경험들이 수감자들과 경비요원에 의해 공히 확인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수감자와 경비요원, 박해받는 사람과 압제를 가하는 사람, 피해자와 가해자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지적하는 오랜 속담을 떠올리게 된다. 양쪽 모두 결국 국 민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공동숙명에 처해진다.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읽게 될 때에도 수용소는 말도 안될 만큼 극단적인 형태를 띤 사회전체와도 흡사해 보인다.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층들도 그들이 만든 이 체제의 피해자다. 이들은 고통으로 인한 사람들의 소리 없는 외침(muted cries)에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야만 하고, 자신들은 옳은 일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지배층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들도 설득해야 한다.

공감이 짓무르게 되는 것(erosion of empathy)은 해당 국가의 국경에서 멈추게 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 밖 우리들의 마음에, 국가권력으로 인해 비참함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그림자가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목을 끄는 것은 고위

정치(high politics)이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쟁점들이다. 심지어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희화화하고 북한 관련 테마를 다룬 희극물들(comedies)도 보인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객의 즐거움을 위한 것일까?

문명의 진전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에 더 공감하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 고문, 속박, 극단적 형태의 폭력을 냉안시(冷眼視) 하게 되었음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이러한 일반적 추세에도 예외는 있어 보인다.

과거 10년간의 이른바 햇볕정책(sunshine policy) 기간 사람들의 고통과 관련한 한국 문제(Korea problems of human sufferings)는 남북 양측 간 있었던 거래(관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양측 간의 화해, 평화, 민족적 통일성, 그리고 숨겨진 의제 다시 말해 통일에 대한 모든 중요한 국가적 사명에 있어서 남북은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만 벗어나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다. 강대국의 주요 관심사는 고위 정치(high politics)에 머물렀다. 특정 국가에게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또 다른 국가들에게는 한반도 평화와 체제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전략적 이해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들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남북한 인사들과 미국 인사들이 참석했던 한 컨퍼런스에서 이은 파티(party)에서 흥겨운 분위기에 상당량 술이 소비되었건만, 참석자들 간 우호적인 대화 중 북한내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고위 정치(high politics)에 대한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당면한 쟁점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종종 장기적인 관심을 요하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보여주고 있듯,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공감하는 것, 오랜 기간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들의 혼돈 상태(human chaos)에 대해 염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의 중요한 일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려와 걱정을 표현하려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그리 길지 않은 세미나 작업이 두 분의 한국 학자에 의해 진행되

있는데, 이 두 분은 각각 이상하리만치 이 이슈에 대해 서로 간에 전쟁을 치러왔던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했다. 이들 두 분의 결론은 당면한 정치적 이슈가 우선적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고 점차적인 개선을 목표로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하나하나 우려와 관심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성의 위기를 외면하게 되면 어둠의 그림자가 몰래 다가오는데, 저는 이러한 이슈를 기억하고 문제 제기할 태세를 갖추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지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 인구증가, 물 부족, 곡물가격 상승과 국가실패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을 온전히 통제하려하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격세유전의 국가권력이 만들어 내는 마음의 어두움(darkness of heart)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격세유전의 국가권력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서서히 인성(humanity)을 와해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Session I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발 제

북한인권 상황 진단과 전망

김 성 영
인권위원

북한인권 상황 진단과 전망

김 성 영
(인권위원)

1. 왜 우리는 북한인권을 이야기하는가?

지난 해 말부터 최근까지 북한(North Korea)이 이처럼 국제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으면서 국제적 이슈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국내외 언론은 북한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과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한내부의 권력세습 과정,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핵 문제 등을 연일 핫 토픽으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탈북자와 이들이 다수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곳 LA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북한이 2009년 UN에 제출한 인권정례검토(UPR) 보고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권이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부여되고, 완전히 존중된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라고 언급하면서 “인권은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되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에게도 보편적인 권리라는 인권이 있거나 하는 것일까? 북한은 1948년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를 알고 있기는 하는 모양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천명한 인권과는 정반대로 실제 북한주민의 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그 상황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북한도 가입하고 비준한 자유권, 사회권,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치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주민 대부분은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참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이념적 논리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북한당국도 부정하지 않는 순수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다.

● 인권은 헌법적 가치 실현

흔히 우리는 북한주민을 동포(同胞)라고 칭하고 있다. 동포라는 단어를 풀이해 보면 같을 동(同)과 태를 의미하는 포(胞)로 구성되어 있다. 즉, 남북은 역사적으로 같은 태(胎)에서 태어난 형제와도 같은 사이로서 이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동포로서 도덕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3조(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

또한, 정부도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 이후 황해도를 비롯한 미수복 5개도의 행정사무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까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2. 북한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북한인권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언급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왜냐하면 북한주민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정된 시간에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는 그 중에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한 정치범수용소, 아동 및 탈북자의 인권문제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현대판 아우슈비츠,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

과거 러시아 혁명 이후 반혁명분자의 처벌수단으로 활용되던 강제노동수용소 굴락(Gulag),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의 상징인 아우슈비츠 그리고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인류의 만행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다행히 굴락과 아우슈비츠는 아픈 역사로 남아 있지만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009년 인권위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직접 경험한 17명의 탈북자와 최근 국내에 입국한 300여명의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북한정권 초기 15개 이상 운영된 정치범수용소는 최근 5개소(14호, 15호, 16호, 22호, 25호)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된 인원은 약 15만 명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는 북한체제와 김일성 일가에 대한 비판을 한 자, 월남한 가족, 지주 및 자본가 계급 등 적대계층 그리고 연좌제에 의해 가족 중 1명의 과오로 대부분은 이유도 모른 채 공식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범수용소는 운영방식에 따라 사망 후 시신도 수용소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완전 통제구역과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나 대부분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된다. 수용소는 특정지역 전체를 수용소로 지정하여 외곽을 철조망과 감시초소 등 탈출방지 시설을 갖추고 수용소 안에서는 일반 가족단위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부 수감자는 수용소에서 출생한 아동들로 이들은 아무 죄도 없이 연좌제에 의한 피해자이다.

정치범수용소에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는 첫째, 음식, 수면시간, 성욕 등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둘째, 열악한 생활시설에서 평생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인 구타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것이다. 셋째, 수용소내에서는 모든 생활필수품이 자급자족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량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영양결핍과 과도한 노동착취로 인해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높다. 넷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 상호간 감시와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정권은 체제유지와 주민통제를 위한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반인권적인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인 폭력과 고문, 철저한 억압과 통제, 상호감시, 혹독한 강제노역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속에서 서서히 인간성을 말살하는 수용소는 인권침해의 상징이다. 수용소에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인권침해의 연속인 것이다.

• 미래 세대 아동의 실상은 어떠한가?

북한은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자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표면적으로 1990년 9월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1992년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제2차 아동권리이행보고서를 2007년에는 3·4차 통합보고서를 UN에 제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교육과 무상치료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아동들의 비참한 인권상황과 실태를 잘 알고 있다.

먼저 아동들의 건강을 살펴보자.

북한의 대다수 아동들은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권을 침해받고 있다. 2009년 발간된 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어린이 23%가 저체중, 9%가 쇠약, 45%가 발육부진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서 명시한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빈곤의 지속되는 문제와 식량, 안전한 식수, 위생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가능성에 대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생활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당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북한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존 북한에서 마약확산은 주로 성인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아동들에게 까지 마약의 손길이 닿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북한당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마약의 일종인 양귀비 재배 및 채취에 아동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속에 아동들 또한 마약에 점차 중독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제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교육권을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육 및 교육시설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내용도 인성교육이나 지식 습득보다 주체사상, 김일성 일가 우상화 등 정치 및 사상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아동교육은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등을 지향 목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 아동들의 노동착취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들은 학교생활의 일부로서 농촌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협동농장이나 건설현장 그리고 집단체조 등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 청소년들이 중학교 5학년(15세)이 되면 ‘붉은청년근위대’에서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것이다. 경제난으로 가정이 파괴된 어린이들은 자발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장사, 가사노동 등 일상적 노동자로 전락(일부는 ‘꽃제비’로 연명)되고 있다. 금년 1월 영국 위기관리분석 전문기관인 메이플클로프트는 북한을 조사대상 197개 국가 중 최악의 아동노동 착취국가로 지목했다.

• 탈북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2만명(23,513명, 2012. 3월말 현재)을 넘었으며 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금년 총선결과 탈북자 중 1명은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등 탈북자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웃이지만 이들이 느끼는 한국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지난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의 강제복송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인권위도 이 회의에 참

석하여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한바 있다. 인권위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접수한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강제복송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한 것이 70여건에 이른다. 이들은 왜 북한에 그리운 가족들을 남겨두고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한 것일까? 탈북과정에서 이들이 당한 인권침해는 어떠한가?

북한은 국제사회와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주체사상, 선군정치, 핵 개발 등을 통해 김일성 일가 세습에 국력을 집중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은 피폐화 되고 있다. 더욱이 식량난이 가중된 1990년 중반 이후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최근 탈북자의 약 70%는 여성으로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까지 인신매매, 성폭력, 노동착취 등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인권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어 온 불법월경자로 간주하여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변경지역상호협정의 정서'에 따라 이들을 강제복송 시키고 있다. 강제복송된 탈북자들은 반국가사범으로 분류되어 단련대, 교화소에서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다.

인권위는 탈북자들이 강제복송 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생명권 침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공포와 정치적 박해를 고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2008. 8. 4)와 성명(2011. 11. 18)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월 유엔사무총장,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사회에 이들의 강제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탈북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UNHCR과 INGO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실 탈북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복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 등 폭압통치를 멈추고 선군정치가 아닌 선민정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이들의 탈북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끝나지 않는 한국전쟁의 상처, 이산가족의 실상은 어떠한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인도적 사안임을 천명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가장 정치적 문제로 취급되어 남북 관계의 부침(浮沈)에 따라 상봉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은 약 7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정보센터에 상봉을 희망한 신청자는 현재까지 약 128천명으로 이들 신청자 중 생존자는 약 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80세 이상이 절대 다수임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문제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없다.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지금까지 상봉한 남북 이산가족은 4,321가족(남한 2,153가족, 북한 2,168가족), 21,734명(남 14,057, 북 7,677명)으로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또한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및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로 더 이상 상봉이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분단에서 발생한 인권현안으로 국가가 이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기존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한 인도주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간 해결에 집중한 결과 소수인원(1회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상봉에 그칠 뿐, 북한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은 “가족은 사회와 국가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기본적 단위 집단”이라 명시하여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도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기본적 인권(가족권) 침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중앙심인사업본부(Central Tracing Agency)가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의 원칙, 즉 상봉을 원하는 사람들 전원을 대상으로 ① 생사와 주소 확인, ② 주소

가 확인된 가족들 사이에 서신교환, ③ 상봉 ④ 상호방문 ⑤ 당사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의 재결합 등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산가족의 가족 상봉에 대한 소망은 정치문제도 이념문제도 아닌 천륜이자 인륜의 문제이다. 이들의 상봉은 조속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의 책무이다.

3. 결론 : 북한인권 상황은 개선될 것인가?

이상과 같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취약 계층인 아동의 인권상황 및 탈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북한주민과 이들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북한정권 붕괴시키려는 대북 압박용이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북한정권을 자극하여 오히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왜 UN, EU, INGO 등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북한인권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북한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을까? 오늘의 북한 인권상황은 관점에 따라 희망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기대와 의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청사진을 우리 정부에 권고 한 바 있다(『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 2011.10.24). 이 권고안에서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함양과 역량강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안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우리는 UN, EU 등 국제사회 및 시민단체(INGO)와의 공조를 통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으로 나의 발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주민이 외부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한다.

둘째, 식량, 구급약품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국제사회의 적절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UN, EU 등 국제사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북한인권개선에 관심 있는 교포 및 국내외인권단체(NGO)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션에서 논의 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이 이러한 과제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토 론 1

정치범수용소 문제

David Haw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 노동수용소를 해부하다

David Haw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북한 주민들은 '아랍의 봄'(중동의 민주혁명) 기간 중에 중동국가 시민들이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치안당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공격행위는 CNN 이나 BBC 취재진이 보는 데서나,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세계 인터넷에 즉각 연락할 수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은둔 왕국'인 북한에서 이러한 공격만행은 '관리소'로 불리며 사법 관할 외 지역이자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정치감옥노동자에서 일어난다. 이 곳에 있는 12만~20만 명의 포로들은 숙청 즉, 주민들을 사전에 정화하려는 북한의 희생양들이다. 그 밖에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공격은 감옥과 강제노동시설에서,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따라 포진한 경찰서에서, 조국을 떠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한 때문에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 보복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수십 년과는 달리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심한 억압행위가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피난처를 찾아 시민권을 얻은 탈북자들 23,000~24,000명 중에는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교화소'(중형죄)(감화원), '집결소'(경범죄형)(감옥), '노동단련대', 그리고 '구루장'(경찰 검문소) 등지에서 국제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전에 투옥된 북한사람들은 말하자면 수백 명이나 된다. 이들 포로들의 증언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감옥과 노동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억압의 실상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가혹한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과, 이러한 위반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수 있는 시점 사이에는 2-4년의 지체기간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정치범들은 석방되어야 한다(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소 노동수용소에서 탈출자만 2명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수 개월 혹은 수년간 지내면서 중국으로 탈출을 계획한다. 그 후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 긴 여정을 위한 끈나뭇을 만든 후에 보통은 동남아시아를 통해 남한으로 들어온다. 일단 남한에 들어오면 탈북자들은 여러 달에 걸쳐 남한정부에서 마련한 안보 브리핑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일이 있는 후에만 북한에서 인권침해의 희생양과 증인들은 언론인, 학자와 인권관계자 등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사실은 북한 데이터베이스(NKDB),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KINU), 그리고 북한인권위원회에 대한 필자의 보고서(Hidden Gulag 제2판) 등에서 다양하게 요약되어 있다. 관리소 정치범노동정착촌(통제 장소, 정치범수용소 또는 강제수용소 등으로 번역)과 관련하여, 모든 보고서에는 외딴 산악지방에 갇혀 있는 포로 15~20만 명이 5~6곳에 늘어서 있는 야영지에서 가혹한 조건에서 가장 악명 높게는 최저 연명 수준 이하의 배급식량을 받고 거의 종신토록 노예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포로들을 채광, 벌채를 하고 포로수용소 내 위치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공산품에 작업을 하거나 산의 계곡에서 농업생산활동에 투입된다. 감옥 수용소 2곳인 캠프 15와 18에는 소위 '혁명화 구역'이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도 있는데, 이 곳에 있는 비교적 소수의 정치범들만이 풀려난 후에 북한 사회로 다시 편입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아주 대다수의 정치범들은 회유 불능이고, 심지어 뼈 속까지 '반혁명적' 악성 분자로 간주되어 죽을 때까지 노예노동을 할 운명에 처한다.

1. 수감자들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들은 북한사람들이 '김일성 국가'로 칭하는 곳에 끼워 맞출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좀 더 상세히 언급하면, 실제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생각되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 북한노동당 내 사상이 모호한 주장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절대적인 김일성 사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불순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로 기독교 신봉자였거나 주체사상이나 왕조계승에 반대했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그릇된 지식의 죄로 기소된 자들,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교포나 북한의 사회주의 동맹국의 붕괴를 목격한 동부유럽의 외교관이나 학생들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연고가 불량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노동수용소의 정치범들의 최대구성원은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한 가족들로, 북한에서 “3세대에 걸친 연좌제”에 대해 한국의 봉건적 관행을 부활한 때문에 또한 투옥된 죄인들의 아내, 자녀와 심지어 손자손녀 등이다.

2. 어떻게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하여 분석하는가?

인권침해행위를 문서에 기록할 때, 첫 번째 단계는 희생자 및/혹은 증인들로부터 심도 있는 직접적 증언을 얻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현대사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국가의 행동과 허용할 수 없는 국가의 행동을 명명하고 있고 최대한로 이용 가능한 국제규범기준에 따라서 억압의 실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장 충돌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 범죄와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를 정의한 제네바 협약을 적용한다. 최소한의 ‘법과 질서’가 있고 비교적 정상적이고 안정된 대부분의 유엔회원국들의 경우에 우리는 시민의 정치사회경제문화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협약은 1948년도 ‘세계인권선언문’에서 공표된 기본권리 및 자유를 국제법의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이들 규정에 법적 구속을 받기로 동의하면서 이들 협약을 비준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인권서약을 적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을 초월한’ 것, 예를 들어 김일성 왕가 등 조종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 밖에서, 법보다 못하게’ 벌어지는 것도 상당한 데, 위조활동 및 기타 불법 경제활동, 그리고 시민장악의 주요 요소로서 작용하면서 전적으로 사법 관할 외 정치범수용소의 징계체제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운 좋게도 2002년 6월 현재 우리는 인권침해가 만연되고 체계적으로 가중한 행위를 평가하는데 아주 귀중한 국제규범으로서, 국제범죄재판소 로마 법령 제7조에서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 정의를 수정한 내용이 있다. 북한의 포로수용소에 이 7조의 조항을 적용하려고 한다.

- 수용소로 보낸 사람들은 북한 형사법전이나 형사절차법전에 따라서 구금, 심리, 기소 또는 형을 언도 받지 않는다. 이들은 국제법 용어로 강제 축출된 사람들이다.

- 이들은 이전에 법적 거주지에서 '추방' 당하고,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으며, 전기철망으로 둘러싸인 노동수용소에 갇혀 있다.
- 이들은 북한 헌법, 법률 및 사법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 무한정, 거의 종신토록 외부와 차단된 채, 자유를 심하게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 이들은 포로수용소 광산, 임야, 들판 및 공장 등에서 '노예노동'의 사면을 받지 못하면서, 최저 연명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배급식량을 받아 결국 '몰살'의 수준에 이를 만큼 억류된 상태에서 (영양실조, 질병 및 강제 노동사고 등으로부터)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
- 이들은 강제노동생산량을 지키지 못하면 매질을 당하거나 수용소 규정을 어기면 고문을 받고, 탈출시도를 하거나 수용소 가축이나 수용소 채소 경작지에서 식량을 '훔치는' 것과 대부분 관련되는 바 수용소 규칙을 어기면 사법 관할 외 지역에서 살해되기도 한다.
- 굶주린 여자죄수들은 강간죄를 구성할 정도로 억박지르는 상황에서 자주 교도관 및 관리들과 성행위에 내몰리게 된다.

저자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제 필요불가분한 상황에서 인류에 반하는 범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11가지 행위 중 10개를 구성한다.

그러나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현재 국제법은 북한포로수용소의 억압 실상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법적, 규범적 토대를 제공하지 못할 뿐이다. 또한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를 분석해 보면, 만약 북한 지도자와 국가보안경찰당국의 범죄 행위의 만행을 없애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취할 것인지를 찾아볼 경우, 포로수용소체제를 무력화하여 해체하기 위한 토대 및 청사진이 그려지게 된다.

핵심적인 조항, ICC 법령조항 7.1e, "국제법의 기본규칙을 위반한 신체자유를 가혹한 박탈이나 감금" 조항을 상기해 보자. 수용소의 '혁명화' 구역의 비교적 소수의 포로들은

3-10년 징역 후 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 포로들은 투옥 전의 친구, 이웃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연락을 하며, 직장과 살 집을 얻게 된다. 이들은 오히려 북한 사회에 쉽게 다시 통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사면을 받는다.

그러나 20~30년간 징역을 살았고 친구와 이웃들과 법적 거주지와 직장파 연고를 기본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어떠한가? 이들 사람들의 가공할 곤경에 가능한 해결책은 정확히 말하면 심하게 박탈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 어떻게 노예노동을 끝내는가? 광산업자, 벌목업자, 포로수용소의 농장과 공장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줌으로써, 돈이나 음식과 의복으로 바깥 사회에서 직장인들이 얻는 것처럼.
- 심한 영양실조와 그에 따른 질병으로 인해 억류 상태에서 몰살 수준의 사망률을 어떻게 끝내는가? 포로들로 하여금 시장에서처럼 포로수용소 내 경작되는 농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취약한 집단'(UN에서 인정)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취약 집단'이 국제식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어떻게 외부세계와 차단된 억류를 끝내는가? 수용소 포로들이 편지와 소포를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용 가능한 만큼 신문, 라디오, TV와 전화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어떻게 법의 보호 박탈을 끝내는가? 북한의 사법 체계를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인민공화국의 형사법전 및 형사절차법전의 관할 범위를 관리소의 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 아버지나 조부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때문에 수용소에서 감옥살이 하는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의 학대를 끝내는 방법은? 청년노동여단을 조직한 것 때문에 초점의 대상이 되는 대신에 북한에 대안 학교 같은 커리큘럼이 있는 초, 중, 고교를 세움으로써.

- 그리고 그 밖에,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에게 허용된 것과 같은 제한된 국내 여행을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등.

어쩌면 이는 급진적인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실체는 그렇지 않다. 이미 수용소 18의 해제민(의무 해제된 사람) 구역에서 억류해제를 위한 모델이 있기는 하다. 이 곳은 이전의 장기수 3천명이 공식적으로 풀려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고-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 관리가 거주 허가를 줄 경우에- 그리고 인민공화국 전 주민에게 적용 가능한, 같은 제한된 권리와 자유가 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정확한 위도경도로 관리소의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전에 UN에 공언한 바 있다. 노동수용소를 해체하거나 포로를 석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누가 알까? 결국에는 국제사회가 기꺼이 인간세계에 반하는 정치범수용소를 명백한, 대량 범죄로 인정하고 비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자신들이 더욱 존중과 인정을 받고 국제 사회와 합류하는 수단을 모색할 경우에 포로수용소가 자신들이 다룰 사안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토 론 2

아동권리 침해 문제

Sandrea Fahy
박사, USC

북한 어린이와 인권

Sandra Fahy

(박사, USC)

1. 서론

아동의 권리에 대해 논할 때 아동이 살고 있는 환경, 함께 사는 사람 특히,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인권을 가장 기본적인 면인 식량 접근 면에서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거의 모든 어린이의 다른 권리 침해와 생존 문제가 시작된다. 지역, 직업,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녀 또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생물학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는 인권침해라는 최악의 결과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실제 여기에서 전 북한 주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어느 사회이건 태아와 유아와 어린이가 가장 취약하지만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쉽게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혼자 음식을 먹을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음식물의 원료를 알고 준비하고 찾을 지식이 없으며, 부모를 잃게 될 경우 어떤 어른을 믿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며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북한 어린이는 모르는 사람의 선의, 행운, 생존을 위한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어린이의 특권과는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북한 어린이에 대해 말하려 한다. 북한에서는 어린이를 두고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실은 이 말과는 거리가 있다.

북한 정부의 접근 제한으로 북한 어린이와 이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조사 윤리 때문에도 제약이 있다. 북한에는 인구 2350만 중 18세 미만인 미성년이 약 680만 명 있으며, 그 680만 중 약 210만 명은 5세 미만이다. 이 정보는 몇 군데 안 되는 정보원인 UNICEF 북한 내 아동의 상황에 대한 탈북자 증언록과 회고록에서 구한 것이다.

영양 차별이 북한 사회에 만연한 상태이고, 이는 지역, 그리고 직업과 정치적 특권에 따라 뚜렷한 선을 그리고 있다. 아동의 영양소 배분은 부모가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직접 연관이 있으며 이는 다시 북한 내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특권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도 별로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큰 차이가 있어, 수도인 평양 주변이 가장 상황이 좋고 멀리 떨어진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와 같은 북동쪽이 상황이 열악하다. 평양 외곽의 도시 아이들이 가장 취약하다.

UNICEF와 같이 북한에 존재하는 원조 활동은 아동의 치료와 발달, 식수 공급과 위생, 학교 환경 개선과 같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북한 내 NGO 수는 제한이 있으며 DPRK 정부기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전체에서 활동하는 직원 수는 10명 정도에 1998년에 처음으로 UNICEF 대사로 지정된 사람이다.

1993-1998년 기근과 홍수와 경제적 난관으로 1인당국민소득이 절반이 되고 유아 사망률이 14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5세미만 아동 사망률은 1000명 출생 당 27명에서 55명으로 증가하였다. 심각한 식량 부족, 필수 약품 부족으로 인한 높은 질병 발생률과 건강 악화, 식수와 위생 상태 저하가 모두 영유아 사망률을 높이는 데 작용하였다.

원지 기관의 노력으로 이런 경향은 크게 나아졌다. 2004 영양조사에 따르면 1998 ~ 2004년 급성 영양실조는 16에서 7퍼센트로 감소하였고 만성영양실조는 62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아직도 높은 수치이다. 나아가 임신부 세 명 중 한 명은 영양 실조와 빈혈을 갖고 있어 성장 저하, 학습, 발달 문제는 물론 평생 건강 취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영양실조의 장단기 효과

Pak, Schwekendiek and Kim, (2011)의 연구에서는 1930년대부터 1980년대에 태어난 북한 난민 6,512명의 성인 신장을 북한의 생활 기준 지표로 하였는데 분단 전 북한 출생자의 키는 남한 출생자보다 훨씬 컸다. 그 이후로 태어난 북한 출생자의 키는 남한 출생자보다 작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키 차이는 커졌고 1980년대 초반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결과는 정치적 분단 후 북한이 남한에 비해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대중적 믿음에 상반된다.

3. 여성과 어린이와 영양과 발달의 관계

북한에서 모성의 영양 상태는 북한 어린이의 성장 저하와 연관이 있다. 성장 저하는 식사의 양보다는 식사의 질과 좀 더 연관이 있으며, 가구의 위치와 성장 저하 간에는 좀 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 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도/시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 남포와 평양에 거주하는 모성과 어린이가 상당히 조건이 유리한 상태이다.

성장 저하의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아동 사망률에 반영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성적 저하와 작업 능력 저하 및 성인의 질병율과 조기 사망에까지 영향을 준다. 아동의 성장 저하율은 모성의 영양 패턴, 모성의 영양 상태, 임신 중 건강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장저하는 생존과 신체적 성장의 관점만이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장저하는 정신적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적 지표이다.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우리 몸 스스로가 생존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장은 두 번째, 인지와 뇌의 발달은 가장 마지막에 두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생존, 성장, 발달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발달하려면 정신적 자극과 함께 적절한 음식물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된다.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아동은 물체를 쥐고 쓰다듬고 말하고 물체를 보며 눈으로 자극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다.

영양실조는 결핵 (영양 상태가 부실한 몸을 숙주로 삼는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관리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북한 (의사, 약품, 물자 부족)은 약물내성 TB 율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다. TB 유행병은 매년 약 10%의 비율로 증가할 것이며 아마도 만성 영양실조로 가속하게 될 것이다.

4. 아동 인권 침해의 사회적 영향

북한의 아동 영양실조는 만성 기근이 생존, 성장, 발달을 침식하는 전 세대간 패턴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전 생애에 걸쳐 복지와 성취도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기근과 흉수가 1990년대 아동의 조기 발달과 현재의 영양실조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만성 영양실조는 더 광범위한 결정 인자를 반영해 준다. 즉, 여성의 열악한 신체 상태, 전반적인 간호 환경 및 적절한 간호를 할 수 있는 1차나 2차 간호기관 부족, 건강관리 및 식수와 위생 시스템 침식, 어린이가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고 전염성 질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간호인력의 활동 저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식량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관점 중 하나가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의 변화일 것이다. Schwekendiek (2010)는 기근 후의 북한 아동 2,793명 중 표준사회경제지표로 남녀 성비를 조사하여 성차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박사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북한에서는 사라지고 있으며 심지어 유교와 사회주의에 모두 위배되는 여아 선호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과 위기 시의 유전자의 반향으로 딸에게 가계의 자산이 이동하게 되었던 1990년대의 기근에, 냉전후 경제 상황에서 딸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었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의제를 사회적 인자로 하여 연구를 한 Goodkind (1999)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냈다.

5. 결론

북한의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를 위해 수많은 위험을 무릅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월경이나 자본주의 기업에 들어가는 등 식량이나 다른 생필품에 접근할 권리를 주지 않아 이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녀에 대한 원천적 책임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토 론 3

이산가족 문제

이 기 육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지회 고문

일천만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동포사회의 역할

이 기 육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LA지회 고문)

우선 북한 인권상황 진단과 전망에 대해 절실하고도 구체적인 접근으로 발제를 하여 주신 김성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 UCLA 한국학 연구소 존 단컨 소장님, USC의 데이빗 강 소장님, 산드라 파히 박사님, LINK의 해나 송대표님,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데이빗 호크 위원님, 한동대 원재천 교수님, 스탠포드대 신기욱 교수님,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동포의 한사람으로서 북한인권과 남북이산가족 상황에 대해 애끓는 안타까움과 절박감을 함께 갖고 있으며, 미국교포로서 대한민국과는 다른 이곳에서 이에 대한 새롭고 유효한 접근 방식은 모색할 수 없는 것일까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맹 미국의 정치권과 주류언론들의 유력한 대북관을 보면, 지속적이며 일관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역시 이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정치권, 사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LA 동포사회의 대북 관련 움직임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천안함 폭침 1주기에 대한 대북규탄대회가 있었으며,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의 북송에 대해 규탄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간간히 일부 동포단체나 교회 등에서 탈북인을 초청,

북한 실상을 청취하는 수준의 초보적 단계이며, 조직적이거나 실효적인 다음 단계까지는 도달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발제문 중에서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집중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한의 이산가족은 약 800~1,000만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과의 인구비례로 보면 LA에는 약 1만 5천~2만 명의 이산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에는 약 4만~5만 여명의 이산가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적십자사가 1972년 첫 남북이산 가족 상봉을 실현한 이래, 2000년 이후에는 연간 오직 100~200명만이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을 하여, 현재 불과 1,500명 정도가 가족상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에서 현재 면회상봉을 요청한 12만 4천 여명 모두가 가족 상봉을 하려면, 앞으로 50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그리고 남북분단 60년이 흘러 이산가족 1세대는 80세 이상 고령으로서, 이제 천추의 이산상봉의 한을 풀 수 있는 기간도 불과 5~10년 밖에 남지 않았음은 확실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의 인권, 자연인,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본능인 “피붙이 가족 만남”의 한을 대한민국의 유력한 민·관이 앞장서고 뜻있는 유관기관이 국·내외에서 함께 해결하여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 블로그를 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을 위한 인권전장 독립국가 기관”이다 라고 되어있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치, 경제권의 이해가 상충될 때도 바로 국가 인권위원회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기대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의 시민, 국민,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가족과 함께 만나서 살 권리를 찾

아 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주도하셔서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뜻있는 유관 기관과 국제 협의체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조직적 정기협의를 하며 성명발표, 심포지엄 개최발표, 유엔관련기관 방문 의향서전달 등을 하여 국제우호 여론을 일으키며 유도, 환기하는 유기적 범단체기관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대한적십자사, LA 민주평통, 총영사관, LA 이북5도민회,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인도적 북한지원단체, 교회 등 종교단체, 학교, 노조 등.

2. 실체적 인권, 난민 기관인 UNHRC(유엔고등판무관) 등에 우리의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정기 제출.

3. 세계의 선진 우호 동맹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유도, 호소.

4. 사안에 따른 민·관 역할 분리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 대응 시현(정치적, 경제적 이 해가 상충하는 부문 해소).

이상과 같이 미국을 기반으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범 국제단체의 상설화를 제안 드립니다.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었을 때, G20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일천만 남북 이산 가족을 위해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국민이 그때 과연 무슨 일 하였느냐고 후손들이 물으면, 대한민국 당국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숙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오로지 정치권 탓으로만 돌릴 것인지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토 론 4

재중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

Hannah Song

LINK 대표

재중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

Hannah Song

(LINK 대표)



Session II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국제사회의 역할 중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발 제

어둠을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을 밝힐 것인가?

DAVID KANG

USC 한국학센터 소장

어둠을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을 밝힐 것인가?

DAVID KANG

(USC 한국학센터 소장)

우리들 가운데 북한인권을 염려하는 이들은 북한인권을 비판하고, 인식을 높이고, 북한에 관하여 대부분 상징적인 제스처를 얼마나 보내야 하는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관계학 학자들 뿐 아니라 인권현장에 있는 분들도 중대한 윤리적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만약 무고한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외부 조직들이 · 정부들, NGO들, 다른 단체들 ·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눈에 띄게 불쾌한 북한 체제와 같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체제를 고립시키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외부 압박과 창피함을 안겨주고 체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현 북한체제와 함께 일하고 상대하는 것이 북한정권이 자기 주민에게 개탄스럽고 끔찍한 학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허용하는 것인가?

압박을 지지하는 자들은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전략(naming and shaming)을 포함해서 북한이 인권침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압박을 더 가하기를 바라고 중국에도 압박을 가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인권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 규범에 해당한다.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측면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조용하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북한내의 현지 정부 관리들과 장기적인 실무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범위에서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인도주의적인 사안에 관심 있는 이들을 주로 “인권 활동가”로 함께 묶여 불리우지만, 각각 다른 관점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좌파 측에 있는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기를 꺼릴 수도 있다. 우파 측에 있는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즐긴다. 두 쪽이 조용히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을 향한 목표들 때문이라기 보다는 체제에 대한 기존의 지적성향을 재확인하려는 이유가 더 크다. 보수는 체제를 싫어할 또 한가지의 이유를 원하고, 진보는 비판하는 것 자체를 망설인다. 이 묘사는 불공평하고 너무 포괄적일 수 있으나 북한인권을 향한 접근 뒤에 일어나는 복잡한 정치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상황은 더 복잡하기만 하다. 김석영이 주장했듯이, “처음 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운 관광지들과 잔혹한 탈주자 사냥이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산하는 수행 매커니즘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순간, 관광업과 인권 문제들은 국가 업적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서 북한 선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화를 생성한다. 탈북자들, 외국인 관광객들, 구호대원들 모두 북한에 대한 “진정한” 묘사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각 경쟁되는 사상들을 도입한다.”

이런 각각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북한 주민들은 추정된 경쟁되는 의미들, 이미지들, 묘사들에 대한 대상이 된다. 풍선과 함께 반 북한정권을 비난하는 팜플렛을 비무장지대로 날려 보내는 NGO 활동가들, 난민들과 국제 구호원들부터 미국이나 남한 같은 외국 정부들, 그리고 물론 북한 정부까지, 이들은 각각 북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수행하거나 상징적인 틀에 넣고 있다. 물론, NGO 활동가들, 정부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의 활동들이 북한내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 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갖는 북한의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다.

김씨는 탈북자들이 북한정부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쓰고 미국과 남한에서 공연되었던 뮤지컬 “요덕 이야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선전 영화를 모방한 비유와 표현들

을 사용)를 예로 든다. 북한영화들과 “요덕 이야기”에서는 “두 여주인공들이 압제자들 (일본 및 북한 정권)에게 저항하면서 모두 피해자에서 반대자로 변화한다. 침묵을 지키고 조용한 몸짓에서 벗어나, 압제자들에게 대항해서 흉포한 저항의 몸짓을 하는 단호한 전사들이 되고 엄마가 자신의 자식들과 이별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이미지를 통해 비극적인 이산 가족의 아픔을 표현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든 안 시키든, 지금 북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가장 분명한사실은 북한 정권은 북한주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의 생존에 첫 우선순위로 두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북한문제를 우려하는 국가들의 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여와 고립 중 어떤 것이 북한을 더 변화시킬 것인가?

경제나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북한은 10년전과 비교할 때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핵미사일 프로그램들과 관련하여, 그간의 10년은 협상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을 희박하다는 결론을 양쪽 입장에서 내리게 되었다. 미국, 남한, 일본 정부들은 북한이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양보를 하게끔 억압하는 봉쇄와 고립의 정책을 선택했다. 이 정책은 각각 미국과 남한의 국내 정치에 있어서 제법 성공적이었고 양쪽 정부가 그 전략을 바꿀 계획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북한 문제는 단순히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북한의 고립과 북한과의 최소 상호작용 전략은 가장 약하고 취약한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매년 기아에 허덕이는 환경 속에서 위험한 생존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국제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외국에서 무역을 통해 충분히 벌어서 충분한 양의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정부 역시 계속해서 끔찍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고 국제고립은 그런 침해들을 줄이는데 있어서 일조한 것이 거의 없고, 아마도 식량난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시급한 현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과 북한정부와 북한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양보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과 서로 목적이 어긋날 수 있다. 북한 엘리트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제재들도 거의 효과가 없는 듯하다. 상위계층에 있는 엘리트들이 아닌, 가장 어리고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약하고 취약한 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헤거드(Haggard)와 놀란드(Noland)가 결론 내렸듯이, 북한을 국제지원으로부터 차단시키는 협조된 전략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미심쩍은 공리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느 미래 시점이 되면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지거나 개선될 것이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지금의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된다.

그러므로, 북한은 정책 입안자들, 활동가들, 서울, 워싱턴 및 다른 수도에 있는 NGO들에게 쉬운 해결책보다는 오히려 여러 차례의 힘든 트레이드 오프를 제시한다. 어떤 형태의 참여는 현재의 경제적이거나 인도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이 북한 정권에게 자신의 국제 태도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제사회와의 봉쇄는 적대적인 북한 외교 정책 태도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지만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할지도 확실치 않고, 아마도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외부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북한의 상호 연동을 인정하는 북한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참여와 압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트레이드 오프를 관리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토 론 1

북한과 UN 체제의 인권보호증진

David Haw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북한과 UN 체제의 인권보호증진

David Hawk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북한에서 벌어지는 체계적이며, 가혹한 위반행위에 대한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 볼 가치가 있는 UN 인권시스템의 양상은 다음 5가지로 국제인권협약 검토 및 권고과정, 국가인권 정기검토(UPR), 인권위원회 및 총회에서의 의결사항, UN 인권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특별 절차' 및 '조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1. 협약검토과정 및 권고사항

조선인민공화국은 4가지 국제인권조약기구 즉, 시민정치권리협약, 경제사회문화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여성권리조약 등을 비준한 바 있다. 대부분의 UN 다면적 인권 조약처럼, 이들 협약은 전문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당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의 조건과 규정을 이행하는 데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심의위원회(UN 용어로 '조약 단체'로 칭함)는 다음에 당사국에 조약공약과 양립할 수 없는 정책, 그리고 이행 상황을 증진하는데 취할 조치들에 대한 권고를 해준다. 북한은 4 심의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심의위원회는 조약의 의무사항을 보다 준수할 조치와 그리고 북한이 인권향상을 위해 취할 방책들에 관하여 수십 가지 권고사항을 전달하였다.

조약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주목할 점은 모든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인권향양과 관련된 UN 로드맵과 같은 분량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차분히 앉아 목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다.

UN은 이미 북한이 사실상 협조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를 실시하였다. 이제, 북한 관리와 일종의 '인권대화'가 있다면, 이들 권고사항은 논의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해당 협약에 제시된 인권규범기준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인권대화는 없다. 북한은 UN 인권 관리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보안 문제에 관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6자 회담 참가자들은 비핵화 회담이 충분히 진행될 경우 인권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협상은 인권상 고려할 사항을 거론하기도 전에 이미 결렬되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시아의 경우 보안 협조수단이 거의 전무한데, 인도주의 및 인권상 고려할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무조건적인 '햇볕 주의자들'은 인권문제가 일부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희망에서 향후 2,30년간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며 문제시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더욱 눈앞에 닥친 것으로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되는 보고서를 UN 조약단체에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앞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했는가에 대해 주민들이 질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비교적 최근의 조치로, 유엔인권위원회는 3년 간격으로 모든 유엔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사절단들은 제네바에 모여 국가 인권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한다. 기타 유엔회원국들은 다음에 인권향상을 위한 서면, 구술 권고사항을 작성한다. 몇 개월 후 위원회 토의에서 검토 대상 회원국은 권고사항 중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인지 위원회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이는, 2009년 12월에 조선인민 공화국이 공언한 바 있다.¹⁾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비적대국 등 기타 비회원국들은 북한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초 위원회의 다음 회기에서, 북한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항 중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언명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북한은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알려진 유엔인권 프로세스의 완수에 협조를 거부한 유일한 회원국이다.

1)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은 '소위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명한 공언을 하였다.

3. 조선인민공화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사항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의 47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제네바에서 매년 수 차례 모인다. 2003년에 시작된 위원회에서, 그리고 2005년에 발기한 유엔총회에서, 이들 유엔회원국들의 회의는 북한의 터무니없는 인권침해행위 목록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매년 심의하고 압도적인 차로 통과한다. (이러한 명시적 비난 때문에 배척을 받고 최악 사례의 위반 회원국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결의안의 주요 후원국들이 EU 회원국인 반면, 북한은 이들 결의안이 근엄한 사회주의체제를 비방하려는 미국 제국주의의 적대적 취지라고 비난한다. 위원회와 총회의 결의안에 찬성 투표하는 유엔회원국들은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추세와 방향으로부터 점점 고립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²⁾

UN인권위원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특별 보고관'을 지명하고 있는데, 북한은 자체 인권상황에 대해 위원회와 총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특별 보고관은 2명으로 첫 번째 보고자는 유엔을 위해 많은 임무를 맡은 국제헌법의 타이 교수이고, 두 번째는 (현재)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이다. 둘 다 북한과 훌륭한 대담자 역할을 했지만 북한은 강경하게 협조를 (예를 들어 진지한 거부) 거부하고 있다. 위원회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유엔의 최고인권관리인 인권고등위원회위원장과 대화에 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또한 고등위원장과도 협조를 거부한다.³⁾

총회 결의안은 또한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의 북한과의 상호작용 및 개입의 모든 정도에 대해 총회에 매년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이들 보고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부수적인 제재사항의 결의안,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격 등 도발 행위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아주 많다. 유엔에서 북한 지역 내 전개 중인 UNDP와 그리고 WFP, UNICEF, UNFPA, FAO 등 유엔인도주의

2) 2011년에, 123개국은 총회의 북한위반행위에 대한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하였고, 16개국은 반대투표를 하였다(기권 51표, 불참국은 3개국)

3) 북한의 기근이 고조되는 동안에도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거의 1/3에 식량지원을 제공하려 했을 경우 만성적인, 지속적인 식량부족을 논의하기 위해 '식량권한 특별 보고자'와의 면담 요청을 북한은 6번이나 거절하였음을 주목하도록 한다.

구제기관 등 UN 프로그램뿐 아니라 북한의 총회, 인권위원회 및 유엔 인권기관 등과의 비협조 사항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4. 유엔의 '특별 절차' 방안

2011년 9월에, Amnesty International, 인권 감시단체 및 파리 주재 국제인권동맹 등 국제인권NGO 단체 40곳 이상, 그리고 기타 아시아, 남미의 NGO들이 동경에 모여 북한의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를 중단할 국제연합(ICNK)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만연된 인권침해행위가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촉구하려는 2가지 시도를 착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독단적 억류 (WGAD) 유엔 실무진, 북한인권특사, 그리고 소위 '특별 절차'와 '주제별보고관'으로 불리는 자들로부터 합동보고서를 추진하는 것이다. 유엔인원위원회는 전국적인 라인에 걸쳐 다양한 억압의 실상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전문가를 지명한 바 있다.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4월 2일자 "북한의 관리소 억류자들의 실태"에 관한 '구제 청원서'는, 사법관할 외 처형, 고문, 인권수호자, 표현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판사 변호인들의 독립성, 여성 폭력, 그리고 신체정신건강의 최고 수용 가능한 기준 등에 대하여 상기 유엔실무진과 북한의 인권 보고자, 그리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되었다.

이 모든 위반행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의 포로수용소에서 즉각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다. 그리하여 포로수용소 상황은 유엔의 모든 여러 '특별 절차'의 명령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침해행위를 10개의 보고서에 단편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특별절차'의 관련 관심사를 종합 문서에 통합하여 북한 정치범수용소체제에서 위반행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이나 깊이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전에 몇몇 보고자들이 모여 관타나모 만에서 미국의 '공포전쟁' 억류 시설에 대해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전례가 있다.

5. 조사위원회

위에 언급한 국제 NGO는 북한인권침해행위가 국제인권, 인도주의나 형사법을 크게 위반하는 행위를 구성할 경우, 예비 조사를 착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조사위원회나 전문가집단의 패널을 유엔의 보호 하에 구성하도록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나 패널은 이전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캄보디아, 소말리아, 레바논, 스리랑카, 콩고 민주공화국 등과 관련하여 구성된 바 있다. 범죄 위반행위가 일어났다고 사전에 발견되어 특별 국제사법재판소가 소집된 경우도 있었다. 그 밖의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는 국제형사법정에 회부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는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와 같은 회부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사위원회는 유엔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 총회나 UN인권위원회, UN사무총장이나 인권고등판무관 등의 결의안을 통해서 이러한 패널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때 조직된다. 각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어 국제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유엔의 관리 하에 가동되고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국제법의 엄중한 위반행위 조사를 착수한다. 다음에 전문가 패널은 조사한 결과를 안전보장이사회, 총회나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고, 평가를 끝낸 국제법에 따라 범죄 행위를 다루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취할 조치들에 대한 권고사항도 보통 함께 제시한다.

북한의 경우에, UN사무총장 또는 UN인권고등판무관이 조사위원회의 패널을 구성하도록 요청하는 조항은 유엔회원국들이 동의할 경우에 총회나 인권위원회의 인권결의안에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류 인권 NGO단체, 실제로 북한의 인권상황,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시스템이 전적으로 본인의 의견으로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었던 북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학대하는 조치처럼 인류애에 반하는 명확히,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으로, 조사한 법률학자와 배심원들이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생각으로 확산된다면, 북한 당국은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므로 해결해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6. 결론

실상은 여전히 우리가 주권국의 세상에서 살고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농상공 경제는 상당히 붕괴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 권력 기관들은 아주 많이 잔존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38경계선의 북쪽의 영토와 주민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정치 민주화(개혁과 개방)를 착수할 때, 착수할 경우에 인권개선은 근대화 과정의 일부가 될 거라고 희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재 진로는 '반대 개혁', 사회주의국가의 신보수주의 혹은 '신 주체사상 부활'로 묘사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 수단 및 절차를 통해서 북한이 현 세계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가질 정도로 북한 지도자에게 규범, 기준 및 현대 세계에 대한 사고 등을 국제사회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토 론 2

UNICEF, WFP 등 국제기구의 역할

David Austin

Mercy Corps. 프로그램 책임자

식량안보와 인권

David Austin

(Mercy Corps. 프로그램 책임자)

지난 해 Mercy Corps는 미국 NGO 4개 단체와 함께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18개월 간 Mercy Corps팀원은 5회에 걸쳐 북한을 찾아 6개 도를 방문하였고, 2010년 2월에는 후에 진행된 식량원조 논의에서 시급성 역할을 하였던 된 USNGO 식량안보상황 조사를 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Mercy Corps는 본 고를 통하여 지난해의 경험과 인도적 접근 정책을 옹호하는 이유를 논하고자 한다.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식량:

식량이 인권이라는 것은 음식이 없으면 사람은 머지 않아 죽게 된다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단계로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음식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므로 식물을 구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성문화하는 것이 얼토당토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명확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에 들어서는 먹을 권리를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수많은 국가의 헌법으로 성문화 해 놓고 있다.

식량이 곧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살기 위해 먹거리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음식이나 (이동하는 등) 음식을 구하는 것을 부정하면 인본주의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음식물을 손에 넣지 못하면 기본적인 인권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패널 토론에 식량 접근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 생각한다.

사람(이나 집단)이 물, 음식, 보금자리를 구한 후에야 우정이나 사회적 책임감, 도덕, 창작, 존중, 평등, 문제 해결, 그 외 권리 등 삶에 있어 보다 높은 가치와 책임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일차적이며 필수적이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물자를 확보한 후에야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나아가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를 볼 때에도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행동이나 증재에 동기를 유발하는 동정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런 행동은 문화를 초월하여 높게 평가되며, 많은 경우 이런 행동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위대한 종교 성인의 말씀으로 정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내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이 보편적인 원칙,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행동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한다.

유엔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적절한 음식을 취할 권리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으로, 소비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음식을 언제까지라도 제한 없이 일상적으로 직접 구하거나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개인과 집단이 공포 없이 존중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오늘 토론으로 제의한 문제는 식량이 없거나 구할 수 없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그 집단을 벗어날 경우의 책임에 대한 문제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가 정치적으로 밀접하거나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면 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지금 북한 주민처럼 정치적 경계가 기본적인 인권에 결부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 진다.

북한의 현재 상황:

북한이 식량 위기에 있느냐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 NGO 5개 단체, UN 기구 네 개, 유럽 연합과 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개월 간 식량 조사를 하여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만연한 가운데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즉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 미국 대사인 스티븐 보즈워스는 2011년 12월에 “인구 중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식량 지원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다. 내 생각으로는 영양실조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였다.

지난 해 본인은 병원이나 탁아소 앞에 늘어서 있는 배고픈 아이들이나 찬장이 비어있는 노부부, 얼어붙은 논밭이나 텅 빈 들판에서 낚알을 찾는 배고픈 가족을 수도 없이 마주했다.

북한의 기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많은 북한 주민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으로 이어질 급성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와 함께 이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인도주의 단체의 구호 활동을 허락하고 있다.

인도적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에까지 닿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가능성이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해 큰 변경 없이 북한 식량지원 프로그램(자금부족 문제 완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WFP는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식량 수송과 전달의 매 단계를 문서화 하는 엄격한 모니터링 프로토콜 집행을 성사시켰다. (WFP가 고용한 한국어가 가능한 모니터 요원이 24시간 보고하는) 유통망으로 모든 지점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 외에도 WFP는 수혜자의 영양상태(키/ 체중/ 연령과 같은 인체계측 데이터 수집)도 모니터링 하였다. 또 지원한 식량을 되파는 일이 없도록 민영 및 국영 시장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 전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굶고 있다”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변인 토미 비터의 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평양 외곽의 고아원, 만성 질환자, 노인, 임산부, 수유부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2012년 3월에 방문했을 때

에는 황해남북도 고아원의 아이들은 정상 배급량의 60%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1월부터 단백질은 전혀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다. 개 중에는 2월에 WFP가 나누어진 식물성 오일을 받은 아이도 있지만 만성 영양실조 상태라는 것이 분명했다.

이런 곤경을 타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돕느냐, 이 사람들과 북한 정부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고립시키느냐. 어떤 방법이건 위험도 있고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구호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USNGOS와 WFP가 작년 미 정부에 제안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제안한 “식량”은 옥수수-콩 혼합영양식(CSB)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옥수와 콩을 섞고 비타민, 미네랄, 약간의 식물성 오일을 첨가하여 만든 영양식이다. CSB는 데워서 죽처럼 먹는 음식이다.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보관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다른 음식물에 쉽게 섞어 사용할 수 없다. 서양에서는 흔히들 “귀리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음식으로 맛은 그다지 없지만 영양소의 균형이 잡혀 있어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제안한 음식물에는 쌀이 들어가지 않는다(더군다나 국무부 기자회견회에서 한 리포터가 농담으로 말했던 스카치나 랍스터도 없다). 얼마 전 거부한 식량 계획은 기아 상태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음식물은 모두 미국 국기와 (한국어로) “미국인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새겨진 봉지에 넣기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라고는 해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동의한) 식량계획안에는 90명의 국제 모니터(그 중 2/3은 한국어 가능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WFP가 45명을 추가로 받고 USNGOS가 45명의 모니터를 수용하며, 이는 2008, 2009년 미국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그램보다 세 배나 많은 숫자이다. WFP 모니터링 프로토콜처럼 미국 모니터도 가정을 포함하여 보급망 상 24개 지점에 접근할 수 있으며 모니터는 수혜자의 인체계측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북한처럼 고립되어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며 침투적인 방식이다.

끝으로 이 계획은 북한 주민과 많은 접촉을 하며 북한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미국 시민(대부분은 한국어 사용자)에게도 믿기 힘든 기회가 될 것이다. 모니터는 식량계획을 관리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선의의 대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중책을 맡게 된다. “연민을 지닌” 미국인이 북한에서 살고, 일하고, 관리 및 도움을 주게 된다면 지금껏 두 국가 사이에는 없었던 외교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권을 고립시키고, 식량계획을 거부하고, 다른 격리 정책을 쓰는 방안도 있다. 이런 행동의 결과는 이미 과거에도 수없이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아마 거의 같을 것이다). 정권 고립과 인도주의적 지원 거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당성이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약자를 포기하는 정책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립 정책의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충분히 고난을 겪고 있다(그리하여 지금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겠지만). 자국 내에서 어떤 힘도 없고 상황을 개선할 능력이나 수단도 지니고 있지 않다.

고립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확실하지도 않지만 의문의 여지도 없다. 정권이 바뀌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일반론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고립으로 약자가 힘을 얻게 된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힘은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하였다. 남아프리카나 중국이나 그 외 여러 국가가 고립으로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정책으로 변화가 되었다. 한반도의 오랜 장기적인 고립으로 북한이 정치적으로 발전하였다거나 주민들의 기아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이 지역이 안정을 찾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고립 정책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북한을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이다. 미 정부가 전에 발표한 “전략적 인내” (결국 “무시”와 동의어이다)라는 정책을 보면, 굶주린 결과는 단순히 죽음일 뿐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고픔 자체는 해결책이 아니며 배고픔이 해소되거나 식량 지원을 한 후에야 진정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ROK)이 북한을 무시하기로 했다면 그 결과는 더 나아질 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기업처럼 Mercy Corps는 기아, 가난, 억압에서 주민들을 구제할 때에야 비로소 평화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중재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환경을 통제하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수의 행동을 기준으로 인류 구성원을 고립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더한 고난을 불필요하게 낳는 집단 응징일 뿐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토 론 3

INGO 역할

Lynn LEE
NED, 박사

INGO 역할

Lynn LEE
(NED, 박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토 론 4

재외 교민의 역할

- 재미교포 학생들을 중심으로 -

신 기 욱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북한 인권과 재미교포 학생들의 활동

신기욱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최근 몇 년 사이 재미교포 학생 사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대학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그룹은 물론 전국적 규모의 NGO가 미국 내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은 물론 중국 내 탈북자 지원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재미교포 학생 중 북한인권에 관한 NGO 단체에서 일하며 여름방학을 보내는 학생 수도 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재미교포 학생의 북한인권 활동은 미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재미교포 학생의 활동을 개괄적으로 말하려 한다.

미국의 평균적 시민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나 독재자 쪽에 더 익숙하다. 인권 위기에 대해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탈북자의 삶이 하루하루 위태롭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적다. 미 언론이 다루고 있는 북한에 대한 기사를 직접 조사해 본 결과 기사문 중 약 2/3가 대량살상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인도주의나 고립된 정권 속의 인권에 대해 다룬 기사는 10%도 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간 북한 죄수의 비참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몇 권 출간되었고, 최근에는 블레인 하든(Blaine Harden)의 *Escape from Camp 14*가 출판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인권은 미국에서는 아직 부각되지 않은 문제로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인식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운동을 펼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재미교포 활동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아마도 캘리포니아계 거점

을 두고 있는 북한인권 NGO, Liberty in North Korea (LiNK)일 것이다. 이런 종류의 단체로는 미국 내 최초인 LiNK는 2004년 재미교포 학생 활동가 두 명이 만들었다. 미 전역의 재미교포 학생 활동가가 LiNK의 대학 캠퍼스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NGO 기금 마련과 인식 향상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LiNK는 훈련된 활동가를 중국에 파견해 탈북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현지 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재미교포 학생 집단이 주도하는 수많은 소규모 독립 활동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활동이 인식 향상 운동이다. 재미교포 학생은 북한인권에 관한 영화부터 탈북자를 손님으로 모셔 강연회를 갖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 향상 운동을 하고 있다. 학생 기구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런 학생이 조직하는 행사뿐 아니라 좀 더 큰 지역사회 속에서 꾸준히 관심을 일으키는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럼 스탠포드 대학을 예로 이런 재미교포 학생 활동을 설명해 보겠다. 스탠포드에서는 올해 4월 5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북한인권 컨퍼런스가 열렸다. 3개월 전부터 계획을 하였고 우리 센터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었다. 남한에서는 젊은 탈북자 두 명이 스탠포드까지 방문해 주었다. 독일에서 난민 상태가 되기까지 6년간 도주 생활을 한 전 북한 군인인 백요셉 씨와, 남한에 당도하기 전에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와 함께 인신매매로 3년간 중국에서 살다 탈주한 박은아 씨를 초청하였다. 두 명 다 자신의 이야기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었다.

단순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탈북자를 인정하고 권익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컨퍼런스를 준비하였다. 기숙교육 기관인 스탠포드 KSA는 첫 째 날과 셋째 날에 탈북자를 캠퍼스 내 각기 다른 기숙사로 안내하였고 각 기숙사에서 15명 정도의 학생과 대화를 나눴다. 통역자의 도움으로 스탠포드 학생과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하며 북한과 중국에서 보낸 생활을 말 할 수 있었다. 탈북자는 학생은 스탠포드에서의 경험은 어떠했고 미국 문화는 어떠한지 질문을 받았다. 스탠포드 학생이 탈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집단 행사도 열었다. 학생 조직위는 이 소규모 집단 행사로 탈북자가 굽히지 않는 의지를 지닌 생존자라는 점을 통해 이들이 인격체이자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개 행사도 열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학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스탠포드 KSA 학생과 탈북자 초청객은 구글 사를 방문하여 북한이 직면한 곤경과 어려움이나 기술과 인터넷이 북한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이런 기업의 협력과 인식 향상 행사는 소중한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올해 말에 열리는 자사의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에 탈북자를 초청하였다. 재미교포 학생도 유엔자문위원 북캘리포니아 지부와 함께 다른 행사에 참여한다.

재미교포 학생이 참여하는 다른 활동으로 기금모금 활동이 있다. 탈북자를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학생 활동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방식이 아니므로 대다수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NGO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례로 프린스턴의 재미교포 활동가는 북한인권 학생 단체를 조직하여 중국의 탈북자를 직접 돕는 한국의 NGO를 지원하는 기금마련 행사를 주관한다. 기금마련 행사는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판매부터 단식투쟁처럼 좀 더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방식까지 다양하다. 최근 하버드에서는 재미교포 학생 활동가가 중국이 탈북자 31명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31시간 동안 단식 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들의 31시간 단식투쟁 중 기금 마련해 줄 후원자를 물색하는 활동을 하였다.

북한인권에 대해 특별한 열정을 지닌 재미교포가 한국의 북한인권 NGO에 인턴십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대다수의 인턴이 하버드, 프린스턴, 일리노이대학교 어버너-شم페인캠퍼스, 북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온 재미교포 대학생이다. 이런 학생은 북한인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 지원이나 인식 향상 행사, 남한 사회에 탈북자 융합 지원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력을 보내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재미교포 학생 활동은 여전히 소규모에 다소 고립된 면도 있고 한계도 있다. 그러나 재미교포 학생 사이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점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정권 안팎에서 억압받고 투쟁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고난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참고자료

북한인권침해 주요 사례

- 정치범수용소
- 교화소
- 기타 구금시설
- 국군포로 · 납북자 · 이산가족

북한인권침해 주요 사례

정치범수용소

▣ 요덕 정치범수용소

1. 신고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정광일

다. 피해자

- 신고인 등 187명

라. 가해자

- 가안전보위부장 ○○○, 제15호 관리소장(요덕 정치범수용소장) 및 담당 보위원 ○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어 인권 침해를 당함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0. 4. 6.부터 2003. 4. 12. 석방되기 까지 요덕 정치범수용소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실종 및 강제이주

1999. 7. 22. 간첩혐의로 연행되어 회령시 보위부 지하 감방에서 7개월간 구금되어 혹독한 고문 끝에 2000. 3. 어쩔 수 없이 허위로 간첩혐의를 시인. 이후 재판 없이 2000. 4. 6. 요덕 수용소 독신자 혁명화구역 서림천 지역으로 보내짐.

(2) 강제이주(수용소의 연혁과 구성원 및 일상생활)

(가) 요덕정치범수용소의 혁명화 구역은 원래 요덕군 대숙리 백산 구역에 있었으나, 강철환, 안혁 등의 폭로로 1999. 10.경 위 혁명화 구역을 폐쇄하고 일부 정치범들은 완전통제구역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석방하였음. 이어서 1999. 11.경 새로이 인근 서림천 지역에 혁명화 구역을 신설하여 정치범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음. 수감자들은 주로 북한에서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체제를 비판한 독일이나 중국 등지 유학생, 말 반동 등 정치범이 있었음. 신고인은 2000. 4. 6.부터 2000. 4. 말경까지는 신입반, 2000. 5.경부터 2000. 9.경까지는 건설소대, 2000. 10.경부터 2002. 6.경까지는 2작업반(농산반) 1분조 조장으로, 2002. 7.경부터 2002. 9.경까지는 1작업반(농산반) 1반조 조원으로, 2002. 10.경부터 2003. 4.경 석방될 때까지는 1작업반 4분조 조장으로 복무하였음. 각 분조는 25-40명으로 구성되고, 각 분조는 다시 3인의 소조로

구성되어 역시 조장 관리 하에 모든 행동을 같이 해야 하고(화장실도 함께 가야 함), 1사람이라도 눈에 띄지 않은 채 15분이 경과하면 보고해야 할 정도로 감시체제를 갖추었음(화장실도 같이 갈 정도로 감시체제를 갖추었음).

(나) 당시 신고인이 요덕수용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목격하였던 정치범 피해자들의 명세는 별지 수용자 명단 기재와 같이 187명에 이룸.

한편 수용소 일과는 다음과 같다.

| | |
|-----------------------|-------|
| 04:00(하절기)/05:00(동절기) | 기상 |
| 05:30-07:00 | 조기 작업 |
| 07:00-07:30 | 아침 식사 |
| 08:00-12:00 | 오전 작업 |
| 12:00-13:00 | 점심 식사 |
| 13:00-20:00 | 오후 작업 |
| 20:00-21:00 | 저녁 식사 |
| 21:00-22:00 | 정치 학습 |
| 23:00 | 취침 |

(3) 박해 및 노예화, 비인도적 행위(식사 등 생활환경과 강제노동)

(가) 아침 식사는 옥수수에 두부콩을 넣은 밥 한 그릇에 시래기국 한 그릇뿐이며, 정치학습 시간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공부시키는데 학습과제를 외우지 못하면 외출 때까지 잠을 못 자게 함.

(나) 하루 작업량은 김매기 하루 정량이 350평이며 풀베기는 800kg으로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양으로 수감자 대부분은 허약자이기 때문에 하루 과제를 수행하는 수감자는 별로 없음. 하루 작업량을 수행 못하면 식사량도 줄어, 예를 들어 하루 과제를 50%밖에 수행 못 하면 식사 배급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 600g의 식량을 배급받는 수감자는 거의 없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어나감.

(다) 겨울에 통나무를 베고 잘라 쇠줄로 묶어 끌어 나르는 일이 제일 힘든 작업으로 직경

30cm, 길이 4m 이상인 통나무를 하루에 4번씩 약 4km 거리를 끄는 것이 하루 작업량으로 산길이다 보니 사고도 많이 남. 나무를 끌다가 부상당한 수감자들은 하루 작업량을 수행 못해 식사 배급량이 줄어 별지 피해자 명단과 같이 송○○, 차○○, 김○○ 등 다수가 영양실조로 사망.

- (라) 4월 옥수수 농사철이 되면 수감자들이 종자를 훔쳐 먹지 못하게 종자에 인분을 버무려 파종을 하는데 박○○과 같이 굶주린 수감자들이 종자를 훔쳐 물에 씻어먹고 대장염에 걸려 죽기도 함. 인분을 옥수수 포기에 주는 작업을 하면서는 수감자들이 먹는 밥그릇에 인분을 퍼가지고 뿌리게 하며 수감자들은 인분 범벅이 됨.

(4) 비인도적 행위

- (가) 수용소 보위부원들은 수감자들이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수감자들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자들도 있음. 겨울에 수감자들에게 나무를 쇠줄로 묶어 4km 거리를 끌고 내려오게 하면서 선착장에 옥수수떡을 상으로 놓고 경쟁을 붙여 수감자들끼리 밀치닥 거리다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죽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보위부원들은 이를 보며 재미있다고 구경거리로 삼음. 또한 마음에 안 드는 수감자를 힘든 작업장으로 보내 하루 작업량을 못 채우게 하여 식사 배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굶겨 죽임. 철저한 약육강식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 밥을 빼앗아 먹는 곳”이 바로 요덕수용소임. 실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있었는데 밥을 빼앗긴 아들 이름은 김○○였음.
- (나) 죽은 수감자 시신은 널빤지로 대충 관을 만들어 팻말도 없이 묻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게 됨.

(5) 살해

2001. 8. 28. 최○○(47세)가 풀베기를 하다 너무 배가 고파 산열매를 따 먹으려고 조를 이탈한 것을 도주로 몰아 공개총살을 했다. 2003. 3. 5.에는 김○○(37세)이 도망치다 잡혀 역시 공개총살을 당했음. 김○○은 개에 물려와서 이미 몸이 너털너털 할 정도로 반죽음상태였다. 10m 밖에서 총살하는 것을 봤는데, 이미 너무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총을 맞아도 움직이지도 않고 두개골만 쪼개졌고 끄적했음.

다. 석방 및 한국행

2003. 4. 12일 요덕수용소에서 석방됨. 2003. 4. 30. 탈북하여 2004. 4. 22.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에 온 이후로도 요덕수용소에 잡혀가는 악몽을 자꾸만 꾸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임.

3. 증거자료 등

- 신고인 진술
- 함께 수용소 생활을 한 후 탈북하여 입국한 김○○, 이○○의 진술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4조(이동권), 제26조(평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7조(노동권), 제10조(가족권), 제13조(교육권), 제15조(문화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a) 살해, (c) 노예화, (d) 강제 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h) 박해, (i) 강제실종,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36조(가족권)

▣ 북창 정치범수용소

1. 신고 개요

가. 접수일자

- 2012. 3. 6.

나. 신고인

- ○ ○ ○

다. 피해자

- 신고인
- 어머니 ○ ○ ○

라. 가해자

- 제18호 관리소(북창 관리소) 소장 ○ ○ ○, 담당 지도원 ○ ○ ○

마. 신고요지

- 적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여 기본권 박탈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1977. ○ ○ ○ 입소하여 1984. ○ ○ ○ 석방될 때까지 제18호 북창 관리소(탄광)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제이주 및 강제실종

- (가) 신고인 가족은 평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직장 상관(부국장)에게 뇌물을 받치지 않았다고 미움을 사서 학습강연에 5회 불참한 것을 트집잡아 자본주의 황색 바람에 물이 들어 평양에 살 자격이 없다고 부모와 5남매가 함께 제18호 관리소로 추방됨. 당시 신고인은 고등중학교 2학년(12세)이었음.
- (나) 18호 관리소는 사회안전부 7국(건설국) 소속으로서 평안남도 북창군 석산리에 위치하고, 14호 개천 관리소와 경계하고 있었음. 신고인이 수용되어 있을 당시 20만을 수용하였음(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 모임 때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항상 “특장탄광·북창관리소·20만 노동계급이 올리는 충성의 맹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외쳤음). 수용자들은 1946. 신의주 학생 폭동사건 관련자들, 개성 등 6.25 이전 남한 지역에 남아 있던 월남자 가족들, 1979년에 황해남도 연안과 배천에서 들어온 월남자 가족 1,000여 세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18호 주위에 철조망은 보지 못했으나 가시가 깔려 있는 3m 폭의 도랑이 경계선 주위에 파져 있었고, 순찰이 계속 총을 들고 들고 있었음. 매일 07:30까지 직장(탄광)에 출근하면 인원 점검을 하고 빠진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확인을 가서 행방을 모르면 즉시 비상을 걸어 온 수용소가 추적을 하고, 잡히면 공개총살을 당했음. 남자 30세 여자 2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였음.
- (다) 수용자는 평생 수용대상인 이주민(90% 이상)과 혁명화 기간이 지나면 출소할 수 있는 대내민 및 관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주민과 대내민은 고생하는 것은 비슷하였지만 신분차별이 있어서(대내민은 당원인 경우도 있었음) 거주지역은 대내민은 평지에 있는 반면 이주민은 열악한 산등성이에 있었고, 결혼도 상호간에는 하지 않았음. 이주민 중에는 평양 적십자병원 기술부원장(기술부원장이 항일투사를 수술하다가 수술결과가 나빠서 그 항일투사가 죽었다는 이유로 반동으로 몰려 들어왔음)의 딸들 중 평양 음악무용대학 무용수 출신 미인이 있었는데(수용자 중에는 평양의 유명 배우 출신들도 많았음), 이 여자를 좋아한 한 대내민 남자는 이 무용수 출신과 결혼하기 위해 당원증을 포기하고 이주민 마을로 옮겨간 경우를 보았음. 관리성원은 관리소를 운영하는 소수의 관리일꾼으로서 안전원, 보위원, 학교 선생, 관리소장 이

하 행정요원 및 그 가족들임.

(2) 박해

(가) 굶주림

배급은 15일에 한번씩 이루어졌는데, 한번의 배급량은 1주일분도 되지 않았음. 즉 1일 식사량은 쌀(10%의 입쌀과 90%의 강냉이 등 잡곡) 300g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일체 부식은 없으며, 소금은 1년에 한번 4kg, 김일성 생일에 가끔씩 주는 간장 1리터 정도가 전부였음. 나머지는 수용자들이 알아서 해먹어야 하므로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음. 보이는 대로 주워 먹었으나 풀 뜯어 먹을 기력도 없을 정도였음.

(나) 주거와 의복

집은 싸리나무가지로 천정을 만들고 벽은 싸리나무가지에 진흙을 대충 발라서 만들었으며, 바닥은 석회와 진흙을 섞어 만든 위에 시멘트 포장지로 덮어 놓아 매우 취약했음. 집은 하모니카처럼 1채의 집에 8가구가 살았고, 신고인 가족은 부모와 5남매가 방 1개에서 아주 좁게 살았음. 난방은 탄광에서 각자가 석탄을 짚어지고 와서 때었음. 의복은 일체 지급이 없어서 처음 들어 올 때 입고 온 입을 계속 입고 수선해서 있었음.

(3) 강제노동·강간 등 노예화

(가) 신고인은 1977. 11. 관리소 내 고등중학교에 2학년으로 들어가서 1981. 7. 졸업하였으나, 학교에 가도 혁명역사,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만 매일 암송했고(못 외우면 집에 안 보냄), 그 외에는 주로 작업에 동원되었고, 군대처럼 모이고 헤치는 훈련은 철저하게 시켰음. 작업할 일이 없으면 학교 주위에 쌓았던 돌담을 헐어서 다시 건축시키는 방법으로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고 괴롭혔음. 줄을 제대로 안 선다든지 지시를 어겼다고 판단되면 마구 구타하거나 다른 학생들(1학년 학생 40여명)로 하여금 대상 학생을 차례로 때리게 하거나, 운동장을 100바퀴 돌도록 하는 등의 처벌을 가하였음.

교사는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성원(노동과장, 운수과장, 노동지도원 등)의 자녀들이 담당하여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음.

- (나) 신고인은 16세인 1981. 8.경부터 '갈골갱'(18호 관리소에는 이와 같은 갱이 20-30개 있었음)에서 채탄공으로 일하다가 1982. 10.경 중기계 직장으로 옮겼고, 다시 자동차수리공으로 옮겨서 3개월 일하고, 돌격대로 뽑혀서 시멘트 공장에서 1984. 1.까지 일하다가 석방되었음. 채탄공의 업무가 가장 격무였음. 07:30까지 탄광에 출근(도착)해서 08:00 내지 08:30까지 작업지시를 받고, 갱속에 들어가서 4시간 걸려 막장 현장에 12:00경에 도착. 도착 즉시 점심 도시락을 먹고, 30분 있다가 채탄 작업을 시작. 오후 4시까지 일하고, 4시간 걸려서 갱 밖으로 나오는데 보통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니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8시쯤부터 산에서 원목을 잘라서 산 밑으로 나르는 등의 일을 하면 새벽 1-2시경에야 끝나게 됨. 아예 집에 못가고 작업 현장에서 쪽잠을 자고 다시 갱에 들어가서 채탄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음. 결국 하루 작업시간은 명색만 8시간제이고, 실제로는 12시간 내지 18시간 정도가 되었음. 안전사고는 빈발하여 1주일에 평균 1건 내지 2건은 사망사고가 났고, 다치는 사람은 부지기수였음.
- (다) 관리성원은 항상 선생님으로 불리우며 최고대우를 받고 대내민이나 이주민을 자신들의 몸종이나 노예처럼 부려먹었음. 관리소의 수용자들, 특히 이주민들의 90%는 정치범의 가족들인 과부나 딸들이었는데, 관리성원의 일부는 이러한 이주민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거나 강간을 일삼았음.
- (라) 관리소 안에는 다시 교양소가 있어서 관리소 규율이나 관리성원의 지시를 어긴 경우에는 머리 깎고 1년 내지 2년 기간 수감되는데,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감 도중 또는 수감기간이 끝난 후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음.

(4) 살해

- (가) 중국에서 살았던 신고인의 아버지는 18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과 함께 지내던 1981. 5.경 작업장 동료들과 이야기 도중 '조선에 괜히 나왔다. 중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이 보고 싶다'고 푸념을 한 것이 누군가에 의해 밀고되어 그 다음날 출근도중 보위부원에 의해 족쇄로 채우고 차에 태워 사라진 후 소식이 없음.
- (나) '심산학교' 옆의 대동강 강변에서 거의 3개월에 한번 공개처형이 실시됨. 많을 때는

1번에 5명 보통은 2명씩 공개처형을 당했음. 도주하거나 반공화국 행위를 한 죄가 가장 많았음. 총살한 후에는 시체를 거적대기에 말아서 차에 싣고 가서 매장해 버림.

다. 1984.경 석방, 1998.경 탈북하여 2008. 한국에 입국하였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같은 관리소 출신 탈북자 ○○○의 진술

교화소

■ 전거리 교화소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5. 27.

나. 신고인

- 김광일(남)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보안서 예심과 구류장 예심원 ○○○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대의원(인민참심원) ○○○, ○○○, 중앙검찰소 함경북도 회령시 검찰소 검사 ○○○, 중앙재판소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재판소 변호사 ○○○
-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 교화국 제12교화소(일명 전거리 교화소) 소장(상좌)○○○, 정치부장 ○○○, 교화과장 ○○○, 1과 내지 5과 과장 ○○○과 비서들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억울하게 비법밀수죄로 구속되어 구류장에서 고문을 당했고, 6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교화소에서 굶주리며 강제노역을 당하는 등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음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4. 7. 8.부터 2004. 9. 21.까지 구류장
- 2004. 9. 11. 재판소
- 2004. 9. 22.부터 2007. 2. 6.까지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구류장에서의 인권침해

(가) 고문

신고인은 북한에서 수집한 구리 등을 중국에 팔아 돈을 벌어 오는 일을 하다가 2004. 7. 8. '군 허락 없이 밀수출했다'는 비법밀수죄로 영장도 없이 회령시 인민보안서 구류장에 끌려갔음.

구류장에서 예심원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자백하지 않는다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철창에 수감으로 졸도할 때까지 매달아 놓거나, 두 손을 뒤로 어깨높이 이상으로 높이 라지에타에 묶어놓고(이때 가슴이 비둘기처럼 나오게 되어 일명 '비둘기 고문'이라 함), 두발도 꿰어 앉혀서 꼼짝 못하게 묶어 놓은 다음은 의자, 몽둥이, 무기청소기, 현대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것을 사용해 마구 구타하였음. 결국 피를 토하고 정신을 잃게 됨. 그밖에도 구류장에서는 '비행기 고문'(한 발로 서고 한 발은 뒤로 들고, 두 손은 뒤로 비행기 날개처럼 들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고문), '오토바이 고문'(오토바이를 탄 자세, 즉 두 손을 앞으로 들고 무릎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게 하고 장시간 있어야 하는 고문), '뽀뽀고문'(타이어 튜부에 공기를 넣는 수동식 펌프작동처럼 뒷집지고 앉았다 섰다를 수백번 반복시키는 고문)을 당했음.

(나) 비인도적 행위

매끼마다 주는 음식은, 중국에서 짐승 사료로 수입한 염량가루를 100g도 안되게(규정량은 150g) 지급하여 허약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음. 손가락은 꼭지를 끊어 없앤 것을 주었음. 꼭지를 끊은 이유는 그 꼭지를 목구멍으로 넘겨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함. 신고인이 2달간 있는 동안 실제 2명이 허약으로 죽는 것을 목격하였음.

- (대) 구류장 일과는 아침 5시 기상하여 조식 7시부터 30분간, 점심 12시부터 30분간, 저녁 7시부터 30분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교정자세로 있어야 함. 교정자세란 죄수는 항상 감방에서 머리를 숙이고 꿇어앉아서 두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부동의 자세로 있어야 하고, 위반시에는 가차 없이 매질을 당함. 감방에 드나드는 문은 일명 ‘개구멍’이라고 하여 45cm×45cm 크기밖에 안되는 출입구로 머리를 숙이고 기어서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음. 나온 후에도 예심원들이 허락하기 전에는 이마를 땅에 대고 벽쪽으로 향해서 꿇어 엎드려 있어야 함.
- (래) 신고인은 위와 같은 고문 등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허리와 오른 팔 뒷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음.

(2) 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2004. 9. 11. 재판소에서 판사와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신고인에게 과중한 형인 ‘노동교화형’ 6년을 선고했고,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지방 대의원 2명으로 이루어진 인민참심원들은 그대로 동조하였고, 변호사는 변론도 없이 오히려 신고인이 응당 처벌받아야 한다고 거꾸로 말하였음. 선고가 나자마자 변호사가 신고인 처 명의의 이혼신청서에 강압적으로 무인을 찍게 하였고, 그 순간 신고인과 처는 이혼이 성립되었음. 재판에 대한 상소기일을 10일 주었지만 상소를 포기했음. 북한에서는 상소를 하면 되레 법에 맞섰다고 보복적으로 10년 형이 15년, 사형 등으로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임.

(3)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제12교화소는 해발 1500m가 넘는 북방의 산간지대에 있어 겨울이 다른 지대보다 훨씬 빠르게 오며 맑은 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모봉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나진 앞바다가 멀리 바라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있음.

신고인은 2004. 9. 22. “도주는 자멸이 길이다. 절대로 도주행위를 하지말라!”는 위협적인 글이 씌여 있는 현수관 밑을 지나 5-6명이 커다란 손달구지에 발들이 비죽 비죽 엇갈려 나와 있는 시체 몇 구를 실어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며 제12교화소에 입소하여 ‘라 40’이라는 수감번호를 부여받았음.

(가) 굶주림 · 비인도적 행위

- ① 교화소의 급식은 안남미 10%, 옥수수쌀 60%, 콩 30%를 섞어 서랍에 담아 증기 가마니에 넣어 쪄낸 것을 김을 뽑고 삼으로 부풀려서 ‘밥단지’ 라는 기구로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매겨 찍어냄. 밥 덩이를 식기나 손가락도 없이 손바닥에 받아 먹음. 급수가 높을수록 삶은 콩 세운 것만큼의 높이가 올라가는데, 광산착암수와 별목일을 하는 수감자들은 1급과 2급 밥을 먹게 되어 있으나 이 양이 제대로 지켜진 때는 없음. 보통은 지름이 6cm, 높이가 7cm로 찍어낸 3급(작은 컵 정도 크기)을 먹고, 환자로 휴역하는 수용자나 신입반은 4급, 범칙을 하여 독방에 들어간 자는 5급을 먹음. 교화소 규정상 3급은 180g을 먹어야 하나, 실제로는 교화소에서 중간에 착복하여 3급이 130g 밖에 안 되어 수용자들은 항시적인 굶주림에 시달렸음(4급이나 5급은 말할 것도 없음). 더욱이 위와 같은 교화소 급식(안남미, 옥수수, 콩)조차도 교화소에서는 1년 중 2개월은 장마당에 빼돌려 팔아먹고 임의로 교화소에서 부업으로 경작한 감자를 똑 같은 ‘밥단지’로 찍어 하루 3끼 급식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굶주린 수감자들은 더욱 허약에 쓰러지게 되었음. 복역 기간 중 제대로 된 급식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교화국에서 검열 나왔을 적에 한두 끼였음.
- ② 교화소의 급식대로는 누구나 허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 뿌리, 나뭇잎 등 먹어서 죽지 않는 것은 모두 먹었음. 쥐, 뱀은 아주 드문 고급 음식이었음. 분기에 한 번 면회가 허용되고(뇌물을 쓰면 더 자주 할 수 있음) 면회자들이 가져오는 옥수수가루는 큰 도움이 되나, 생활난으로 한 감방의 60여명의 수감자들 중 면회자는 8-12명 정도에 불과하였음. 그나마 면회자들이 가져오는 옥수수가루는 많아야 15kg 정도인데 그 중 10kg은 교화소에 제공해야 했음. 또 교화소에서는 수감자와 가족들에게 면회시 의약품, 전구, 책, 등 교화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와야 면회를 시키기 때문에 면회도 쉽지 않았음.

(나) 전염병 · 비인도적으로 열악한 환경

전거리 교화소에는 식량난으로 비법월경자 등 생계형 범죄자가 늘어나서 신고인이 들어가서 퇴소할 때까지 수용능력보다 훨씬 많은 2,400명이나 수용되어 있었음. 전체는 5개과로 나뉘고 각 과마다 4-500명이 수용되어 있었음. 그에 따라 20평이 채 안되는 교화소 감방의 정

원은 15명인데도 60-70명이나 과밀하게 수용되어 잠을 잘 때는 4줄로 옆으로 모로 누어서 '툭날 잠'을 자야 했음. 또 감방 안에는 변기가 개방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놓여 있어 썩은 악취가 항상 배어 있었음. 수감자들이 거의 목욕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여(죄수용 수용자 옷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에서 입던 옷을 기워서 입는데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흰 옷에는 검은 천을 검은 옷에는 흰 천으로 얼룩덜룩하게 하게 함) 몸에서 악취가 나고, 이, 빈대, 회충이 들끓어 심지어 밥을 먹을 때 보리알처럼 큰 이 등이 식기에 떨어지기도 하였음.

교화소 위생상태가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감자 중 누구라도 전염병(특히 겨울마다 찾아오는 파라티프스가 무서웠음)에 걸리면 바로 전체 교화소에 확산되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노역 중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음. 신고인은 2005. 1. 16. 병방에 들어가서 11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적이 있는데, 함께 입원했던 24명 중 8명이 죽어나갔음. 병방에는 아무런 의료시설도 없었음. 신고인이 속해 있던 2과에서 신고인이 목격한 것이지만 다른과는 인원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다) 강제노역 · 노예화

12교화소는 원래 동광을 채취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는데, 동맥은 거의 바닥이 나서 수감자들은 나무 채벌이나 농사짓는 일에도 동원되었음. 수감자를 관리하는 초병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 대부분인데 수감자들을 노예같이 부리면서 자신들의 위엄성을 과시한다는 명목으로 수감자들을 온갖 욕을 하면서 사정없이 매질하고 구타하였음. 수감자들이 산중턱에서 벌목 작업을 하는데 안전보다는 작업성과를 다그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음. 2005. 10. 10.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채 양성되지 않은 건설용 큰 벽돌을 2층 높이만큼 쌓았던 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14명이 한꺼번에 즉사한 적도 있음. 그러나 유족들에게 사망통지서 1통을 보낸 것 외에는 누구도 책임 진 사람이 없음. 동 광산의 수직갱이 무너져 6명씩 죽어나가는 참사도 빈번했음. 2006. 12.경에도 그러한 붕락사고가 있었음. 갱도 안에는 안전등도 없는데다가 갱도 안에는 안전시설 없이 고압선이 마구 지나가게 설치되어 있어 감전사도 자주 발생했음. 산에서 원목을 끌어내리다가 밭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도끼질 하다가 밭이 찍혀 잘리는 일 등은 너무 흔한 사고였음.

(라) 시체 관리 · 비인도적 행위

전염병, 강제노역, 영양실조 등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어 시체가 생기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 쥐들이 시체의 눈, 코, 귀, 생식기 등을 파먹어 알아볼 수 없게 됨. 그러한 시신들을 교화소 안에 있는 “불망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는 시체를 태우는 쇠로 만든 큰 로 속에 집어넣고 장작불로 태우는데 제대로 태우지 않아서 채 타지 않은 사람 뼈가 로 속에 수북히 쌓여 있음. 시체를 태운 잿가루를 비료처럼 밭에 재처리하여 뿌려진 곳에서는 호박, 무, 배추 등 야채가 잘 자랐음.

(마) 교화소의 수감자 분포 등

신고인은 2004. 9. 입소하여 2007. 2. 대사로 출소했고, 그 후 탈북하여 2009. 한국에 입국하였음. 신고인의 수감기간동안 본 수감자들의 대부분은 생계형 범죄자들이었음. 대략 65%가 비법월경자들이고, 생계형 절도범 등이 20%, 강도·강간·살인(강인범이라고 함) 등 강력범이 10%, 사기나 횡령 등이 5% 정도였음. 그 당시는 모두 죄수가 남자들이었는데, 2007. 6.경부터는 여자 비법월경자들 수용시설이 없어 전거리 교화소에 여자를 수용하는 과가 생겨서 2010. 2.경에는 800명에 이르렀고, 전거리 교화소 총 수용자는 3,200명에 이르렀다고 함.

복역자들은 ‘단련대’는 살이 내리지만 ‘교화소’는 뼈가 내린다고 함. ‘단련대는 사회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고 교양이라 해도 사회에서 격리된 것이 아니지만 교화소는 항시적인 굶주림과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 속에 수용자들은 육체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음.

3. 증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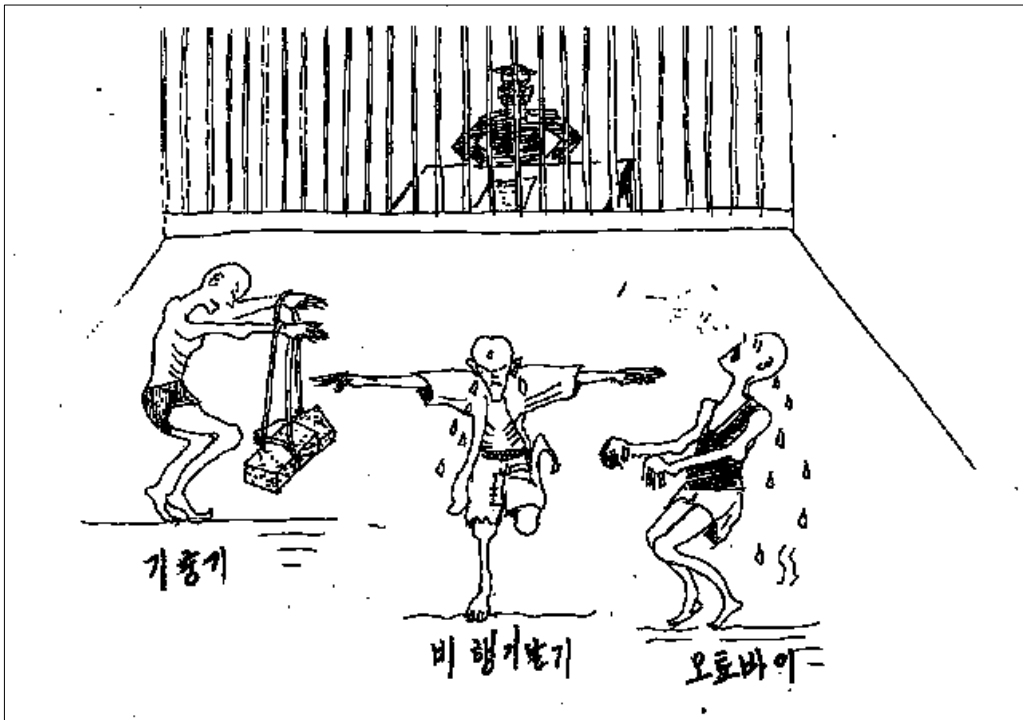
- 남한에 들어 온 전거리 교화소 출신 탈북자들○○○의 진술
- 신고인이 제출한 그림들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생명권), 제7조(고문금지), 제8조(노예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0조(존엄성 존중), 제14조(재판받을 권리), 제

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반인도 범죄) 제1항 (c) 노예화,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k) 비인도적 행위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27조(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증산 교화소

1. 신고개요

가. 신고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판사 ○○○, 보안원 ○○○, 검사 ○○○, 변호사 ○○○(신고인을 담당한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 당비서 ○○○, 청년동맹비서 ○○○
- 증산교화소 보안원 ○○○(당시 59살, 제11호 증산 교화소에서만 30년 이상 근무), ○○○ 보안원(당시 28세, 미혼)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된 후 2005년에서 2006년까지 증산교화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5. 함경북도 인민재판소
- 2005. ~ 2006. 증산 교화소

나. 인권침해 내용

(1) 인민재판소에서의 인권침해 · 재판받을 권리 침해

신고인은 예심소와 보안소 등에서 총 9개월간 수감되어 있다가 2005년 공개재판(인민 재판)에 회부됨. 공개재판은 신고인이 다니던 회사(군수공장)에서 열렸음. 회사 강당에서 열린 공개재판에 거의 사람이 가득 찼던 것으로 미루어 약 1천명 정도 방청객이 모였음. 이들은 모두 공장 직원으로 인근 주민 등 외부사람은 없었음. 재판은 6명의 판사의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6명의 재판관은 인민재판원 1명, 보안원 1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당비서 1명, 청년동맹비서 1명으로 구성되었고, 재판 시간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음.

신고인에게는 형식적으로 변호사가 있어 재판 3일 전에 신고인을 만나러 와서는 “예심 과정에서 때린 사람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담긴 질문지에 모두 “아니오”로 표기하도록 시키고, 신고인의 사진을 찍고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갔으나, 정작 재판 당일에는 신고인의 변호사 모습을 볼 수 없었음.

재판 과정에서 신고인에게는 딱 한번, 남한여권을 소지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여권인 것을 알고도 고의로 남한으로 탈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질문을 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 신고인은 누가 만들어주어 소지하였을 뿐, “남조선”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른다고 변명을 하여 총살은 면하고 노동교화형 13년 형을 선고 받음.

아마도 사전에 누가 시켜서 각본을 짰 것이겠지만, 총살이 아닌 13년 형이 선고되자 뒤에서 누군가가 일어나 “처단하라, 처단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선동을 함.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서류에 신고인의 지장을 찍게 하고 이를 교화소 계호에게 넘겨 신고인의 신병을 인수케 함.

(2) 증산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가) 교화소의 규모와 일상

- ① 공개재판에서 13년을 선고받고 2005.경 제11호 교화소(증산 교화소)로 이송됨. 교화소에 들어가면 흰 벽에 검은 글씨로 “도주는 자멸이다”라고 써 있고, 물지는 않도록 훈련시킨 것 같지만 커다란 개(흰색) 7~8마리가 있었음. 교화소는 흙집(진흙으로 지어짐)인데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많았음. 도착하자마자 여자 계호 두 명이 와서 여자 죄수들을 다 벗으라고 하고 손을 목 뒤에 각지끼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게 하며 몸수색을 함.

증산 교화소에는 1과~12과까지 있었고, 남자는 1과, 4~5과, 7~12과, 여자는 3과, 6과로 구성됨. 신고인은 3과에 소속되어 들어간지 약 4달 만에 3과 총반장을 맡게 되어 명수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3과에 인원수가 최고 많을 때가 683명, 적을 때는 480명 정도였음. 1과~12과를 다 합치면 교화소의 총 인원은 만 명가량임.

증산 교화소는 학교, 보안원 가족 등이 사는 큰 마을같은 형태로 개천 교화소와 합병한 것으로 규모가 상당했음. 진정한이 속한 3과는 다시 1반~10반까지 나누어져 각 반 에는 반장이 있음. 1개 반이 1방을 쓰는데 1방에 50~60명 정도 들어감. 반에 속하지 않고 식당, 창고 등에 직속된 재소자도 소수 있음.

- ② 증산 교화소에서 하는 일은 거의가 벼농사였음. 모내기, 잡초뽑기, 추수, 거름주기 등. 1개 반이 가꾸는 벼밭(논)이 20정보. 50명 여자가 소달구지로 힘들게 20정보를 가꾸는 것임. 바다가 인접해 있어 배타는 일을 하는 재소자도 가끔 있었음. 보통 뇌물 수뢰 등 경제범은 약한 강도의 노동을 하기도 함.

교화소 기상시간은 오전 5시, 농사일을 마치고 밤 9시에 들어와 10시에 취침함.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는 자는 것 외에 따로 시키는 일은 없었음. 점심의 경우는 반에서 한 두명이 교화소로 들어가 밥을 타오면 밖에서 농사일 하다가 이동식사를 함.

(나) 강간

교화소 안에서 특별히 악랄했던 계호는 ○○○(신고인이 출소 당시 약 59살로 지금 정년퇴직 하였을 것)이라는 자임. 증산 교화소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계호 들 중에

서는 그나마 모범이라고 할 만한데, 계급은 줄2+별2임.

교화소에서는 “막갈리”라 하여 여자들 4명씩 조를 짜 밤에 눈을 지키러 막을 쳐놓고 밖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위 ○○○이라는 자가 젊은 여자(○○출신)를 임신시켰고, 이 여자는 임신 6개월째에 병보로 나감. 보안소에서 이 사실을 듣고 검열을 나와 ○○○이 여기 저기 조사 받으러 불려 다녔으나 이 자의 형이 ○○○ 부소장이어서 건드릴 수 없었음. 교화소 안에서 계호들이 여자 수감자들을 겁탈하는 일은 수시로 일어남. 단, 피해 당사자들은 어차피 신고할 데도 없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그 계호가 신고인의 노동 분량을 줄여 주거나 반장을 시켜주거나 하는 등 편의를 봐 주었으므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음.

(다)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위 ○○○는 재소자들을 때릴 때 삽을 이용, 삽날 등으로 사람을 때림. ○○○ 뿐 아니라 모든 계호들이 재소자를 일상적으로 구타했는데 대부분은 손도 대기 더럽다며 군화 또는 천신발을 신은 발로 얼굴, 몸통 등을 가리지 않고 발로 찼음.

또한, ○○○(여자, 보안원, 당시 28세, 미혼, 줄1+별4)도 재소자들을 많이 구타를 함. 중국 갔다 온 재소자들의 좋은 옷 등을 다 빼앗아감. 이 자의 구타 방법은 주로 각자(각목)로 특히 어깨 부위를 때리는 것임. 기분이 안 좋으면 “야, 반장, 가져와”라고 하여 각자를 달라고 한 뒤 재소자들을 각자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음. 맞은 재소자들은 소화를 못시켜 먹은 것을 토하곤 하여 더 허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음. 또 머리채를 잡아 흠뻑에 부딪히게 하는 구타 방법도 사용하였음.

(라) 노예화

신고인은 총반장이 되어 소 직속이 된 후에는 구타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어짐. 반장에게는 보안계장 ○○○, 교양 과장 ○○○ 등 특정 인물에 대해 밀정 임무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음. 총반장은 저녁 9시면 각 반 반장들에게 인원보고를 받음(예: 막갈리 4명인데 오늘은 5명 나갔음 등). 계호들은 다 교화소 단지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함. 따라서 재소자들을 불려 개인 머슴처럼 교화소 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음. 또 계호들의 횡령이 빈번한데, 벼 생산하는 곳 담당은 벼를 횡령하고, 식당 담당은 콩을 횡령

하는 식임. 이럴 때 죄인들을 동원, 벼 가마 등을 지어다가 자기 집에 부리게 함. 내부에서 근무하는 여자 계호들은 횡령이 어려우니, 죄인들을 시켜 농사일 하고 들어올 때 주머니에 벼 이삭 등을 넣어오게 한 뒤 이를 빼앗아가는 방법을 사용함. 내부에서 근무하는 계호는 여자 3 남자 1이 있었음.

(마) 비인도적 행위

식사는 통강냉이 간 것과 콩(일명 단지밥)으로 되어있고 소금국이 같이 나옴. 국가에서 정한 분량이 있어 한 끼에 콩이 136알 이상(136~150알)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계호들이 중간에서 빼돌리는 것이 많아 실제로 밥을 풀어서 세어보면 40~50알 정도 들어 있었음. 가끔 검열이 나오는데, 이 때만 콩 개수가 제대로 나오고, 계호들이 재소자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늘 이렇게 나온다고 해라”고 명령하였음. 재소자들은 식량이 모자라 밖에 나가 농사일을 할 때, 벼 이삭을 몰래 주워 생으로 먹기도 하고, 모내기 중 개구리가 나오면 껍질을 벗겨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고, 뱀도 잡아서 주머니에 식량으로 넣고 다니고, 쥐 잡은 것을 가지고 재소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였음.

교화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고 보통 하루에 2~3명, 여름에는 하루 6,7명씩 죽어나감. 사망원인은 주로 허약(영양실조)으로 특히 중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잘 먹다가 갑자기 줄어든 식사량 등에 적응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았음.

교화소에서 면회는 들어와서 1달간의 면회 금지기간이 지나면, 매주 수요일 한 차례 가능함. 원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교화소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고 소문이 나니 2003. 8.경부터 면회를 가능케 함. 단 무기형을 받은 죄수들은 면회가 일절 허용되지 않음. 이들은 밖에 농사일도 못 나가고 안에 갇혀있음.

전거리교화소는 가족이 동반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증산교화소는 불가능함.

(바) 살해

신고인이 교화소에 들어가자마자, 밤 11시 넘어 재소자들을 다 모이라고 함. 모여보니, 19살 남자 재소자(성명불상)가 도주하다 21살 안전원에게 총에 머리를 맞아 죽었음. 사지는 멀쩡한데 시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다 날아감. 재소자들에게 도주하

면 이렇게 된다고 그 시체를 두루 보임.

또, 함께 수감되어 있던 20대 초반 아가씨(성명불상)가 병에 걸려 눈에 구더기가 슬고, 옷도 거의 헐벗은 채 누워서 헛소리로 “내 밥 달라, 내 밥 달라”고만 중얼거림. “단지밥”이 나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후 몇 시간 만에 죽었음.

사람이 죽으면 담요가 없어 시체를 담요에도 못 씌. 증산 교화소 단지에는 “꽃동산”이라고 불리는 민둥산이 있는데 여기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 묻는 곳임. 신고인이 직접 남자 재소자들과 함께 묻은 시체 중에 기억나는 것은 2005. 6.경 소달구지를 끌고 가 묻은 시체임. 죽은 사람의 이름은 ○○○(사망 당시 29살, ○○출신, 허약 3도로 죽었으나 병명은 심장마비로 기재, 교화소 안의 모든 죽음은 다 심장마비로 기재함. 부검 등을 통해 영양실조를 밝혀내거나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임)였는데 당시 이 시체에 부여된 번호는 3721번이었음. 뜻을 물어보니 그 해 1월 1일부터 죽은 숫자를 세어서 3721번째라고 함.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던 것은 증산 교화소가 서해 쪽이라 해안에 독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던 재소자들이 넘어온 파도에 휩쓸려 천명 가까운 숫자가 죽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함.

시체는 보통 우마차에 대충 실어 얇게 판 구덩이에 묻고 평평하게 함. 화장을 하지는 않고 묻는 곳도 폭을 좁게(30cm 정도) 파서 시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꼭꼭 눌러서 넣을 정도임. 꽃동산은 풀 환포기 없는 민둥산(붉은 진흙산)으로 시체를 얇게 파서 온 산에 묻었기 때문에 밭을 디디면 물경물경 함. 증산 교화소 있는 마을에 들어서면 꽃동산만 풀 없는 산이라 유독 눈에 들어옴.

한번 시체를 묻으러 다녀오고 나면 정신적 충격이 커서 다시는 가기 싫었으나, 신고인은 반장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생기면 시체를 묻고 소에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음. 신고인이 직접 묻으러 간 경우만 해도 7회 정도 됨. 묻으러 갈 때는 내부 선생이 남자 1명, 여자 3명이 같이 감. 지금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으로 꿈에 꽃동산을 보고 악몽을 꾸는 바람에 칼을 베고 자기도 함.

증산 교화소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시체고에 넣어 석회를 채우고 6~7구 모일 때까지 보관하며 어느 과 시체 바치는 날이 오면 시체를 소달구지에 신고 꽃동산에 가서 묻음. 사망자가 많을 때는 소달구지 4대에 시체 10구까지 한 번에 신고 간 적 있음. 다만 여름에는 시체를 모으지 않고 그때그때 묻음. 시체는 가마니로 말아 들 것에 두 구씩 실어 나름. 워낙 사람이 먹은 것이 없어 시체가 가볍기 때문에 두 구씩 들것에 얹어도 남자 둘이서 들고 갈 만 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3과에 함께 있었던 ○○○(○○출신, 당시 약 28세), ○○○(○○출신, 신고인보다 약 10살 연상, 6번째 북송이었음), ○○○(출신지 미상, 신고인보다 연상, 현재 대한민국 입국)

기타 구금시설

■ ○○군 보위부

1. 신고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23.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보위부 지도원 ○○○(군인, 사복차림의 남자), 과장 ○○○(당시 50대 중반, 남자, 늘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는 약 167cm, 퉁퉁하고 눈이 컸음)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여러 차례 탈북하여 중국에서 강제복송을 당해 ○○군보위부 등에서 구타와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3. ○○군 보위부, 2004. ○○군 보위부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비인도적 행위·부당한 신체수색

몸수색을 할 때 20대 중반의 남자 5~6명이 여자 직원이 입회하지도 않은 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복도 양 옆에 한줄로 세운 후, 여자들을 옷을 전부 벗게 하고 손을 머리위로 올리고 뽀뽀질(앉았다 일어나기)을 시키고 사타구니를 만지거나 하며 머리카락 속부터 발 끝까지 검사. 몸수색 중 값나가는 물건(가락지, 목걸이 등)은 가져감. 바로 맞은 편에 아이들 줄에서 자식들이 엄마가 몸 수색 당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음. 벗어놓은 옷은 아기 기저귀 끈까지 다 펼쳐서 수색함. 몸수색 중 나이 어린 처녀들이 부끄러워서 반항하면 각자로 몸통, 사지 등을 때림.

몸수색이 끝나면 옷을 주워입고 방으로 감. 방은 성냥개비 통처럼 8평짜리 한 방에 인원이 뽀뽀하여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자기 앉을 자리는 없는 것임. 임산부가 두 명 있었는데 면적이 크니 수감자들에게 눈총을 받았음. 방 안에 수세식 나무뚜껑 덮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임산부들은 여기로 밀려남. 수세식 변기이나 물은 새벽에 잠깐, 적은 양만 나옴. 이 때까지는 변이 꽉 차있어 냄새가 심하고 물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물이 내려가면 이 물을 식수로도 이용했음. 순간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수건을 적서 저장용 물통 대용으로 사용하여 나중에 수건을 짜서 아기를 먹이고 하였음.

(2)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가) ○○군보위부에 이송되니 보위부 직원 ○○○(군인, 사복차림의 남자)로부터 책상다리 같은 “각자(각목)”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머리는 때리지 않고 주로 무릎과 손가락을 때렸음. 특히 책상에 두 손을 올리게 하고 손가락을 각자로 때림. 무릎이 골절되어 무릎관절을 잘 쓰지 못하는 후유증이 남은 사람도 있다고 함. 이렇게 때려 죄수

가 죽어도 때린 자는 처벌을 받지 않음. 감옥 안 바닥은 마룻바닥인데 씻지 못해 이, 빈대가 극성이어서 밤에 불을 끄면 가려움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음.

(나) 보위부 생활때 임신부에게 낙태주사를 한 것을 목격했음. 중국에서 아이를 배어오면 낙태를 시키는데, ‘리바늘’이라는 용액 20cc를 임신부 배(태아 머리부분)에 주사하면 주사 후 다음날 아침에 진통이 시작됨. 5~6개월 넘으면 살아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신문지로 아이를 싸서 감방 바깥으로 건네고, 보위부 사람이 양동이에 담아 복도에 놔둠. 아이 엄마는 감방 안에서 밥주는 구멍으로 밖(아이가 담긴 양동이)만 쳐다보고 있는데 양동이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림. 얼마 후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보위부 직원이 양동이를 들고 나간 것임. 들고 나간 아이는 ○○보위부 앞마당 포도나무에 부었음. 거기를 파보면 아기 시체가 많이 나올 것임.

(다) 반장(성명불상)이 보위부직원보다 더 무서웠음. 같은 탈북자인데 규율을 잡는다고 남의 옷을 뺏거나 행패를 부리고 다른 재소자들을 구타함. 물론 반장도 여성이므로 주먹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는 것은 아니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함.

2004년 겨울에 복송되었을 때 ○○시 보위부의 ○○○과장(당시 50대 중반, 남자, 늘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는 약 167cm, 통통하고 눈이 컸음)이 당시 열이 나고 아픈 아기를 데리고 있던 신고인을 오전에 조사실로 불렀음. 과장과 함께 보위부 직원 남자 2명(젊은 총각이었음)이 후에 조사실에 들어왔음. 과장은 신고인의 옷을 다 벗기고 무릎 꿇리고 뒷짐을 지게하고 아기는 뒤에 앉히고 조사를 받게 함. 책상 바로 옆은 난로가 있었고, 그 위에 물이 끓는 주전자가 있었음. 과장이 “너 좀 맞아볼래?”라고 하여 신고인이 “잘못했습니다” 하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 했는데) 왜 말이 길어지냐?”고 하여 신고인이 “이제 죽어도 (중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럼 죽어봐라. 넌 죽어야 안간다”하면서 난로 속에 꽂혀있던 갈고리(불소씨개)를 뽑아 신고인의 오른쪽 가슴 부근을 찌름(신고인의 오른쪽 가슴에 약 10cm 길이, 폭 1~2cm 가량의 화상흉터가 남아있음). 신고인이 아파서 바닥을 구르자 “아직 죽을힘이 있다”고 함. 뒤에서 두 돌 지난 신고인의 아이가 이를 보고 마구 울자 낚은 걸레로 아이 입을 틀어막음. 조사 과장이 위에 언급한 남자 두명을 들어오라고 불렀음. 이 중 한 명이 주전자의 물을 컵에 따라 책상에 놓으니 과장이 컵을 치우고는 주전자 끓는 물을 뚜껑 덮인 채로 신고인의 뒷목에 쏟아 부음. 물이 한 번에 쏟아져서 목에서 어깨

로 흘렸음. 이로 인해 신고인의 뒷목 위쪽부분에 화상으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자리부터 오른쪽 어깨 뒤쪽에 한일자로 남은 화상 흉터가 있음. 그 후에도 과장은 불쏘시개로 신고인의 오른쪽 발목 안쪽을 찢어 화상을 입혀 현재 오른쪽 발목 안쪽 복사뼈 부근에 얇은 켈로이드 흔적과 검게 색상이 변한 반원형의 화상흔적 다수가 겹쳐져 있음.

신고인이 화상 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이 책상에 앉히더니 손을 펴라고 함(손바닥이 위로 가게). 본래 조사를 받으러올 때마다 신고인의 소지품(가방 등)도 들고 들어와 “이 물건은 어디서 구한거냐?” 등 취조를 받는데, 과장이 신고인의 가방에서 중국 장백현 쓰레기통에서 주은 모(wool)로 된 털실 뭉치와 코바늘을 발견하고는 코바늘로 신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을 뜯어냄(오른손 3,4,5번째 손가락 아래쪽 손바닥에 코바늘 눈 크기의 작은 흉터 다수 남아있음). 아파서 과장 손을 붙들고 애원하니 아이 입에서 걸레를 빼서 신고인에게 물게 하고 밖에 서있으라 함. 화상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너무 아파 제대로 서지 못하자 팔을 구부린 채 위로 들게 하여 뒤쪽으로 족쇄를 채워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방치함. 이 때도 신고인은 계속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음. 저녁에 풀어주었을 때는 관절이 빠질 듯 아파서 손을 바로 내릴 수 없는 상태였음. 조사실에 들어간 것은 오전이었는데, 점심은 조사받느라 먹지 못하였음. 풀려난 후 옷을 주워 입고 들어가 울었는데, 운다고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를 가함.

(라) 보위부에서의 식사는 통강냉이인데 바가지에 퍼주면 감방 안의 반장이 알수로 세서 배급함. 어른은 30알, 어린이는 15알임. 모두들 배가 너무 고파서보위부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며칠간은 신고를 안 하고 죽은 사람 뒤편까지 식사를 받곤 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남아있는 상처, ○○○(현재 48세가량) 이라는 여성으로 현재 탈북하여 ○○광역시에 거주

▣ ○○군 안전부

1. 신고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8. 10.

나. 신고인

- ○○○(여)

다. 피해자

- 신고인

라. 가해자

- ○○군 안전부 감시인 중 특사 ○○○, 소위 ○○○(2001년 당시 31~32세. 결혼하여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함. 얼굴은 동글납작하고 곱살하게 생겼으며 키는 보통키, 약간 마른 체형)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북한을 탈북하려다 중국에서 강제 복송되어 인권침해를 당함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를 당한 날짜와 장소

- 2001. ○○군 안전부 구류장

나. 인권침해의 내용

(1) 강간 및 비인도적 행위

○○군 안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을 당시, 방에는 신고인을 포함 3명의 여성이 수감되어 있었음.

신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곳은 소위(별 하나, 막대기 하나의 계급장)와 특사, 상사, 세 명이 교대로 감시근무를 하였음. 특사의 이름은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 자가 밤마다 신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의 쇠창살 앞에서 긴 짜리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신고인을 툭툭치며 일어나라고 함. 시키는 대로 일어나면, 체포될 당시의 옷(치마와 짧은 소매상의, 갈아입을 옷도 구할 수 없었음)처럼 그대로인 신고인을 긴 막대기로 툭툭치고 건드리면서 치마를 올려라, 가슴띠를 올려라, 팬티를 내려라 등등을 시키며 성추행을 함.

신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특사는 쇠창살 밖에서 신고인의 머리(뒤통수 또는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끌어당겨 수차례 쇠창살에 심하게 머리를 찡음. 신고인은 코피가 줄줄 흐르고 폭행에 못이겨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닌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반항할 때마다 쇠창살에 얼굴을 찡어 폭행함. 이로 인해 코피 뿐 아니라 눈 주위가 시커멓게 멍이 들고 눈이 붉게 충혈 되었음. 밤에 잘 때는 반드시 쇠창살 쪽으로 가까이 나와서 누우라고 함. 감방 안쪽에서 자려고 하면 긴 막대기로 찢러 나오라고 하므로 제대로 잘 수가 없음.

3명의 수감자 중 먼저 들어온 2명이 나가서 마지막 며칠간은 신고인 혼자서 수감되어 있었음. 그러자 하루는 감시인 중 소위 ○○○(2001년 당시 31~32세. 결혼하여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함. 얼굴은 동글납작하고 곱살하게 생겼으며 키는 보통키, 약간 마른 체형)가 밤에 신고인을 감방의 작은 개구멍(철문으로 되어있음)으로 기어나오라고 시킴. 신고인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나가지 않았으나 자꾸 나오라 협박을 하므로 기어나감. 그러자 소위가 신고인을 강간하였음. 강간 후 원래 감방으로 다시 들여보내졌고, 어떠한 의료적 조치 등도 불가능하였음.

이 곳에서 있다가 노동단련대로 이송되기 전, 지문을 찍고 '이 곳에서 있었던 일체의 일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엄수를 맹세시킴.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뭐야냐'고 또 신고인의 얼굴을 쇠창살에 박으며 폭행함.

(2) 수감시설의 열악성

식사는 강냉이밥이나마 3끼가 나왔음. 씻거나 할 수 있는 위생시설은 없었으며, 식기그릇은 세면그릇 대용으로도 사용됨.

3. 증거자료

- 신고인 진술, 같은 동료수감자 ○○○(○○남도 ○○), ○○○

▣ 국군포로

1. 신고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6. 24.

나. 신고인

- ○ ○ ○

다. 피해자

- 신고인, 대한민국에 입국한 국군포로 가족 57명
- 북한의 가족들 ○ ○ ○

라. 가해자

- 북한 당국의 책임자 ○ ○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은 6·25전쟁 발발로 1953. 7. 4. ○ ○ ○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음. 1953. 7. 27.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되었음. 1954. ○ ○ ○부터 함경북도 은덕군 아오지 포로수용소 단광에서 강제노역과 차별에 시달리다가 2000. ○ ○ ○ 탈북하여 한국에 귀환하였음.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 가족상봉, 자유왕래, 서신교환, 피해배상 등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함. 국가가 국군포로를 챙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총 들고 나라 위해 싸우겠는가?

2. 신고 내용

가. 인권침해의 내용

(1) 불법 억류 및 이송

신고인은 1952. 3. 말경 소집영장을 받고 훈련을 마친 후 전방사단인 ○○○에 배치되어 최전선인 ○○○ 전투에 투입되었음. 1952. 12.경 화랑무공 훈장을 받고 하사로 승진하였는데, 1953. ○○○ 최전방 ○○○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음. 1953. 7. 27. 오후 ○○○로부터 정전협정 소식을 들었으나 1953. ○○○경 평남 ○○○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음. 그곳에 국군포로 500여명과 미군포로 6명 정도가 있었고, 그 중 전우인 ○○○ 등을 만났음. 1개월 후 평남 ○○○ 탄광으로 이송되어 '내무성 중앙병원'이라는 곳에 수용되었는데, 그곳에서 전우인 ○○○ 등을 만났음. 1954. ○○○ 열차에 태워져 함경북도 은덕군(해방전 경흥군) 아오지 포로수용소로 이송되었음. 450명 정도의 국군포로가 있었는데 '내무성 건설대 1701부대'라고 불렸음. 북한의 제일 힘들고 위험한 20여개의 탄광, 광산, 제철, 제강소에는 모두 '내무성 건설대'로 위장된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5만여명의 국군포로들이 노동착취를 당했음. 함경북도만 하여도 아오지 탄광, 오봉 탄광, 고건원 탄광, 통북 탄광, 훈릉 탄광, 풍인 탄광, 온성 탄광, 주원 탄광, 상하 탄광, 확포 탄광, 유선 탄광, 무산 광산,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가 있었다. 함경남도 검덕 광산, 룡양 광산도 내무성 건설대 명칭으로 국군포로들을 수용하였음.

(2) 노예화(강제노동) 및 비인도적 대우

아오지 탄광은 메탄가스가 많아 한 번 폭발 사고로 대량 사망사고가 나는 곳이므로 최소한 15일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국군포로들은 아무 교육 없이 바로 갱속으로 밀어 넣는 바람에 첫날부터 사망자가 속출했음. 탄광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음. 식사는 아침, 저녁 턱없이 부족한 좁쌀밥 반 그릇에 식은 소금국을 말아서 훌훌 마시고 나면 끝이었음. 2,000m 내지 4,000m 지하막장의 온도는 영상 40도 이상 올라가 숨쉬기도 어려웠음. 일반 노동자들은 도시락을 싸와 작업 중에 식사를 했지만 국군포로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음. 하루 실적은 8톤으로서 8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작업량이었음. 작업량을 계속 완성치 못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고 가곤 했음. 지하 막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밖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영하 35도 강추위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음. 저녁 식사가 끝나면 김일성 가계에 대한 학습을 2-3시간 하고 비판서를 쓰다보면 11시가 넘어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음. 항상 굶주렸고, 의복도 1년에 작업복 2벌밖에 공급받지 못했고, 런닝과 팬티도 1년에 한두 개 배급받았을 뿐이었음. 일반 광부들에게는 매분기별 작업복 한 벌과 신발 두 켤레씩 주는데 비하여 차별이 심했음. 국군포로들은 아파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야 내무성 건설대 안의 의무실에 보내주었는데, 그곳은 침대 4개에 의자도 없고 약도 없어서 몇 시간 누웠다 오는 것이 치료의 전부였음. 내무성 경찰들은 항상 총부리를 겨누고 따라 다니며 갱내에서의 포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감시하여 포로들 상호간은 대화조차 할 수 없었음. 휴식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밖에 없었음. 북한정부는 1956. 6.경 내각 결정 143호를 내려 450명의 국군포로에게 공민증을 주어 사회에 내보내다 했으나, 공민증만 주는 것일 뿐 같은 탄광에서 같은 작업에 시달렸음. 이전에는 포로 수용소 안에서 내무원들의 감시만 받았지만, 나와서 부터는 북한의 안 전부, 보위부, 마을 단위 인민반 감시까지 받게 되었음. 북한의 전후 복구 건설에 국군포로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음. 단천 용양 광산, 함경남도 검덕 광산, 유선 탄광 등에서는 수많은 국군포로들이 공민증은 필요 없으니 남쪽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수백명이 보위부 수용소로 끌려가 소식이 끊어졌음. 또한 국군포로들 전원을 민주청년동맹(민청)에 가입시켜 놓고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노동을 착취했음.

(3) 극심한 차별대우

신고인이 있던 곳에서 국군포로 출신은 ‘똥간나 새끼’로 천대받았음. 신고인은 ○○○ 북한 여성과 결혼하고 나중에 입당도 했으나 허울만 당원일 뿐 대우는 달라진 것이 없고 계속 감시와 차별을 받았음. 대부분 단칸방에서 생활하는데 일반 노동자의 경우 식구가 5명 이상 될 경우에는 2칸짜리 방을 주었으나 국군포로인 신고인은 8식구나 되지만 단칸방에서 생활했음. 아들은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나이 40이 넘도록 입당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했음. 국군포로 가족들은 성분이 좀 좋다는 집안에는 혼사말도 해보지 못했음. 주로 옛날에 북한 정부에서 성분이 나빠서 처단된 가족, 지주 자본가의 가족, 정치범 가족, 사회주의 건설에서 교화소에 갓다 온 자녀 등 불이익을 받던 처녀와 총각들과 결혼을 했음. 국

군포로 출신 자녀는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했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을 받지 못했고, 반대로 광산의 모든 사고에 대해 의심을 받고 처벌을 받았음. 1958년경 어느 날 메탄가스 폭발로 국군포로 39명의 사망과 함께 수십명의 화상자가 발생했는데, 제일 먼저 굴밖으로 나온 사람이 국군포로 백○○이라고 사고의 주모자로 몰아 공개처형을 해버렸음. 그 후 20여명이 죽은 1961년경의 회암2갱 가스폭발사건, 40여명이 죽은 1985. 7.경의 화재사건 등으로 처음 450여명이 아오지 탄광으로 갔는데 지금 20여명만 생존해 있음.

나. 탈북 및 귀환, 송환요구

김일성이 죽은 1994. 정부터 배급이 중단되어 식량대란이 발생했고, 신고인 가족도 먹을 것을 찾아 모든 곳을 헤맸고, 풀이란 풀은 독풀을 제외하고는 다 먹어 보았음. 2000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귀환하였음. 대한민국은 북한에 억류된 6·25전쟁 국군포로의 송환, 가족상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인의 저서

4. 관련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8조(노예제도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자유), 제23조(가족권), 제26조(평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반인도 범죄) (c) 노예화, (e) 신체적 자유의 박탈, (i) 강제실종, 제8조 제2항(전쟁범죄) (a) (ii) 고문, (vi) 재판 받을 권리의 박탈, (vii) 불법적인 감금, (viii) 인질행위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 납북자

1. 신고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다. 피해자

- 최원모(1910. 2. 23.생)와 그 아들인 신고인과 가족

라. 가해자

- 북한 대남공작부서 책임자 ○○○, 무장 간첩선 담당자 ○○○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의 아버지가 납북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 내용

신고인의 아버지 최원모는 평북 정주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치안대를 이끌며 공산군에 맞섰음. 전쟁이 끝난 뒤 신고인의 아버지는 1967. 6. 4. 풍복호를 몰고 선원 7명과 함께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1967. 6. 5. 08:00경 북한 경비정 10여척에 포위돼 총격을 받고 납북됐음.

다른 선원 5명은 풀려났지만 신고인의 아버지는 공산군에 맞선 전력이 드러나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북한에 억류됐음.

신고인이 최근 확보한 정부 기록에는 신고인의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 남하하면서 원적지에서 좌익분자를 살해한 것이 발각돼 억류되었다고 적혀 있음. 이후 신고인의 아버지 행적은 알 수가 없음.

신고인이 귀환 납북어부나 탈북자 등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신고인의 아버지는 1970년경 처형됐다고 함. 장기간 부친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신고인 등 가족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이 2008. 10.경 작성한 통보서
- ○○○이 2007. 5.경 작성한 확인서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신체의 자유),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 제1항 (i) 강제실종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1. 신고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3. 15.

나. 신고인

- 황인철(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다. 피해자

- 황 원(1937. 9. 12.생), 신고인(아들), 황찬욱(딸, 1969.생), 양석례(처, 1938.생)

라. 가해자

-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책임자 ○○○

마. 신고요지

- 아버지가 납북되고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 내용

피해자 황 원은 영동 MBC(현재, 강릉 MBC)의 PD로 근무하던 중 1969. 12. 11. 강릉 발 김포행 대한항공 YS-11기에 탑승하였다가 이륙 후 10분만에 강릉 상공에서 북한의 고정 간첩 조창희에 의하여 위 비행기와 함께 납북되었음. 당시 위 비행기에는 승무원과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 총50명(간첩1명 제외)이 탑승하고 있었음. 북한은 납치 후 납북 피해자들에게 4시간 이상 사상교육을 시켰는데 피해자 황 원에 대해서는 그의 이론적인 답변을 못 마땅하게 여겨 2주 동안 어디론가 끌고 가 협박, 고문을 하기도 하였음. 피해자가

2주 뒤인 1970. 1. 1.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고파' 노래를 부른다고 어디론가 끌고 나간 후 영영 보이지 않았음.

북한은 1970. 2. 14. 당시 탑승객 중 승객39명만 송환하여 승무원 4명과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7명의 총 11인은 미귀환자로 남아 있음. 북한은 2006. 6.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해 '생사확인 불가'라는 통지서를 보냈음. 그러나 북한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의 방송인으로 근무하다가 1986. 11. 탈북하여 1992. 귀국한 오길남은 2008. 12. 피해자가 위 '구국의 소리'의 방송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1986.경 보았다고 증언해 주었음. 북한은 일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신고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토록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조선일보 기사(1970. 2. 16. 호외)
- 영동방송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1970. 5. 20.)
- 노컷뉴스 기사(2012. 2. 14.)

▣ 이산가족

1. 신고 개요

가. 접수일자

- 2011. 5. 24.

나. 신고인

- 이상철(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등 683명

다. 피해자

- 신고인과 가족

라. 가해자

- 북한 ○○○ 등 당국자

마. 신고요지

-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은 북한에 의해 가족상봉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가 60여년의 장기간 지속되어 큰 고통을 받고 있음.

2. 신고 내용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북한에 의해 60여년 동안 이산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본적인 생사확인, 가족상봉, 왕래, 결합 어느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이산가족 문제는 '가족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단위의 보호와 통신에 대한 권

리'를 박탈당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6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임.

3. 증거자료

- 신고인의 진술
- 이산가족 단체 소속원 ○○○의 진술

4. 관련 규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2조(이동의 자유), 제23조(가족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10조(가족권)
- 헌법 제10조(존엄권),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36조(가족권)

Hosted by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Monday, May 14, 2012, 1pm-5pm

**Main Conference Room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 UCLA**

- Analysis & Projec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 Policy Suggestions for Advanc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CLA 한국학연주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 A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Monday, May 14, 2012, 1pm-5pm

Main Conference Room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 UCLA

| Time | Program |
|-------------|---|
| 13:00~ | <p>Registration</p> |
| 13:10~14:10 | <p>❖ Opening Ceremon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 Won Jae-Chun (Handong University) • Opening remarks : Hyun Byung-Chul (Chairperson, NHRCK) • Welcoming remarks : David Schaberg (Interim Dean of Humanities, UCLA) • Keynote Speech : Ra Jony-yil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 • Testimony from North Korean refugees • Showing DVD clip |
| 14:10~15:25 | <p>❖ Session I : Analysis and Projection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 John Duncan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UCLA) • Presenter : Kim Sung-young (Commissioner, NHRCK) • Discussion 1 :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Discussion 2 :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Children (Sandra Fahy, USC) • Discussion 3 : Separated Families (Ki Wook Lee, Korean Assembly for Reunion of Ten-Million Separated Families) • Discussion 4 : China's Return of Defectors to North Korea (Hannah Song, LINK) • Q & A |

| Time | Program |
|-------------|--|
| 15:25~15:35 | coffee break |
| 15:35~16:50 | <p>❖ Session II : Policy Suggestions for Advancing North Korean Human Rights(Role of International Socie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derator : Won Jae-Chun (Handong University) • Presenter : David Kang (Director,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 Discussion 1 : Ways to Apply UN Mechanism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Discussion 2 :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avid Austin, Mercy Corps) • Discussion 3 : The Role of INGOs (Lynn Lee, NED) • Discussion 4 : The Role of Koreans Overseas (Gi-Wook Shin, Stanford Univ.) • Q & A |
| 16:50~17:00 | Closing remarks |



Opening Remark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am Hyun, Byung chul,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participants at this symposium which is co hosted by NHRCK and UCLA. Especially, I would like to offer my deepest appreciation to John Duncan, Director of the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for his efforts to organize the seminar.

As a part of the series of international even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HRCK hosted an international symposium in Washington D.C. in 2010 which was attended by high level officials of U.S. State Department and renowned North Korean human rights experts. Last year, NHRCK also host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llaboration with EU with the aim to form social consensus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is year, I am exceptionally pleased to host this meaningful event in L.A., which is home to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 in the U.S.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and thanks to all speakers and panelists in this symposium.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clearly described in the UN and EU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North Korean Human Rights Status Reports publish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groups (INGO)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and Freedom House, the human rights condition of North Korean people are so seriously being deteriorated that it is difficult to even find a comparison.

There are remaining serious concerns over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such as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the inhumane treatment of estimated 150,000 inmates in political prison camps as well as labor camps, public executions, the doctrine of guilt by association, widespread torture and forced labor, and, in particular, the arbitrary obstruc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from outside of the country.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 shows no sign of improvement, in light of the domestic circumstances within North Korea—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spanning three generations, “military first” policy, and a failure of currency reform—in conjunction with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aused by military provocation from the North as well as the issue of nuclear arms development.

The regime has strengthened its control and suppression over its people since Kim Jong Il’s death last year, in order to solidify Kim Jong Eun’s grip on power.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North Korean people have been crossing borders to escape. However, these North Korean defectors suffer from severe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in China and Southeast Asia, prior to their arrival to South Korea. In the same context, China’s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recently emerged as a hot topic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gar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raised global attention to the plight of North Korean defectors last March at the 19th session.




Furthermore, according to Maplecroft's Child Labour Index 2012 that was released earlier this year, North Korea was ranked as the joint top human rights offenders among 197 countries. North Korean children are being forced to do group labour in farming villages or construction sites. They also suffer from severe labor and military training, and receive education which is heavily geared toward Juche ideology of Kim Il sung as well as indoctrinated idolization of Kim Il sung's family.

Alongside these problems, there are various other pressing human rights issues such as problems of abductees, prisoners of war, separate families which must be solved by the Korean government. I hope today's symposium provides a big momentum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y making exact diagnosis of problems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also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ajor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The NHRCK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001 as a national institu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It is committed to the fulfillment of human rights in a broader sense which embraces human dignity, value and freedom of every human being, as spelled out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Korea is a signatory. In light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Territory Clause) and vari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 Commission approache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rather than a political angle, and pursues the following activities introduced below.



First, the Commission implemented annual fact finding surveys and published the result at home and abroa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actual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2009 “Survey Report on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including forced repatriation and disappearances) attracted much attention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on site field researches are conducted i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those areas.

Secondly, the Commission monitors various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to relevant authorities when necessary. Major recommendations are as the following: ▲ Guarantee of North Koreans’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 Enactment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 Recommendation of a national policy fo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 Humanitarian food aid to North Korea; and ▲ Call to stop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irdly, the Commission establish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 Archiv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cord, manage, and preserve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and to prevent and discourage human rights abuses of North Korean residents by put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rough widely disseminating this informa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comparable to how West Germany opened the Central Records Office in Salzgritter in 1961 prior to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so as to gather and record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of the East German regime at that time.



During the past year, the Commission has received 834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held a briefing session in March based on these reports, which enjoyed much attention from the public. The Commission strives to compile such cases and to gather objective data in order to share i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am confident that the public opinion formed on the ground of such information will act as strong pressur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cannot ignore.

Apart from such activities, the Commission is striving to develop a broader social consensus on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building strong cooperative network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and hosting international symposiums and forum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 look forward to gaining much support from everyone here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Prospect and Expect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is globalized society that we now live in, attention and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have a dramatic effect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a country. Alongside the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 to preven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becoming crucial as well. While "Responsibility to Protect," a United Nations initiative established in 2005, is enjoying spotlight recently due to the Middle East pro democracy movement which started in Libya,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not disregard such current trend in the world.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As you all may well aware,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is facing serious crisis and challenge than ever before. Since Kim Jong il's death, his third son Kim Jong eun has settled down as North Korea's new leadership with the support from military authorities and Kim Jong il's close groups. North Korea is conducting new experiments such as long range missile test, new nuclear test in order to strengthen the new leadership, while, on the other hand, requesting food ai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believe that now is the chance for North Korea to change itsel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send a new message in which the North Korea's new leadership can approach with a forward looking stance, so that North Korea can come out from its own isolated world and becom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over, it is tim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s North Korea to have a willing to approach and contemplate its human rights problems from a new perspective.

Therefore, as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I earnestly reques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t only exert criticism or pressure to North Korea but also provide opportunities to develop open market economy and reform its society. Furthermore, I suggest to North Korea to reformulate thei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mutual trust.

Through such change, I hope North Korean people become free from concerns about basic problems such as hunger and enjoy the opportunity to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freely see, listen, talk, and think as soon as possib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World Food Program will be able to guarantee North Koreans' right to live through concrete measures that dispel the concern and suspicion toward the transparency of the distribution process. I believe that i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people improves, various human rights issue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s that are internationally hot topics will become solved one by one.

Today's symposium provides an opportunity to make an accurate assessment on th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to share ideas and discuss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everyone at UCLA who provided substantial support to host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and to all who attended.

Thank you.

2012. 5. 14.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yun, Byung chul

Contents

:: Keynote Speech / 143

- The Darkness of Heart
– On the Prolonged Abuse of Human Rights by the State Power –
Ra Jony-yil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

Session I

Analysis and Projection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153

- (Moderator) John Duncan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UCLA)
- (Presenter) Diagnosis and Outlook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 155
Kim Sung-young (Commissioner, NHRCK)
- (Disussion 1)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 169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Disussion 2)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Children / 179
Sandra Fahy (USC)
- (Disussion 3) Separated Families / 187
Ki Wook Lee
(Korean Assembly for Reunion of Ten-Million Separated Families)
- (Disussion 4) China's Return of Defectors to North Korea / 195
Hannah Song (LINK)

Session II

Policy Suggestions for Advanc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Role of International society) / 199

- (Moderator) Won Jae-Chun (Handong University)
- (Presenter) Cure the Darkness or Light a Candle?
Complexiti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 201
David Kang (Director, USC Korea Studies Institute)
- (Disussion 1) Ways to Apply UN Mechanism / 209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Disussion 2)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219
David Austin (Mercy Corps)

- (Disussion 3) The Role of INGOs / 229
Lynn Lee (NED)

- (Disussion 4) The Role of Koreans Overseas / 233
Gi-Wook Shin (Stanford Univ.)

∴ Appendix / 239

- Major Examples of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eynote Speech

The Darkness of Heart

- On the Prolonged Abuse of Human Rights by the State Power -

Ra Jony-yil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

The Darkness of Heart

- On the Prolonged Abuse of Human Rights by the State Power -

Ra Jony-yil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Hanyang Univ.)

Gang Hang was a Confucian scholar and civil servant of Korea in the 16th-17th Century (1567-1618). He was taken prisoner together with his family by the Japanese soldiers invading Korea at that time. He and his family suffered unbearable hardship and humiliation in Japan where they were forcibly moved. In an incident for instance, one of the children of the family, eight years of age got sick on the ship, while being taken to Japan, after drinking sea water out of thirst and started throwing up. A Japanese soldier came along, picked the child up and simply threw him into the sea in full view of his parents who sat helplessly while their child was struggling for breath and ultimately drowned.

However, the most moving part of the autobiographical notes is not the accounts of his suffering. When the captives finally reached Nagasaki they collapsed in the streets unable to move, completely exhausted with starvation, exposure and fatigue. It was the people of the town who took pity on them. They came forward offering them a bowl of millet gruel and reproaching Hideyoshi, then the ruler of Japan for wantonly starting a war and victimizing innocent people.

It was a moment of great awakening for Gang Hang and probably his redemption as well. He realized there and then that human beings are all the same, basically kind in heart, capable of empathizing with others in needs regardless of national or

political divide. There are no inherently evil people • only that a particular system of power forces them to commit inhuman crimes. He survived years of captivity in Japan and finally made his way back to Korea to leave a memoir, Ganyangrog, behind for posterity.

Would it have been possible under the circumstances of modern day totalitarianism? Could we guard our heart and preserve even a small degree of autonomy, human warmth and light, against overwhelming control, weight and pressure of state power that aimed at total definition of our existence? What would have been human predicament under a regime determined to eradicate the very meaning of our existence? Elie Wiesel for instance describes in the moving accounts of his experiences in the Nazi concentration camp, where gradual, if not total, eclipse of humanity under the most excruciating experiences possible constructed and managed by fellow human beings. However, what people who survived miss in their testimony is the all pervasive nature of the repercussions of such atrocities committed by human beings.

Understandably in the memories of those who suffered the hardships the persecutors remain as simple villains, a mere personification of evil, a machine in human form, sporting with torture. However, cruelties committed by human beings in whatever forms affect not only the victims but also the others • participants in the act, passive spectators and even perpetrators themselves. The persecutors may be victims of their own action in that they forfeit at least a part of their human heart whether they are aware of this or not • creating depravity in humanity in the long run.

If the first casualty of war is truth, the first casualty of abuse of human beings may be human hearts, particularly when the abuse takes place under the aegis of state power and is prolong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Unfortunately sufferings of human beings at the hands of other human beings did not stop with the last century but continue into this century. They take many different forms and take place under varying circumstances. One such circumstance involves an implosion of a proper political order that can keep law and order - a situation of chaos stemming from the failure of statehood. Yet another involves a state system with the full power of its law enforcement turning against its own citizen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uration too. It can be relatively short lived and end when the state of chaos is terminated or when the state in question falls apart. There still are certain places in the world where people suffer deprivations and terror because of the breakdown of order, a state of anarchy with no state, properly organized to keep order and protect its citizens. These anomalies will be hopefully corrected through restoration of order either through succes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new state or by an intervention of external influences.

The worst case is the atrocities committed by and in the name of the state usually against a section of its own people that go on and on. In this case the abuse does not take the form of simple and naked violence limited to physical form alone. It comes with not only ideological persuasions, on a specious ground, apparently good enough to hoodwink gullible people, justifying the act of violence but also with cultural control that aims at total definition of people's daily life. There is thus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who support the act of the state either voluntarily or passively.

The Holocaust, perhaps one of the most horrible experiences in human history, was relatively short lived but nevertheless left behind an indelible trauma in human consciousness. Stalinist terror together with its gulags lasted longer period but somehow started changing or softening until it ceased completely with the demise of the regime. Then Cultural Revolution, a tragedy on a massive scale inflicted on a large number of people by an equally large number of people, a peculiar form of abuse of human beings, as peculiar as its name, also ran out of the steam after a

while and ceased in a way as mysterious as it had erupted. The Killing Fields, another chilling episode in the history of atrocities committed by the rulers against their own people came to an end after awhile largely through an external intervention. Conversely when an egregious abuse of human beings continues in any place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well over half a century, the case surely requires a more serious consideration, not only by the people with immediate interests in it but by all of us.

On May 12, 1943 Shmel Zygielbojm, a memb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Polish Government in exile in London, committed suicide as the Germans were quashing uprisings in the Warsaw ghetto. He left a note behind which read in part: "Though the responsibility for the crime of the murder of the entire Jewish nation rests above all upon the perpetrators, indirect blame must be borne by humanity itself." The outside world was mostly indifferent or negligent on what was happening in Europe under Nazi occupation to a large number of people belonging to an ethnic group. This was partly due to a lack of proper information and also due to the desperate struggle in which the whole world was engaged. However, the message left behind by the desperate man points to the right direction, ie. to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human kind as a whole in cases of grave abuse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society reacted with greater alacrity in the latter half of the last century to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even inside other countries. For instance, in the sixties many thousands marched in various cities of the world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carrying a banner that read, "Your fight is our fight". Martin Luther King called on the people of the world to stand in the other persons' shoes, to see through their eyes, to understand their pain.

Facing realities unfolding before our own eyes many times far worse than what was happening in America decades ago, is the world just going to sit back and watch?

Writing about conditions in the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David Hawk tells us that there can be few places in the world where the human rights situations are more egregious and get more overlooked than North Korea.

Barbara Demick writes that the strength of the regime comes from its ability to isolate its own citizens completely from the outside world. However, people are isolated not only from outside world but also from one another. In a strict sense there is no real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bout their social, let alone political conditions. Even officials in higher echelon of the regime are not free from the massive system of spying on the population, including an arrangement compelling people to report on each other. One has to be constantly on guard and watch one's tongue even in conversations with intimate friends or inside the family or inside the family, lest there be any informer or eavesdropper around. Private meetings, if they take place on regular basis, immediately become objects of suspicion. In fact there are no real contacts among people in the country much less voluntary association. There only remains a huge mass of atomized individuals at the beck and call of the regime.

Scenes of indescribable atrocities are being relayed by the former inmates of the political prisoners' camps. Among the most gruesome of the stories are the accounts of the children who are forced to watch the executions, including that of their own parents.

However, what is no less alarming than physical repression is intellectual and affective deprivations, a near perfect system of thought control imposed on the population. People are compelled to think, feel, enjoy and act according to official guidelines. Even a show of passivity is not permissible. One has to actively conform to the guidelines. As one refugee recalls, there is no freedom even not to weep when they are expected to.

What happens when a totalitarian control of the society continues for a long time and when there is no alternatives open to the people except for adapting themselves to the external coercion is a kind of Stockholm Syndrome on a national scale. People internalize the repressive system for improving the chances of their survival, to facilitate accommodating what is inevitable. People not only just go along with the system but even really believe what they have to, what they are taught to • at least for the time being at least.

There are gruesome stories about life in political prisoners' camps both by ex-inmates or even ex-guards that reminds one of an old adage that this kind of experiences has the same effect both on the prisoners and the guards, the persecuted and the persecutors, victims and perpetrators. Both suffers a common fate ultimately, depravity of humanity. Also when you read about the life of ordinary citizens, a prison appears sometimes like the whole society carried to grotesque extremes.

The effect would not in a way stop at the immediate scene of sufferings. Even those high up in the offices who plan and carry out policies are the victims of the system of their own making. They have to shut down their eyes and ears and hearts to the muted cries of anguish emanating from the population and persuade themselves as much as the people they govern that they are doing right things only

The erosion of empathy does not stop at the national boundary of the country in question. Shadow creeps into our heart outside of the country, into all of us who turn our faces from the miseries of people created by state power. Yet it is considerations of high politics or issues of political importance that receive most of the attention. There have even been comedies performed on North Korean themes, caricaturing the abnormal practices in the country. For whom? Is it to the merriment of the audiences?

It has been generally acknowledged that with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people began to empathize more with the sufferings of others, to look askance at violence and repression inflicted even on animals let alone human beings, torture, slavery and extreme forms of violence. There, however, seem to be exceptions too to this general trend of modern world.

During ten years of so-called sunshine policy in Korea problems of human sufferings were only at the margin of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sides of Korea: reconciliation, peace, national unity and the hidden agenda on both sides, i.e. all important national mission of reunification on which each side had its own design. Outside of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has remained the same. The major concerns of the powers remain matters of high politics: For some it was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for the others their strategic interests related to the stability in the peninsula and survival of the regime. We are told that at a party after a recent conference in which Americans as well as people from both sides of Korea participated, a large of amount of alcoholic beverages were consumed in an atmosphere of conviviality. There, however, was no mention that the sufferings of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ever came up in the friendly conversations among the participants.

This is not to say that issues of high politics are not important. As immediate issues of the day they sometimes deserve priority over the human problems which require a long term attention. However, as an important work on this issue points out, what matters is again our empathy for the suffering people, our concerns about human chaos resulting from a long term anomalous state and most of all our willingness to express concerns even while attending to the matters of importance of the day and even at the risk of making things awkward.

A short but seminal work on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was done by two Korean scholars, each representing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that have been curiously at war with one another on this issue. Their conclusion is that while political issues of the day deserve to receive priority attention it is most important to keep our interests in human rights alive and to persist in raising our concerns, aimed at incremental gains, even minor ones little by little.

It appears to me that keeping this issue in mind and being ready to raise it will keep our heart from the shadow of darkness creeping in whenever we turn our face away from a crisis in humanity.

There are talks about grave dangers to humanity posed at present by such things as climate change, population growth, water shortage, rising food prices and the failing states ... But shouldn't we also think of the darkness of heart created by an atavistic state power aiming at total control of human beings and growing in ever wider circles through our negligence, leading slowly to the unraveling of humanity?



Session I
Analysis and Projection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esenter

**Diagnosis and Outlook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Kim Sung-young
Commissioner, NHRCK

Diagnosis and Outlook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Kim Sung-young
(Commissioner, NHRCK)

1. Why do we talk about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Since the end of 2001 up to recently, North Korea has unprecedentedly been spotlighted internationally. As a hot issue, local and international media has continuously dealt with topics related to North Korea including sudden demise of Kim Jong-il and subsequent hereditary power succession since then, reac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UN toward a long-range missile firing, and the nuclear development issue. Furthermore, massive flight of North Koreans due to food shortage and the following forced repatriation of those defectors by China where majority of them reside are concerning people far from the country, even here in LA. Given the background, I would like to raise a question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 **Human Rights as Universal Value of Humanity**

According to the UPR national report submitted by DPRK in 2009,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human rights are the rights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ly entitled to and the rights that enable them to live as human beings with their dignity fully respected. In other words, they are the rights universal to all human

beings that are recognized and guaranteed by the State and enable the human beings to enjoy equal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I agree. However, do universal human rights even exist for North Korean residents? It seem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ware of Article 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Directly opposite to what they declare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are systemically violated by the authorities in practice and the situation is indescribably miserable. It may be too idealistic to talk about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ICCPR, ICESCR, CRC, and CEDAW which the DPRK ratified because most of North Koreans’ rights for living are threatened by severe hunger day by day. Their tragic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one of topics that contain universal value, human rights, a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tated, apart from political or ideological logic.

•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Generally we, Koreans refer to them as “Dong-Po”(compatriot) which comprised of Dong (the same) and Po (womb). In short, the South and North are like brothers and sisters from the same origin. In this regard, it is our moral obligation to speak out about thei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at makes the responsibility clear is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providing tha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which recognizes North Koreans as our citizen. The Supreme Court also decided that North Koreans ar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the Committee of the Five Provinces of North Korea in order to prepare administration service for five

provinces including Hwang-Hae-Do after reunification.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values in North Korea equals to the realization of our Constitutional values.

2. North Korean Human Rights, What is the Problem?

I am frustrated to mention problems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ecause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North Koreans suffer from are extensive, continuous and systematic. Therefore, I would like to focus on urgent issues including human rights problems of political prisoner camps,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parate families.

- **A Modern-version of Auschwitz, Political Prisoner Camps**

The Gulag, a Russian forced collective labor camp where used to be a tool to punish anti-revolutionists after the Russian Revolution,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a symbol of genocide of the Jew and the political prisoner camp in North Korea are three symbolic places showing the atrocity. Fortunately, Gulag and Auschwitz are now in the sad past history but political prisoner camps in North Korea are in the present tense.

In 2009, the NHRCK conducted the on-site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Political Prisoner Camps in North Korea” based on reports from 17 defectors who were actually detained in the camp before and 300 defectors who recently entered South Korea. On investigation, it turned out that political prisoner camps in North Korea now are on 5 integrated sites (number 4, 15, 16, 22, 25) which were formerly more than 15 sites at the beginning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estimated number of detainees is approximately 150,000.

It is revealed that most people who are kept in political prisoner camps are among those who criticize the North Korean regime or Kim Il-Sung's family, hostile groups such as landowners and capitalists, and whose family members escaped to South Korea or committed errors (guilt-by-association system). They are detained without knowing any apparent reason in the absence of official judiciary process. Political prisoner camps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its management system; the majority of camps are completely restricted where even a dead body cannot get out of. The second type is a place called 'revolution purification area' where a prisoner can go back to the society after term of imprisonment. Distinctively, the camp is a whole area designated as a prisoner camp with escape prevention facilities including barbed-wire fences and observation towers. In the camp, mostly, families as a group reside, and children are the victims who were born to detainees ther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olitical prisoner camp are as the following. First, elements related to basic human instinct such as food, sleeping time and sexual desire are controlled, which annihilates humanity. Second, inhumane treatments of life-long forced labor as well as habitual violence and torture are given. Third, death rate of the camp is high because of constant malnutrition due to food shortage and chronic diseases due to labor exploitation since all the basic necessities are self-sufficient. Fourth, mistrust prevails in the camp due to the surveillance system which makes all the prisoners watch on each other even between family members. Lastly, both public and secret executions are conducted.

As mentioned, the North Korean regime manages inhuman political prisoner camps as a means of reign of terror so as to maintain their political system and control people. In this modern civilized society, a symbol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prisoner camps which gradually destroy humanity through mental and physical agony including habitual violence and torture, thorough suppression and control, mutual

observation and severe forced labor. Everyday life in the camp is a series of human rights abuses.

- **Where future children would go to?**

North Korean authorities claim that they ensure rights of the child as “the future and king of this society”. Moreover, North Korea acceded to the CRC in September 1990 and formulated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child welfare. Also, the Government submitted two reports to the UN including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State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02 and the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 in 2007. It is deemed that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wishes to propagate the superiority of the Communism by highlighting free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to all children.

But, we are well aware how horrib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se children are.

Let's take a look at children's health in North Korea.

The majority of children in North Korea are deprived of right to life due to chronic hunger and malnutrition without guarantee of basic rights such as right to food. According to a report of UNICEF in 2009, out of all children under 6, 23% suffer from underweight, 9% weakness, and 45% defective development. This reflect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failed to implement Article 6 of the CRC that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is circumstance,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 in 2009,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de a recommendation to the authorities to “take steps to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of children, giving particular attention to improving food availability as well as the quality of water and sanitation in all parts of the country.”

Recently, among threatening elements against North Korean children's health, the noticeable fact is that they are exposed to drugs defenselessly. In the past, spread of drugs was directly concerned in adults, however, it is reported that children have easy access to drugs these days. What is more shocking,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volve children in growing and collecting poppies as a means of earning foreign money. Under this circumstance, more and more children get addicted to drugs gradually, about whic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pressed their concern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 aforementioned.

Child education or care facilities including daycare service, kindergartens and schools are not in normal operation due to deteriorated economy. Moreover, education focuses on political ideology including the Ju-Che Ideology and indoctrinated idolization of Kim Il-Sung's family rather than on formation of personality or acquirement of knowledge, as opposed to Article 29 of the CRC that "States Parties agree that the education of the child shall be directed to: (a)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Furthermore, the degree of child labor exploitation is serious. As a part of school activities, children are forced to work at collective farms, construction sites and mass gymnastics, which is taken for granted. What needs mor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at North Korean juvenile should take a mandatory military training at the Red Youth Guard when they reach the age of 15. Children from a broken family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voluntarily become a labor worker abandoning education or a tramp looking for food. Last January, According to Maplecroft, a British specialized institution in the analysis of risk assessment, North Korea is the worst offender out of 197 states in terms of child labor exploitation as of January 2012.

- **What is the fat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are more than 20,000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23,513 defectors as of March 2012) who had taken root in various sectors. They became our neighbors and are very familiar to us to the point where one North Korean defector became a lawmaker-elect in the recent general election. However, for most of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n society still felt unwelcoming.

At the 19th session of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last March,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arrested in China raised as a serious human rights issue.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ttended this meeting and urged to stop the forced repatriation. Among complaint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submitted to NHRCK in rela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s many as 70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during interrogation process after forcefully repatriated from China. Why these people tried to escape North Korea risking their lives and leaving their beloved family members behind? What kind of human rights violations did they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escaping?

North Koreans' quality of life become impoverished as the government is focusing its national power on the Ju-Che ideology, "military-first" policy, nuclear development, and Kim Il-Sung family's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while it completely separates itself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after mid-1990s, where shortage of food deteriorated, the number of NK defectors in China has increased sharply and their human rights were spotligh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most 70% of NK defectors are composed of females and until they settle down, they are often exposed to heinous crimes such as human trafficking, sexual violence, and labor exploitation. Since 1986,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of Mutual

Agreement on Altered Area'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regards North Korean defectors as illegal border crossers out of economic necessity and thus repatriate them back to where they flee from. Those non-voluntarily repatriated defectors then are classified as anti-national criminals, and subsequently undergo all kind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ose at training camps, edification centres and even some are sent to political prisoners' camps.

Taking into consideration foreseeable persecution against repatriated defectors includ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terrorization as well as political threats, to urge to stop the non-voluntary repatriation of defectors, NHRCK had issued a 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enshrin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uch as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lso, last February, to cal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Chairperson of NHRCK sent a letter to UN Secretary General,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lthough UNHCR and INGOs worked out many activities including presentation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in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resolve the problem without cooperation of China where most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dwelling. China must acknowledge that these people are refugees and stop forced repatriation. The parade of North Koreans fleeing from their homeland seems unlikely to end unles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akes fundamental changes in their policies - stop the tyranny and "military-first" policy and start "citizens-first" policy - to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ves.

- **Separate families, the unhealed Scar of the Korean War?**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Korea

It is obvious to both South and North that the problem of separate families should be approached as a humanitarian issue; however, in reality, having reunion sessions for those families is highly affected by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Estimated number of separate families from the Korean War is 700,000. Among these, approximately 128,000 people applied for family reunion to the Information Center for Separated Families of Korean Red Cross and just about 80,000 people are still alive as of 2011.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of these survivors are now over 80 years old, the issue of separate families is the most pressing one in need of resolution. Since the North-South Red Cross Conference (NSRCC) of 1971, only 4,321 families (2,153 South Korean families, 2,168 North Korean families) and 21,734 people (14,057 South Koreans, 7,677 North Koreans) were able to reunite with their separate families. Now, since the killing of Mt. Geumgang tourist and sinking of Cheonan Ship, even small-scaled reunions had to stop.

Since separate families are unfortunate consequence of country division, both governments have responsibility to resolve this problem. In fact, separate family reunion was arranged with humanitarian and nationalistic views through NSRCC of stakeholders. Each reunion session is held as single-session and only 100 people can participate for each session. On top of its minute scale, the process has repeatedly and unilaterally stopped by political reasons, depending on situational preference.

Now it is time to come up with a novel measure to approach and resolve this problem. Both Article 16(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23(1)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tate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these international covenants, the issue of separate families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family right), and thus should be dealt with corresponding measures.

It should be guaranteed to follow the procedures proposed by the Central Tracing Agency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which allow separate families to reunite through 5 step-by-step procedures 1) confirmation of life and death of targeted persons and identification of their current address, 2) exchange of letters between family members whose address is identified, 3) reunion, 4) exchange visits, 5) reunion at the location favored by the persons directly concerned.

Every family has right to live together.

Separate family's wish to reunite is neither a political nor ideological issue; it is an ethical and moral issue. Their reunion should always be made regularly and consistently. This is indispensabl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3. Conclusion: Would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mprove?

So far, we have examined human rights issues involving political prisoners' camp, rights of children of socially vulnerable group,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parate families. As illustrated, North Korean citizens have to live under the worst human rights condition which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this civilized world of 21st century. Even in this situation, part of our society still believes mentioning of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is a means to pressure and devastat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us taking a toll on keeping peace with North Korea. They also believe discuss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would provoke the North Korea authorities and consequently would not help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ut is it? Then wh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 EU, and INGOs adopt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express their concerns by presenting numerous reports regarding sever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Can we expect to se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ver improve?

To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NHRCK had delivered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 recommendation containing a comprehensive and inclusive blueprint with the medium to long term perspective.(Nation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Oct. 24. 2011)). In this recommendation, the important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o support North Korean citizens to acknowledge and foster the sense of human rights as well as to promote and reinforce the capacity so they could play a crucial role in improving their human rights situation. Through this recommendation, NHRCK hopes to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t the fundamental level.

Lastl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 and EU as well as INGOs,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as the following :

First, I reque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North Korean citizens to have access to outside information in order to enhance their awareness of human rights.

Second, the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maintained by supplying food and medicin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right to life of impoverished North Koreans. Al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pected to monitor the

process of distribution to ensure the transparency.

Third, mutual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 and EU as well as overseas Koreans and national/international NGOs at this meeting are much needed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Accordingly I have high expectation for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will be discussed at the next session. Also I firmly believe that this symposium would be a meaningful occasion to come together and cooperatively seek solutions to human rights challenges in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isussion 1

Political Prisoners' Camps in North Korea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ocumenting and Dismantling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Labor Camps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citizens of North Korea are under attack from the police authorities of the DPRK, no less so than the citizenry of states in the Mideast during the Arab Spring. However, the attacks against the citizenry of North Korea do not take place in front of CNN or BBC cameras or against citizens with instant, real time cell phone connections to the world wide internet. The attacks in the North Korean "hermit kingdom" take place in *incommunicado*, extra-judicial, political prison labor camps called *kwanliso* - where the 150,000 to 200,000 persons are the victims so far of political cleansing or pre-emptive purge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dditionally, severe attacks on score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citizens of North take place at various prisons and forced labor facilities, and in a string of police stations along the China-DPRK border, against North Koreans forcibly repatriated from China to for having exercised their internationally recognized right to leave their country of origin.

Unlike past decades, we now know a lot about how these severe repressions operate. Among the 23 to 24 thousand former North Korean citizens who in the last decade fled the DPRK and found asylum and citizenship in South Korea, there are literally hundreds of North Koreans previously imprisoned for reasons not allowed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e *kwanliso* political penal labor colonies, the *kyohwaso* (felony-level) penitentiaries; the *jip-kyul-so* (misdemeanor level) prisons, the

rodongdannyeondae mobile labor brigades and the *kurujang* policeinterrogationstations. From their testimonies we now know a great deal about the phenomena of repression in these various prisons and labor camps.

There is however, we have to note carefully, often a 2 · 4 year delay between the time when the severe violations take place in North Korea, and when we can find out about them. The former political prisoners have to be released (there are only 2 know escapees from the *kwanliso* labor camps). They then spend months or years in North Korea planning their escape to China. After that they spend months or years in China, earning the money and making the connections for the long journey, usually thru Southeast Asia, to South Korea. Once in South Korea, the former North Koreans go through several months of intelligence debriefings and orientation training sessions organiz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ly after that do the former victims and witnesses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become accessible to journalists, scholars and human rights investigators.

What we now know is variously summarized in book-length reports by North Korea Data Base (NKDB), the ROK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nd my own report for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2nd edition of Hidden Gulag. With respect to the *kwanliso* political penal labor colonies(also translated as “controlled places” “political prison camps”, or “concentration camps”), all reports posit some 150,000 to 200,000 prisoners held in remote mountainous areas, mostly for life, in 5 or 6 sprawling encampments where the prisoners are subjected to slave labor under draconian conditions, most not ably below subsistence-level food rations, where the prisoners mine various minerals, timber-cut trees, work on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factories and work shops located within the prison camps, or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valleys of the mountains,. Two of the prison camps, Camp 15 and Camp 18 have, or had, so called “re-revolutionizing zones” where a comparatively small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are eligible for release back into North Korean society. But the vast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are deemed implacably, even congenitally, “counter-revolutionary” and condemned to slave labor until death.

Who are the prisoners?

Generally stated: people deemed not capable of fitting into what the North Koreans call “the Kim Il Sung nation.” More specifically, persons suspected of real or imagined **wrongdoing**: those who may have been on the losing side of a dispute within the Korean Workers Party, or those who did not take proper care of them and a tory KimIlSung photographs, or those who went to China without authorization, for example. Or, persons suspected of **wrong thinking**: at one time, Protestant Christian believers; at other times orthodox Marxists who opposed Juche ideology or dynastic succession. Those guilty of **wrong knowledge**, such as many of the Korean-Japanese whom migrated to the DPRK from Japan or the diplomats or students in East Europe who observed the collapse of North Korea’s socialist allies. And most importantly, people with **wrong associations**. Indeed the largest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in the labor camps are family members of the wrong-doers and wrong-thinkers -- the wives, children and even grandchildren of those other offenders who are also imprisoned because the DRPK revived the Korean feudal practice of the “three generation-collective responsibility guilt system.”

How do we document and analy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When docum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the first step is always to obtain the in-depth first-hand testimony of victims and/or witnesses. The second step is to analyze the phenomena of repression according to the best available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that denominate permissible and impermissible state behavior in the modern world.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we use the Geneva Conventions

with their definitions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For most relatively normal and stable UN member states where there is a modicum of “law and order”, we use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and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which set forth in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law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proclaimed in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course, we us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to analyze North Korea as the DPRK has ratified these treaties agreeing to be legally bound by their provisions. But there is a huge problem here in that there is too much in North Korea that operates “above the law:” the whole Kim royal family for example. And there is way to much that operates “below” or “outside the law”: the counterfeiting and other illicit economic activities, and the entirely extra-judicial political prison camp punishment system as it operates as a key element of citizen control. Fortunately we have, as of June 2002, an invaluable additional international norm for evaluating the widespread, systematic and severe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revised defin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found in Article 7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7 to the North Korean prison camps.

- Those sent to the camps are not arrested, tried, convicted and sentenced according to the DPRK Criminal Code or Criminal Procedures Codes. They are in the language of international law “forcibly disappeared”.
- They are “deported” from the former place of legal residence, “remov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and deposited in labor camps surrounded by electrified barbed wire.
- They are severely deprived of their liberty for indefinite, mostly life-time, *incommunicado* detention, beyond the reach of the DPRK Constitution, law and court system.

- They are subjected to unremitting “slave labor” in the prison camp mines, forests, fields and factories while provided far below-subsistence-level food rations resulting in such high rates of deaths in detention (from malnutrition, disease and forced labor work accidents) as to reach the level of “extermination.”
- They are subjected to beatings for failure to maintain forced labor production quotas, tortured for infractions of camp regulations and murdered extra-judicially for escape attempts or camp rule infractions mostly having to do with “stealing” food from the camp animals or camp vegetable plots and granaries.
- The hungry women prisoners are frequently subjected to sex with the prison guards and officials in circumstances so inherently coercive as to constitute rape.

What I have described above constitutes 10 of the 11 acts that are now, under the requisite circumstances, considered to be crimes against humanity.

But not only does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n crimes against humanity provide us with the best normative and leg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henomena of repression in the DPRK prison labor camps, Crimes against humanity analysis also provides - if you look to what measures could or would be taken to eliminate the perpetration of these criminal acts by North Korea’s leaders and the State Security Police agency - a framework and blueprint for disabling and dismantling the prison camp system.

Recall the central provision, ICC Statute Article 7.1.e: “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prisoner in the camp’s “revolutionizing” zone and are eligible for release are imprisoned for 3 to 10 years. These people retain their ties and connections to previous friends, neighbors, residences and employments. They can rather easily be re-integrated into North Korean society, and should be released immediately.

But what about the persons who have been imprisoned for 20 or 30 years, and have basically lost all connections to their friends and neighbors and their previous place of legal residence and employment. A possible solution for the terrible plight of these people is, precisely, the restoration of the liberties to which they have been so severely deprived.

- How do you end slave labor? By paying the miners, timber cutters, farm and factory laborers in the prison camps the same wages - in won or food and clothing - as those occupations get in the outside society.
- How do you end extermination level rates of deaths in detention from severe malnutrition and concomitant diseases? By allowing the prisoners access at market rates to the agricultural products farmed within the prison camps; and by recognizing those deprived of their liberty as “vulnerable groups” (as does the UN) and allowing this “vulnerable group” access to international food aid.
- How do you end *incommunicado* detention? By allowing the residents of the camps to send and receive letters and packages and by allowing them the same limited access to newspapers, radio, television and telephones as are available to North Korean citizens generally.
- How do you end the removal of “the protection of the law”? By enabling the North Korean court system to operate, and by extending the jurisdiction of the DPRK criminal code and criminal procedure codes to the areas of the *kwanliso*.
- How to end the persecu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in the encampments imprisoned because of the presumed offenses of their fathers or grandfathers? By having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at have the same curriculum as other schools in North Korea instead of being focal points for

organizing youth labor brigades.

- And so on, including allowing the residents in the camps the same limited internal travel as is allowed North Koreans generally.

Perhaps this sounds radical. Actually, it is not. There is an existing model for dismantlement in the *hae-je-min* (cleared people) section of Camp 18 where 3,000 former long term prisoners continue to reside even after they have been officially released - because they have nowhere else to go, where local officials would give them residence permits - and where they have the same limited rights and freedoms available to DPRK citizens throughout the country.

The DPRK formerly proclaims to the UN that the prison camps do not exist, even though we can provide the location of the *kwanso* by exact degrees of latitude and longitude. Who knows if they will ever be willing to release the prisoners or dismantle the labor camps. Willingnes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gnize and condemn the political prisoner camps as clear and massive crimes against humanity would, many of us believe, in the long run, encourage the North Koreans to realize that the prison camps are an issue they tackle and a problem they must resolve if they seek better respect, recognition and integ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isussion 2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Children

Sandra Fahy
USC

Childre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andra Fahy
(USC)

1. Introduction

Any talk that details the status of children's rights must also address the conditions in which children live, and those they live with, most notably mothers. I will describe North Korean's human rights at the most basic level: access to food. From this, nearly all other rights violations, and life's difficulties, emerge for these children. North Koreans who are disadvantaged regionally, occupationally or politically are at greatest risk of having their most basic human rights violated, thus their children inherit these same violations. Children, because of their biological vulnerability, inherit the worst conseque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deed, here we meet the most vulnerable of all North Koreans. Children in-utero, infants and young people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 in any society, but certainly where rights violations are concerned, they suffer the consequences far more easily than other groups. Lacking the physical ability to defend themselves, to feed themselves, lacking the knowledge of food sourcing, preparation and scavenging, lacking the experience to know which adults to trust, who to turn to for help and where to seek assistance when parents are lost, children in North Korea are at the mercy of the goodness of strangers, good luck and their own resourcefulness to survive. I am speaking here about those North Korean children who are politically and

regionally outside of the realm of privilege. In North Korea, children are said to be the Kings of the nation, but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Our knowledge of the lives of North Korean children,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suffer, is limited not only by the typical limitations of acces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by the ethics of conducting research with young, under-age subjects. There are about 6.8 million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in North Korea, within a population of 23.5 million people. Of those 6.8 million children, approximately 2.1 million are under the age of five. Existing information comes from a few sources. UNICEF,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speaking about their childhood experiences in the North, and memoirs.

Nutritional discrimination operates throughout North Korea, typically establishing itself along regional lines, and then in terms of occupation and political loyalty. Children's nutritional allocation is directly linked to their parents access to nutritional food, and this in turn is directly linked to political loyalty, which determines occupation and where people live in North Korea. There are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ldren between provinces, with the best situation prevailing around the capital city of Pyongyang and the most difficult ones in the more remote north eastern provinces of South Hamgyong, North Hamgyong and Ryanggang. Children in urban areas, outside of Pyongyang, are most vulnerable.

Aid activities that do exist in North Korea, such as UNICEF, focus on activities such as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water supply and sani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school environment. The presence of any NGO in North Korea is limited and guided by DPRK government agencies. For instance, there are only 10 international staff working with UNICEF throughout North Korea, with the first in-country UNICEF Representative appointed only in 1998.

Between 1993-1998 the famine, floods and economic difficulties resulted in a halving of the per capita income and an increase in infant mortality from 14 to 23 and under-five mortality from 27 to 55 per 1000 live births. Acute food shortages, heightened morbidity and the reduced capacity of the health system due to shortages of essential drugs, and degraded quality of water and sanitation systems, all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infant and child mortality.

With the work of aid agencie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mprovement in these trends. According to a 2004 nutrition assessment, between 1998 and 2004 acute malnutrition fell from 16 to seven per cent and chronic malnutrition from 62 to 37 per cent. But, according to World Health Organization standards, this is still high. Furthermore, one third of expectant mothers are malnourished and anemic, which results in stunting, learning and development issues, as well as life time health vulnerabilities.

2.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malnutrition

According to a study by Pak, Schwekendiek and Kim, (2011), the adult stature of 6,512 North Korean refugees born from the 1930s to the 1980s was employed as an indicator of the living standards in North Korea. The height of North Koreans born befor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ceeded that of their South Korean peers. All North Koreans born thereafter were shorter than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The height gaps also became more pronounced over time and peaked in the early 1980s. This finding rejects the popular belief that North Koreans enjoyed a better standard of living compared to South Koreans for the first two decades after the political division.

3. Women and children link in nutrition and development

The maternal nutritional status of women in North Korea is associated with the stunting of children in the DPRK. Stunting is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quality of the diet more than the quantity of the diet. There are also strong correlations between the location of the household and stunting. There were not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dwellings, but there were important differences across provinces/ cities, with residence in Nampo and Pyongyang offering considerable advantage for children and mothers.

The consequences of stunting are not only reflected in the short term in greater child mortality but also over the medium and long term in poorer school performance, decreased work capacity and increased risk of adult morbidity and early death. Stunting rates in children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maternal food patterns, with maternal nutritional status and the coverage of health services during pregnancy.

The incidence of stunting is not only very concerning from the standpoint of survival and physical growth but also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children. Stunting is the only tangible indicator of psychosocial development. In situations of inadequate nutrition, the body spontaneously ranks survival first and growth second, and cognitive and brain development last. This does not, however, imply that survival, growth and development are sequential. Rather, they take place simultaneously and, therefore, adequate feeding must be accompanied by psychosocial stimulation in order to enable optima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ractically, this means that children must be held, stroked, spoken to and stimulated visually with objects.

It is worth keeping in mind that poor nutrition is linked with tuberculosis; the disease exploits the malnourished body of victims. North Korea, because of the poor health care infrastructure (lacking doctors, medicine and resources) has increasing

rates of drug resistant TB which will cause problems not only for North Korea, in the future, but also the region. The TB epidemic is believed to be expanding at a rate of about 10% per year, probably driven by chronic malnutrition.

4. Social impact of children's human rights violations

Early childhood malnutrition in the DPRK suggests that chronic hunger has taken on an inter-generational pattern that erodes survival, growth and development. This in turn manifests itself in reduced wellbeing and performance throughout the lifecycle. The famine and flood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arly childhood developing in the 1990s, the present state of malnutrition, and chronic under-nutrition, reflects a wider range of determinants. These are: poor physical status of women, the overall care environment and reduced capacities of primary and secondary caregivers to provide adequate care; the erosion of health delivery and water and sanitation systems, inhibiting caregivers from ensuring that children are appropriately and adequately nourished and stimulated, and are protected from communicable diseases.

Perhap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insights concerning the right to food and social consequences in North Korea is seen in changes to the social norm of son-preference in Korea. A paper by Schwekendiek (2010) investigated the gender discrimination among 2,793 children living in post-famine North Korea by calculating male-to-female ratios of standard socio-economic indicators. He found that traditional son-preference has disappeared in North Korea and that, contrary to both Confucianism and communism, there is even a moderate preference for daughters. This might be a result of North Korea's socialist agenda, as well as the traumatic famine of the 1990s that has shifted household resources to daughters due to their genetic resiliency in crisis periods, in combination with income decisions of parents to invest in daughters in the emerging post-Cold War economy. Though attributed to different social factors, namely the communist agenda in North Korea, Goodkind

(1999) found the same trends.

5. Concluding thoughts

Parents in North Korea would like to satisfy the needs of their children, and many take incredible risks to do so. However, because the state does not entitle its citizens to alter their entitlement to access food, or other necessary resources - by border crossing, entering into capital is't business practice sand soon-the yare caught between demonstrations of loyalty to the state and loyalty to their childre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isussion 3

Separated Families

Ki Wook Lee

Korean Assembly for Reunion of Ten-Million Separated Families

The Role of the Korean American Society for the Reunion of Ten Million Korean Separated Families

Ki Wook Lee

(Korean Assembly for Reunion of Ten–Million Separated Families)

Let me first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Mr. Kim Sung-young, commissioner of the NHRC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his background paper presentation, with its vital and concrete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and prospect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My special appreciation and respect are extended to Mr. Hyun Byung-chul, Chairperson of the NHRCK, for planning and hosting such a meaningful symposium on a regular basis. My deep appreciation is also extended to Mr. John Dankeon, Director of Korean Studies Center at UCLA, Mr. David Kang, Director of USC, Dr. Sandra Pahee, Ms. Henna Song, Representative of LINK, Mr. David Hook, member of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of. Won Jae-cheon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Prof. Shin Ki-uk of Stanford University, and all the other participants and distinguished guests who honor this place with their attendance.

As a Korean resident in America, I have kept deep in my mind a sense of agonizing sympathy and urgency towards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s well as the situation of the separated families of the two Koreas, which has driven me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new and effective approach to those issues from my perspective here in the U.S., so far away from Korea. To observe the general

views and opinions towards North Korea prevailing among the influential political community and leading mass media in the U.S., the closest ally of Korea, suggests that it seems they flow consistently to one coherent direction. This is important, because America's political and social communities exercise an enormous influence on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 see the recent movement of the Korean residents' society in L.A. on the North Korea issue, a rally against North Korea's missile launch, a rally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Cheonan ship sinking, and a rally was held to protest against the sending of North Korean refugees back home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for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up to now, some Korean residents' societies and churches occasionally invite North Korean defectors to hear about the real situation in North Korea. Our movement on the North Korean issue remains primitive, and we have been unable to approach the next level of systematic and effective action.

Among the diverse presentations today, I would like to give my own opinion,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issue of the separated families of the two Koreas.

There are approximately eight to ten million Koreans from separated families currently residing in South Korea. In view of that, it is estimated that about fifteen to twenty thousand Koreans from separated families are residing in L.A. and about forty to fifty thousand such Koreans in all of the U.S. The figures come from calculations based on the proportion of populations.

According to data from the Korea Assembly for the Reunion of Ten-Million Separated Families, it appears that since the first reunion of North-South separated families was realized in 1972 by the Korean Red Cross, after 2000, merely somewhere between one hundred and two hundred Koreans a year were granted a

reunion with separated family members. An aggregate of one thousand, five hundred Koreans have succeeded in meeting their separated family members to date. With that progress, it would take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by simple calculation, to realize all the reunions for one hundred and twenty-four thousand South Koreans from separated families who had applied for a reunion and continue to wait. As 60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peninsula was divided into two Koreas and the first generation of separated families reached ages over 80, it is certain they have only five to ten years left to realize their aspiration of a reunion with a separated parent, brother and sister or children.

I believe, and maintain here at this venue, that the aspiration of “meeting their own blood family” is an indispensable God-given right that must be provided to separated families, and it is a natural and basic instinct to be enjoyed as a human being. I firmly believe that this issue must be resolved at the initiative of leading public institutions and active citizens of Korea through joint efforts with related institutions, both domestic and foreign.

Recently, I had the opportunity to read the mandates and functions of the NHRCK on the internet and they touched me. The NHRCK web site specifically states that “We are an independent national agency committed to the embodiment of human dignity and worth as well as to the safeguarding of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by protecting and extending the inviol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retained by all individuals.” It also explains that the NHRCK acts independently from other governmental functions, such as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Even when the interests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ies collide, the NHRCK can be expected to be the main actor solving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in an unflinching way.

In order to retrieve the right to meet their own flesh and blood to separated

Koreans, which is a God-given natural right as a citizen and a human being, I sincerely propose to promote the following through initiatives of such prestigious institutions as the NHRCK.

1. Let me propose to form and operate a year-round global council initiated by the NHRCK and joined by willing organizations, both domestic and foreign. My particular suggestion is to make it a permanent entity, an organic pan-people's organization, that will engage in hosting systematic and regular discussions, presenting statements and papers, holding symposiums and forums, distributing letters of petition by visiting UN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reby arousing and awakening global public sentiment favorable to separated families.

Example: NHRCK, Korea Assembly for the Reunion of Ten-Million Separated Families,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orean Red Cross,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n L.A., Consulate General of ROK in L.A., Association of the 5 Northern Korean Provinces in L.A.,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rganizations fo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churches, Schools, Labor unions, etc.

2. Let's submit letters of statement regularly and officially to the UNHCR, which is the substantive human rights and refugee agency, as well as to other organizations of a similar function.
3. Let me propose to plead to, and induce the cooperation, of the world's advanced countries, which are either our allies or friendly to the ROK, so that they may exercise their influence on the issue.
4. Let me propose to formulate and implement effective measures consistently by

dividing or sharing roles amo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deal with each issue. (In this way, areas wher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collide may be addressed).

As stated above, I sincerely propose to form a pan-international organization based in the U.S. and develop it to operate all-year-round, in order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 goals of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We have to ponder that if, in the future, Korea is reunited and our posterity asks what Korea - one of the G20 economic powers - has done, in particular what contributions did our political community and our people make for the ten million separated Koreans, what answer will we give them? Shall we just attribute our inactivity to the political situation? The answer can be made now, by us.

Thank you very muc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isussion 4

China's Return of Defectors to North Korea

Hannah 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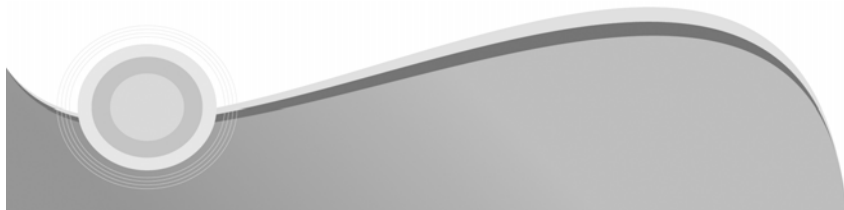
[LINK](#)

China's Return of Defectors to North Korea

Hannah Song
(LINK)



Session II
Policy Suggestions for Advanc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Role of International society)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esenter

**Cure the Darkness or Light a Candle?
Complexiti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David Kang

Director, USC Korea Studies Institute

Cure the Darkness or Light a Candle? Complexiti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David Kang

(Director,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Should those of us concerned with North Korean human rights criticize, raise awareness, and go through a number of mostly symbolic gestures regarding North Korea? Regarding human rights, profound ethical questions face bo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ow do we affec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Should external actors - governments, NGOs, and other groups - work with a regime that is so obviously repugnant in many ways, if doing so can improve the lives of innocent citizens? Or do we isolate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ubject it to external pressure and embarrassment over its human rights record, and not deal with the regime until it changes? Does engaging with the regime support and allow it to continue its deplorable and horrific abuses?

Those advocating pressure including “naming and shaming” and hoping to increase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to reform its human rights abuses, and also on China to increase pressure on North Korea. This also comes unde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norm that appears to justify intervention whenever there is a human rights crisis. Those working to improve humanitarian conditions in North Korea prefer to be quiet, develop long-term and working relations with provincial and other governmental officials inside North Korea, and attempt to affect change on a local scale as much as possible. Those interested in human rights and those interested in humanitarian issues tend to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different

goals, even though they are often considered together as “human rights activists.”

Those on the left may be reluctant to criticize North Korea. Those on the right are happy to criticize North Korea. Both may be silent or vocal less because of any goals towards North Korea but more towards reaffirming prior intellectual predispositions towards the regime: conservatives want yet another reason to dislike the regime, liberals hesitate to criticize it at all. This characterization may be unfair and too broad, but it does reveal some of the complexities in the politics behind approaches towards North Korean human rights.

However, the situation is even more complex: as Suk-young Kim points out:

At first glance, euphoric tourist sites and the brutal hunting of escapees may appear to be unrelated. But once the performance mechanism of producing what is visible and invisible becomes the focal point of analysis, tourism and human rights issues form a coherent dialogue about North Korean propaganda as a process of making a national performance...North Korean escapees, foreign tourists, aid worke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ll bring in competing ideas in an effort to create their version of the “real” representation of North Korea.

In each of these cases, the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are objects onto which are projected competing meanings, images, and narratives. From the activists who send balloons with anti-North Korean pamphlets floating over the DMZ, to refugees and aid workers, to foreign governments such as the U.S. and South Korea, and of cour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self -- each is attempting to perform or symbolically frame the North Korean people to their own ends. Indee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actions of activists, governments, and other organizations as much about affecting external audiences perceptions of North Korea as it is about accurately reflecting the reality inside North Korea.

Kim provides the example of the musical *YodukStory*, written by North Korean defectors to dramatize the horro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performed in the U.S. and South Korea, which ironically utilizes tropes and expressions that mimic

North Korean propaganda film. In both North Korean films and *YodukStory*," both [heroines] transform themselves from victims to rebels when they stand up against their oppressors: the Japanese and the North Korean regime, respectively...both emerge from their silent and subdued gestures and become resolute fighters who stand up to their victimizers by performing the ferocious gesture of resistance... and the tragic iconography of a dispersed family centered on the heart breaking image of a mother suffering through the separation from her children."

Th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will continue whether or no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gages North Korea on some level. Most assuredly the regime will continue to look after its survival first without any consideration for its own citizens.

What does this mean for policies of countries concerned about the North Korea problem? Does engagement or isolation work more readily towards change in North Korea? On the security issue, a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issues, North Korea today is not in the same place as it was ten years ago. Regarding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ose ten years have led both sides to conclude that there is little likelihood for a negotiated solution. The U.S., Sou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chosen a policy of containment and isolation, of pressuring the North Korean regime to make concessions before making any moves of their own. This has been fairly successful in the domestic politics of both the U.S. and South Korea, and there is little indication that either government plans to change its strategy.

Yet the larger North Korean problem involves more than simply the security issue, and the weakest and most vulnerable North Korean people continue to lead a hazardous existence, with near-famine conditions possible each year. The only way to truly solve the hunger issue is to bring North Korea into the world market and help it earn enough abroad through trade so that adequate food can be import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continues to engage in horrific and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has done little to curb those abuses, and

may in fact encourage them. Thus, dealing with the immediate and present economic and social issues in North Korea and interacting with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North Korea may work at cross-purposes to policies designed to pressure North Korea into making concessions 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Even sanctions that are targeted only at the North Korean elite appear to have little impact. The youngest and oldest, weakest and most vulnerable will be most directly affected, not the elites at the top of the hierarchy. As Haggard and Noland conclude, “a coordinated strategy of cutting North Korea off from international assistance woul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gime change...[but] that rests on a highly dubious utilitarian logic: that it is morally acceptable to sacrifice the innocent today in the uncertain probability that lives will be saved or improved at some future point.”

And thus, North Korea presents no easy solutions for policymakers, activists, and NGOs in Seoul, Washington, and other capitals, but rather a series of difficult tradeoffs: engagement of some type may have an impact on the current economic and humanitarian issues, but some fear this will reward the regime for its international behavior. Containment is an obvious response to belligerent North Korean foreign policy behavior, but it is not clear that North Korea will back down to pressure, and it probably exacerbates difficulties for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For outside powers, there is the difficult task of crafting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that recognize the interworkings of North Korea itself and to manage the trade-offs across issue spaces of engagement and pressure.

Kim, *IllusiveUtopias*,p.262.

Kim, *IllusiveUtopias*,p.299.

Haggard and Noland, *FamineinNorthKorea*,p.230.

Also means that China is increasingly getting 'inside' North Korea hereas the U.S. and ROK are not

While others worry about the danger of getting burned in domestic politic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iscussion 1

Ways to Apply UN Mechanism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ys to Apply UN Mechanism

David Hawk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re are five aspects of the UN human rights system that are worth looking at in terms of their applicability to the widespread, systematic and severe violations in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review and recommendation proces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solutions at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the “Special Procedures” under the jurisdiction o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a “Commission of Inquiry.”

1. The Conventions Review Process and Recommendations

The DPRK has ratified fou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women’s rights treaty. Like most of the UN multilateral human rights treaties, these conventions have expert review committees. States parties to these treaties, submit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taken to implement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at treaty. The review committees (in UN parlance termed “treaty bodies”) then make recommendations to the State Party on policies that may be incompatible with the treaty commitments and steps that should be taken to improve implementation. North Korea did submit implementation reports to the four review committees. And the

review committees made scores of recommendations to the DPRK on measures to better comply with its treaty obligations, and the steps North Korea should take to improve human rights.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e treaty review committee's recommendations is that, if taken together, they amount to a "UN roadmap for human rights improvements in North Korea." No one has to sit down and make a list of what North Korea should do to improve its human rights situation. The UN has already done that, in the course of procedures that the DPRK, in fact, cooperated with.

Now, if there is ever to be any sort of "human rights dialogue" with North Korean officials, these recommendations would be the best thing to discuss, as the DPRK has formally accepted the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set forth in those conventions. But there is no 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DPRK. North Korea refuses to talk to UN human rights officials. Most countries want to talk with the DPRK about security issues. Some participants in the Six Party Talks, say they will talk to the North Koreans about human rights if the denuclearization talks makes enough progress. But those negotiations always break down before getting to human rights considerations. Further, there is no security and cooperation mechanism for Northeast Asia, which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onsiderations could be included. And the un-conditional "sunshiners" in South Korea previously insisted to postpone raising human rights concerns with the North Koreans for another 20 or 30 years, in hopes that some of the human rights issues will go away of their own accord.

More immediately, the DPRK has not submitted any further reports to the UN treaty bodies, which they are supposed to be doing, because the North Koreans would be asked if they implemented any of the previously offered recommendations.

2.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n a relatively recent arrangemen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reviews on a rotating three year's basi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all UN Member States. The diplomatic representatives come to Geneva and make statements about human rights in their country. The other UN Member States then make oral and written recommendations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At the following session of the Council, several months later, the Member State under review is supposed to announce to the Council which of the recommendations it accepts. In December of 2009, the DPRK made its pronouncements.* The other Member States, including non-hostile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made their recommendations to North Korea. But at the next session of the Council in early 2010, the DPRK bluntly refused to accept any of the recommendations made to it by their fellow Member States. To my knowledge, North Korea is the only Member State to have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completion (and most important part) of the UN human rights process known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3.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s a subsidiary organ of the General Assembly (GA) composed of 47 UN Member States that meets several times a year in Geneva. At the Council, beginning in 2003, and the UN General Assembly, starting in 2005, these UN meetings of Member States annually consider and annually pass, by overwhelming margins, resolutions recognizing a listing of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It is only a very small number of worst case violator Member States that are singled out for such explicit criticism.) While the resolution's primary sponsors are th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North Korea charges that these resolutions are the hostile intent of US imperialism to slander its dignified social

system. Every year an increasing number of UN Member States vote to support the Council and GA resolutions, reflecting the DPRK's growing isolation from the trend and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create a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ho submits reports annually to the Council and the GA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There have been two Special Rapporteurs, the first was a Thai professor of international and constitutional law who has had many assignments for the UN. The second (and current) rapporteur is the former Attorney General of Indonesia. Both would have been excellent interlocutors with North Korea, but the DPRK adamantly refuses to cooperate (i.e. talk to them seriously.) The Council resolution also calls for North Korea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the UN High Commission for Human Rights, the UN's highest level human rights official. But North Korea also refuses to cooperate the High Commissioner.*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lso mandates the UN Secretary-General (S-G) to report annually to the GA, on the full extent of United Nations interaction and involvement with North Korea. (These reports are very much worth reading as they summarize the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concomitant sanctions in response to DPRK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other provocations such as attacks on South Korea. The S-G's reports on the evolving UN programs inside North Korea by the UN Development Program (UNDP) and the UN humanitarian relief agencies such as the World Food Program (WFP), UNICEF, UNFPA, FAO etc., as well North Korea's non-cooperation with the GA, Human Rights Council, and UN human rights agencies.)

4. The UN "Special Procedures" Initiative

In September 2011, over 40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and the Paris-based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other NGOs from Asia and Latin America, gathered in Tokyo to form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ICNK is undertaking two related efforts to seek international recognition that the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The first is to seek a joint report from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a number of what are called “special procedures” and “thematic rapporteurs:” UN Human Rights Council appointed experts who examine and report to the Council on a variety of phenomena of repression across nation-state lines. To this end, on April 2, a “Petition for Relief” regarding “The Situation of Detainees in the Gulag System (*Kwanliso*) of the DPRK” was submitted to the WGAD, the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the Special Rapporteur’s on extra-judicial execution, torture, human rights defender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highest obtainable standards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ll of these violations are readily apparent in the North Korean prison camp system, discussed earlier. So the prison camp situation falls within the mandate of all of these different UN “special procedures.” And the hope is that rather than addressing the DPRK violations piecemeal in 10 separate reports, the relevant concerns of each of the “special procedures” can be consolidated into a comprehensive document that would recognize the multiplicity or breath as well as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s in the North Korean prison camp system.

There is some precedent in that, previously, several rapporteurs combined to prepare a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USA’s “war on terror” detention facilities in Guantanamo Bay.

5. A Commission of Inquiry?

The international NGO coalition noted above is also seeking the empanelling under UN auspices of a commission of inquiry or group of experts mandated to undertake a preliminary examination i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constitute grave breach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itarian or criminal law. Such commissions or panels have been previously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former Yugoslavia, Rwanda, Cambodia, Somalia, Lebanon, Sri Lanka,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for example. In some instances, the preliminary or *prima facie* findings that criminal violations have taken place has led to the convening of *ad hoc* international tribunals. In other instances, it could led to a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ough that would be extremely unlikely in North Korea's case, as China would almost certainly veto any such referral by the UN Security Council.

Commissions of inquiry are created when UN Member States request, via a resolution at the Security Council (SC), General Assembly (GA) or Human Rights Council, the Secretary General or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create such a panel. An geographically balanced team of international lawyers, operati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 then undertake an investigation into such grave breaches of international law, as may have taken place. The expert panel then reports back its findings to the SC, GA or Council, usually along with recommendations as to the steps that should be 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such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s have been assessed.

In the case of the DPRK, a provision requesting the S-G, or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empanel a commission of inquiry could, if the UN Member States agree, be inserted in the human rights resolutions at the GA or Human Rights Council.

It is the carefully considered judgment of the mainstream human rights NGOs, and virtually all legal scholars and jurists who have examined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that the *kwanliso* political labor camp system, in its entirety, would be found to be a clear and massive crime against humanity, as would, in my opinion, the severe punishments and mistreatments of North Koreans who have been forcibly repatriated from China.

Such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many of us believe, in the long run, encourag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realize that the prison labor camps are an international concern that they cannot avoid to resolve.

6. Conclusion.

Of course it remains the case that we live in a world of sovereign states. North Korea's agricultural and industrial economy may have substantially collapsed. But the organs of state power remain very much in place. The DPRK absolutely controls the territory and popu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of the 38th parallel.

It can be hoped that, if and when the DPRK undertakes economic and political modernization (some version of "reform and opening")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will be part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However, North Korea's present course is often described as "reform in reverse", "socialist neo-conservatism" or "neo-Juche revivalism".

In the present situation,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is limited. But what it can do, through the considered mechanisms and procedures outlined above, is to indicate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e norms, standards, and thinking of the modern world - to the extent that North Korea should care to join it.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iscussion 2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avid Austin
Mercy Corps

Food Security & Human Rights

David Austin

(Mercy Corps)

Over the past year, Mercy Corps, along with four other colleague US NGOs, has focused its efforts on the deteriorating food security situation in the DPR-Korea. Over the past 18 months Mercy Corps team members have taken five trips to the country, visiting 6 provinces, and collated the USNGO Food Security Assessment in February, 2010 that later became a touchstone in the ensuing debate about food aid. For that reason, Mercy Corps has elected to discuss in this paper its own experience over the last year and a half, and its reasons for advocating for a policy of humanitarian engagement.

1. Food as a Human Right:

Food as a human right is simply the recognition of Maslow's hierarchy of needs that without food, a person will soon die. Because food is fundamental to sustaining life, the ability to access food is considered natural, normal and right.

It may seem absurd to some that there exists a need to codify the obvious but because of lack of clarity during crises, the Human Right of access to food has been codified in modern time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f 1948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well as many

national constitutions.

Food as a human right means that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be able to access food to stay alive. When either food or the access to food (such as the ability to migrate) is denied, then there is a humanitarian problem. It is therefore quite appropriate that a panel discuss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e the issue of access to food; because when a population is bereft of food, a basic human right has been impinged.

After a person (or community) has secured access to water, food, and shelter, is it then reasonable to consider the higher values and responsibilities for life: friendship, community-responsibility, morality, creativity, respect, equality, problem solving and other rights. Such values can only effectively be pursued after one has secured the primary, necessary and basic resources for staying alive.

Further, when one sees a child suffer from hunger, there is a natural empathy that often motivates action or intervention to alleviate the visible suffering of an innocent. This action has been recognized and honored across all cultures; and in many cases such action is spiritualized by the great religions who teach specifically to *feed the hungry* as a necessary command. “When you did it to the least of these, you did it unto me.” This common principle spiritualizes the work of administering health to the sick, food to the hungry, and help to the needy.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Right to adequate food is a human right, inherent in all people, to have regular, permanent and unrestricted access, either directly or by means of financial purchases,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dequate and sufficient food corresponding to the cultural traditions of people to which the consumer belongs, and which ensures a physical and mental, individual and collective fulfilling and dignified life free of fear.*

The question that beguiles the debate today is what i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outside a community to those in a community where food is scarce and/or unattainable? This answer is easy when the community in need is politically close or economically relevant. It becomes complicated when there are political boundaries attached to the humanitarian imperative, which is the current case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2. The situation in DPRK Today:

There is little question today that North Korea has a food crisis. Five US NGOs, Four UN Agencies, the European Community and even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all conducted food assessment in the past fifteen months that have each found widespread, chronic malnutrition, with multiple instances of severe and acute malnutrition (a condition that without intervention immediately precedes death). As former US Ambassador Steven Bosworth noted in December, 2011, "There are clear segments of the population, particularly elderly people and children for whom increased food aid would be very, very appropriate. My sense is that malnutrition remains at an alarmingly high level."

I have seen this condition first hand on many occasions in North Korea over the past year: starving children lined up in hospitals or baby-homes, elderly couples with empty cupboards, and hungry families scavenging for grain in frozen fields or wild grasses on empty hillsides.

There is no longer a debate about the need of the hungry in DPRK, it is well known that a significant population in North Korea is chronically malnourished, with many of them falling into acute stages that lead to death. The government in North Korea has recognized that there is a problem, and that they will not be able to meet the need, and therefore have allowed humanitarian organizations the opportunity to

try and meet it.

There is likewise not a question about whether a humanitarian assistance program for food can reach those who need it. The World Food Program (WFP) has been implementing a food aid program (albeit a significantly underfunded one) in North Korea for the past year, without any incidents of diversion. To their credit, the WFP had negotiated a rigorous monitoring protocol for their program to help insure that the transport and delivery of food was well documented each step of the way. In addition to monitoring anywhere along their distribution chain (with 24 hour notice by WFP employed Korean speaking monitors), the WFP also includes the nutritional monitoring (collecting anthropometric data such as height/weight/age) of their beneficiaries. They also have access to the private and public markets to insure their food is not being resold. These are some of the most thorough monitoring standards conducted anywhere.

It is important to recall that the people in question - as recently noted by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Spokesman Tommy Vietor - are “millions of innocent, starving people.” These are the children in orphanages, the chronically ill, the elderly, and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who reside outside of Pyongyang. During my last visit in March, 2012, the children in the orphanages in South and North Hwanghae Provinces were receiving only 60% of the normal ration of grain, and had not had protein in their diet since January. Some had received vegetable oil from the WFP in February, but were obviously suffering from chronic malnutrition.

There are three options to this predicament: engage the people with a humanitarian response, ignore the people and their government, or isolate the regime. Each option comes with its own measure of risk and reward.

Engagement in this case requires a large scale effort to meet the need of the most

vulnerable. This is what was proposed by the USNGOS and WFP to the US administration last year. The “food” that was proposed was a nutrition based product called Corn-Soy Blend (CSB) which, as its name suggests, is a blend of dried corn and soy beans, fortified with vitamins, minerals and a little vegetable oil. To eat CSB it must be boiled and served like porridge. Because of the added oil it has a short shelf life of less than 6 months, and it cannot be easily reconstituted into another type of food. It would be called “gruel” by most westerners. It may not be tasty, but it is nutritionally balanced and it can save lives.

None of the proposed food was rice (nor scotch and lobster, as some reporters joked during press briefings at the State Department). The recently cancelled food program wa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a starving population. All of the food would have come in bags imprinted with a US flag and the statement (in Korean, of course) “A free gift from the American People.”

Second, and also equally important, the proposed food program (as agreed to by the North Koreans) included 90 international monitors with up to 2/3 of them Korean-speakers. The WFP was to receive 45 additional monitors and the USNGOS would have had the other 45. This is nearly three times as many as were allowed in the last US-funded program in 2008/2009. Like the WFP protocol for monitoring standards, the US monitors would have 24 access to any spot along the distribution chain, including households and the monitors could collect anthropometric data on the beneficiaries. For a country that is traditionally as reserved and isolated as the DPR-Korea, this was a very invasive and aggressive program.

Finally, this program would have created an incredible opportunity for US citizens (most of them Korean speakers) to live and work in North Korea with tremendous access to the people of the country. The monitors would serve a dual role of administering a food-program as well as serving as goodwill ambassadors to a

people who have received very limited information on the United States. Sending some of “best, brightest and most compassionate” Americans to live, work, administer and engage in North Korea, would have been a diplomatic achievement heretofore unknown in the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nother option is to actively isolate the regime, cancel the food program, seek additional sanctions, etc. These actions likely will accomplish much of the same that has been witnessed over the past many years: very little. Isolating the regime and disengaging from the humanitarian opportunity may appear justifiable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run, what is accomplished? How will history judge a policy of abandoning the weak? The people who are being harmed under the policy of isolation are those who are already suffering. They are powerless within their own country (one of the reasons they suffer now) and have no capacity or means available to improve their condition.

What is the goal of isolation? The outcomes of this policy have not been articulated nor questioned. One could suppose that the goal is to compel the regime to change, but this has not generally been the case. Historically, isolation has not lead to empowerment of the weak, but rather the contraction of power into fewer hands. South Africa, China and other countries have not changed because of isolation, but have changed when encountered with a policy of strategic engagement. A long-term historical position of isol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t produced political progress or improved conditions for the hungry in North Korea, nor stability for the region. Arguably, it has actually done the opposite.

Equally dangerous to a policy of isolation is a policy to simply ignore the DPRK. The US administration’s previously stated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quite similar to “ignore”) does not work with the starving as the result is simply death. Hunger does not cure itself, it subsides only after it consumes the hungry, or there is an

intervention to feed them.

When governments strategic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ROK) have chosen to ignore the North, the results have demonstrably proven none better.

Mercy Corps, like our colleague agencies who also work in DPRK, take the position that peaceful progress will occur when we seek to alleviate the sufferings of the hungry, the poor and oppressed. Such intervention requires a policy of responsible engagement until the day that the people can take control and responsibility of their own condition. To ignore or isolate members of the human family based on the actions of a limited few, is collective punishment that breeds further and unnecessary suffer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iscussion 3

The Role of INGOs

Lynn Lee
NED

The Role of INGOs

Lynn Lee
(NE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iscussion 4

The Role of Koreans Overseas

-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m -

Gi-Wook Shin
Stanford Univ.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m

Gi-Wook Shin
(Stanford Univ.)

In recent years, Korean American students have been very active in raising aware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dependent university-based student groups as well as nation-wide NGOs have joined in the movement to promote aware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in the U.S. and even provided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suffering inside China.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 American students spend their summer in Korea interning at NGO groups working on behalf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these activities,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m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steadily deepened its roots in America. This essay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m that focus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the U.S., the average citizen is more familiar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or its tyrannical dictator. Few are aware of the human rights crisis, and even fewer will be aware of the perilous day-to-day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my study of U.S. media coverage of North Korea, about 2/3 of the news articles focus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ess than 10% of the news coverage involves humanitarian or human rights issues in the isolated regim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there have been some books dealing with the harrowing story of North Korean prisoners—the most recent is Blaine Harden's *Escape from*

Camp 14 .Still, North Korean human rights remains a deeply under represented issue in America, prompting student activists to hold awareness -raising events. They hope that more individuals will take part in the movement to better promote and protect North Korean human rights.

Perhaps the best known example of Korean American activism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a California-based North Korean human rights NGO known as Liberty in North Korea, or LiNK. The first of its kind in America, LiNK was founded by two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ts in 2004.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ts throughout the U.S. lead many of LiNK's college campus chapters and assist the NGO in its fundraising and awareness campaigns. As well as engaging in advocacy, LiNK participates in on-the-ground rescue work, with trained members entering China to assist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pursuit of safety.

There has also been a wide array of Korean American activism in the form of small-scale, independent, student-group-initiated activities. The most common form of this sort of activism is raising awareness. Korean American students have helped to raise awareness in a variety of ways ranging from movie screenings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to speaker events involving North Korean defector guests. Not only are these student-organized events gaining popularity among student bodies on the whole, but they are also generating steady interest within the larger surrounding communities.

Let me illustrate this sort of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m with the example of Stanford University. At Stanford, a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ference took place from April 5th to April 7th this year. It took about three month stop lan, a swell as support from a number of donors, including our center. Two North Korean youth defectors came to Stanford from South Korea. The first was Paek Yo sep ,a former soldier in the North Korean army who spent six years on the run before he was

finally granted refugee status in Germany. The second was Eun A Park, a survivor of human trafficking who lived in China with her mother and her Chinese father for three years before reaching South Korea. Both came to tell their stories and spread awareness about the stat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aim of the conference was not only to raise aware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but to do so in a way that was respectful and empowering for the defectors. Stanford KSA partnered up with Residential Education, and on the first and third days of the conference, the two organizations brought the defectors to different dormitories on campus. At each dorm, defectors had conversations with a group of fifteen or so students. With the help of a translator, they were able to communicate relatively freely with the Stanford students and tell them about their experiences in North Korea and in China. The defectors had questions of their own: they asked about the students' experiences at Stanford, and what American culture was like. The small-group events created an intimate setting for Stanford students to interact with the defectors on an equal footing. Student organizers hoped that the small-group events would humanize and empower the defectors, portraying them as survivors with resilient will. They also organized a public event that more than 200 people attended.

However, their activities were not confined to campus. The Stanford KSA students and their North Korean defector guests traveled to Google to discuss the plight and hardship faced by North Koreans during the defection process, and the potential role that technology and the Internet can play in promot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uch corporate partnerships and awareness-raising events can lead to valuable progress. For example, Google has invited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ir global leadership conference to be held later this year. Korean American students also worked with the Northern California branch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o hold another event.

Another form of activism that Korean American students have commonly engaged

in is fundraising. Since actively going into China to rescue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most student activists, many choose to financially support NGOs that do such work. For example, Korean American activists at Princeton have formed a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ent group that hosts fundraising events to assist a South Korean NGO that directly rescues defectors from China. Fundraising events have taken a variety of forms, from conventional food sales to more attention-grabbing events such as hunger strikes. Recently at Harvard,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ts chose to fast for 31 hours in protest of China's decision to forcefully repatriate 31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seek sponsors for their 31 hours of fasting in order to raise funds for the cause.

At times, those Korean Americans who are particularly passionate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engage in internships at North Korean Human Rights NGOs based in South Korea. At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for instance, the majority of the interns are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from universities such as Harvard, Princeton,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n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Those students hop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dedicate their summer to making a positive difference, whether it be in the form of research assistance, organizing awareness-raising events or protests, or aiding the re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the larger South Korean society.

Korean American student activis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still small scale, somewhat isolated, and limited in scope. Howe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continue to draw attention among Korean American students, and there is hope that they can help not only in raising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North but also in eventually improving the plight of many oppressed and struggling North Koreans inside and outside of the regime.



Appendix

Major Examples of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 Political Prisoner Camp
- Reformation Camp
- Other Confinement Facilities
- Prisoners of War, Abductees, Separated Families

Major Examples of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Political Prisoner Camp

▣ Yodeok Political Prisoner Camp

1. Summary of Report

A. Reception Date

- March 15, 2011

B. Reported by

- Gwang-il Jeong

C. Victims

- 187 people including the reporter

D. Assailant

- Head of National Security and Integrity Department ○○○, head of the 15th

camp (head of Yodeok Political Prisoner Camp) and the integrity agent in charge ○○○

E. Substance of Report

- People were put in Yodeok Camp without going through legal procedures and his human rights were violated

2. Details of Report

A. Date and Location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 Yodeok Political Prisoner Camp from April 6, 2000 to his discharge on April 12, 2003

B. Details of Human Rights Violations

(1) Forced Disappearance and Deportation

The victims were taken in on suspicions of espionage on July 22, 1999, and they falsely admitted espionage charges in March 2000 after severe torture and confinement for seven months in the underground prison of the integrity department, and afterwards sent to the Revolutionizing Zone for Singles in Seorimcheon on April 6, 2000 without a trial.

(2) Deportation (History and Members of the Camp, Daily Life)

- (A) The revolutionizing zone of Yoseok Political Prisoner Camp was originally located in Baeksan, Daesuk-ri, Yodeok-gun, however, this zone was closed down in October 1999 due to testaments made by Cheol-hwan Kang and Hyeok Ahn. Some political prisoners were sent to a completely controlled zone and the rest were released. In November 1999, they established a new

revolutionizing zone in nearby Seorimcheon and started to confine political prisoners there. Most of the prisoners were those related to major cases in North Korea, students who studied in Germany or China and criticized the system, and revolutionaries who spoke out. The person who reported this was in the New Prisoner group between April 6 to the end of April, 2000, assigned to the Construction Unit from May to September 2000, appointed as the head of Squad 1 of Work Unit 2 (Agriculture) from October 2000 to June 2002, worked as a member of Squad 1 of Work Unit (Agriculture) between July to September 2002, and worked as the head of Squad 4 of Work Unit 1 from October 2002 until April 2003 when he was finally released. Each Squad was comprised of 25-40 people and each squad was divided into three sub-squads and they had to do everything together under the management of the head of the squad (even use the bathroom together), and the surveillance system was quite strict that they had to report to the guards when a person is not seen for 15 minutes (the system was so strict that everyone had to go to the bathroom together).

(B) There were 187 political prisoners who was with the reporter in the Yodeok Camp as listed in the attached paper.

The daily routine at the camp is as follows.

| | |
|-----------------------------|--------------------|
| 04:00(Summer)/05:00(Winter) | Rise |
| 05:30-07:00 | Early Work |
| 07:00-07:30 | Breakfast |
| 08:00-12:00 | Morning Work |
| 12:00-13:00 | Lunch |
| 13:00-20:00 | Evening Work |
| 20:00-21:00 | Supper |
| 21:00-22:00 | Political Learning |
| 23:00 | Sleep |

(3) Persecution and Slavery, Inhumane Behavior (Living Environment including Meals and Compulsory Labor)

- (A) The breakfast consisted of a bowl of corn and soy beans and a bowl of dried radish green soup. They taught “10 Principles in Establishing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during the political learning session and did not let the prisoners go to sleep if they did not memorize what they learned.
- (B) Prisoners were required to weed 1,157m² and mow 800kg a day, which is difficult even for even the healthiest people. Since most prisoners were physically weak, not many of them could fulfill the daily workload. When the prisoner failed to fulfill the daily workload, they receive less meals such as 50% less volume of meals for 50% less accomplishment of the workload, and only a few prisoners were able to receive the 600g meal by fulfilling their quota. As a result, many people died of malnutrition.
- (C) The toughest work was cutting down logs and dragging it down the hill with a steel chain in the winter. Prisoners were ordered to drag down a log 30cm in diameter, 4m or longer in length for 4km four times a day. Since the work was done on mountainous paths, it was accompanied with many accidents. Those who could not fulfill the day's workload due to injuries they suffered while dragging the logs received less meals and many of them died of malnutrition. They include ○○ Song, ○○ Cha, ○○ Kim, and more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of victims.
- (D) When the corn farming season begins in April, they mix the corn seeds with feces and plant them so that prisoners will not be able to steal and eat them, and hungry prisoners like ○○ Park, who stole the seeds, cleaned them with water, ate them, and died of colitis. While placing feces on the corn, they tell prisoners to use their bowl for eating to scoop up the feces and sprinkle them on the corn resulting in prisoners being covered with feces after work.

(4) Inhumane Behavior

- (A) The agents of the camp's integrity department have no regard for the death of prisoners and some of them even feel pleasure from the pain of prisoners. In the winter, they made prisoners tie wood with a chain and drag it down for 4km, racing for a piece of corn cake at the dock. Many prisoners fell off the cliff while hustling and jostling on the way, and the integrity department agents considered this as a spectacle or entertainment. Also, they sent prisoners they did not like to difficult work where it is impossible to fulfill the day's workload in order to reduce the food ration and thus "legally" starving them to death. Yodeok camp is where the rule of the jungle prevails and the "father steals the son's food." There was actually a father and a son, and the name of the son whose father stole his food was ○○ Kim.
- (B) When a prisoner dies, they put the body in the coffin coarsely made with boards and bury it with no signs so they do not know where the body was buried in just a year.

(5) Murder

On August 28, 2001, ○○ Choi (47) became extremely hungry while weeding that he deviated from his working group to find and eat wild fruits, but the watchers considered him as a runaway and executed him openly by a firing squad. On March 5, 2003, ○○ Kim (37) was captured while running away and was also executed openly by a firing squad. ○○ Kim was severely ravaged by search dogs and was already half dead. The reporter saw the execution about 10m away, and Kim did not move at all when he was shot because he had already lost too much blood. Only his skull was split open.

C. Release and Departure to South Korea

The reporter was released from Yodeok Camp on April 12, 2003, escaped from

North Korea on April 30, 2003, and came to South Korea on April 22, 2004. However, he has nightmares of being taken to Yodeok Camp every night even after coming to South Korea that he cannot sleep without drinking alcohol.

3. Evidences, Etc.

- Reporter's statement
- Statement of ○○ Kim and ○○ Lee who were with the reporter in the camp and escaped North Korea and came to South Korea

4. Related Regulations

- Article 6 (Right to Life),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Article 8 (Prohibition of Slavery), Article 9 (Personal Liberty), Article 10 (Respect of Dignity),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Article 14 (Right to Trial), Article 17 (Freedom of Privacy), Article 23 (Family Right), Article 24 (Right to Move), and Article 26 (Equal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Article 7 (Right to Work), Article 10 (Family Right), Article 13 (Right to Education), and Article 15 (Right to Culture)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Article 7.1 (Inhumane Crime) (a) Murder, (c) Slavery, (d) Deportation, (e) Confinement in Breach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Other Serious Deprivations of Physical Freedom, (f) Torture, (h) Persecution, (i) Forced Disappearance, and (k) Inhumane Act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rticle 10 (Personal Integrity Right), Article 12 (Personal Right), Article 13.3 (Prohibition of Guilt-By-Association), Article 14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rticle 23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rticle 27 (Right to Fair Trial), Article 31 (Right to Education), and Article 36 (Family Right) of the Constitution

■ Bukchang Political Prisoner Camp

1. Summary of Report

A. Reception Date

- March 6, 2012

B. Reported by

- ○ ○ ○

C. Victim

- Reporter
- Mother ○ ○ ○

D. Assailant

- Head of the 18th Camp (Bukchang Camp) ○ ○ ○, Advisor in Charge ○ ○ ○

E. Substance of Report

- Confined people to the political prisoner camp without going through legal procedures depriving them of their fundamental rights

2. Details of Report

A. Date and Loc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 Taken to the 18th Bukchang camp (mine) in ○ ○ ○, 1977 and released on ○ ○ ○, 1984

B. Details of Human Rights Violation

(1) Deportation and Forced Disappearance

- (A) The reporter's family lived in Pyeongyang, but his father was disliked by his boss at work (deputy head of the bureau) because he did not give bribes and his boss deported his father and the entire family including his mother and brothers and sisters to the 18th camp saying that his father was influenced by capitalism and materialism and therefore does not deserve to live in Pyeongyang, carping at five absences in political lectures. At the time, the reporter was in the 2nd year of a middle school (12 years old).
- (B) The 18th camp belongs to the 7th Bureau (Construc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ocated in Seoksan-ri, Bukchang-gun, Pyeongannam-do, and shares borders the 14th Gaecheon camp. When the reporter was taken to the camp, the camp had 200,000 people (at briefings prepared at a gathering for the birthday of Il-sung Kim or Jeong-il Kim, they always shouted, "This is our pledge of loyalty prepared by 200,000 laborers of Deukjang Mine · Bukchang Camp"). Prisoners included those related with the Sineuiju Student Riot in 1946, families of those who defected to South Korea and remained in South Korea before the Korean War such as Gaeseong, and 1,000 households of those who defected to South Korea taken from the coastal area and Baecheon of Hwanghae-do in 1979. The reporter did not see any barbed wire around the 18th camp but saw a 3m wide ditch covered with thorns that were dugged around the borderlines. The patrol guards always carried guns. When people show up at work (mine) every morning by 07:30, they checked the number of workers and if any one was missing, they checked the homes and if the whereabouts were unknown they set off an emergency alarm to trace the entire camp. When the runaway was caught, he or she was openly executed by a firing squad. When men reached 30 and women 28, they were allowed to marry.

(C) Prisoners were comprised of those who were subjected to life time confinement, namely immigrants (90% or higher), and residents who could be released after the revolutionizing period and the management staff. Immigrants and residents went through similar loads of difficulties but they were differentiated by class (as some of residents were party members) that the residents lived on flat grounds while immigrants lived on hilly areas and these two groups did not marry each other. Among immigrants, there was a beautiful woman (there were many famous actors from Pyeongyang among prisoners) who went to Pyeongyang University of Music and Dance who was a daughter of the Deputy Director of Technology of the Pyeongyang Red Cross Hospital (he operated on an anti-Japanese fighter but the result was bad and the anti-Japanese fighter died, and was branded as a reactionary and was taken to the camp), and a resident who fell in love with this woman gave up his party membership in order to marry her and moved to the immigrant's village. The management staff is comprised of a few number of managers operating the camp and they are security agents, integrity agents, teachers, heads of camp, administrative agents and their families.

(2) Persecution

(A) Starving

Food was rationed once every 15 days and each ration was not enough for one week. In other words, the ration divided into one day was much lower than the standard 300g of rice (10% unglutinous rice and 90% mixed grains), there were no side dishes, 4kg of salt was provided a year, and 1kg of soybean sauce was provided sometimes on the birthday of Il-sung Kim. The rest had to be self-provided by the prisoners and they always suffered from starvation. They took everything they see to their mouths but did not even have the strength to pick wild herbs.

(B) Residence and Clothes

The ceiling was made of woven bush clovers and the wall was made with bush clovers and mud, and the floor was prepared with lime and mud and covered with cement wrapping. Similar to the shape of the harmonica, eight households lived in one house, and the reporter's family made up of parents and five siblings lived in a single room. For heating, they carried coal from the mine individually and burned it. No clothes were provided so they all wore the same clothes they wore when they were taken in by mending them whenever they needed.

(3) Slavery · Compulsory Labor and Rape

(A) The reporter entered senior middle school inside the camp as a 2nd year student in November 1977 and graduated in July 1981. However, all he learned in school was the recitation of the revolutionary history, the words of Il-sung Kim and Jeong-il Kim every day (they did not send the student home if they could not memorize) and in the rest of the time, they were mobilized for labor. They thoroughly trained students to assemble and disassemble like soldiers. When there was nothing to do, they ordered students to pull down a stone wall around the school and rebuild so that they would not have the chance to rest. When a student was considered to not have followed orders properly such as lining up straight, they beat the student or had other students (40 students in 1 class) beat the student, or had the student run 100 laps around the school grounds.

The teacher was not someone who had a teacher's license but the children of the managing staff (labor section chief, transportation section chief, labor advisor, etc.) and many of them were ignorant.

(B) The reporter started to work as coal miner around August 1981 when he was 16 in 'Galgol Gallery' (the 18th camp had 20-30 galleries like this). His job was to work on a heavy machine around October 1982, and then worked as an

automobile mechanic for three months. He was then selected as a member of the stormers and worked in the cement factory until January 1984 when he was released. The coal miner's work was the toughest. As a coal miner, he had to show up (arrive) at the mine by 07:30, listen to instructions until 08:00 or 08:30, travel four hours into the gallery and arrive at the blind end around 12:00, eat lunch immediately, start mining coal 30 minutes afterwards until 4 p.m., and travel 4 hours again to the outside. Workers usually did not fulfill the workload for the day, so he did additional works such as cutting logs and dragging them down the hill from 8 p.m. after supper until 1-2 a.m. He frequently was unable to return home and instead slept in the site and returned to the mine and started the next day's work. In other words, the work hours for one day was never eight hours, but in fact 12 to 18 hours. Accidents were frequently at one or two accidents a week and commonly involved deaths and injuries.

- (C) The members of the management staff were called "sirs" and always received the best treatment and they used the people inside the region and immigrants as their servants or slaves. The prisoners of the camp, especially 90% of the immigrants were widows and daughters of political prisoners, and some of the management staff used them as their sexual toys or raped them regularly.
- (D) There was a correctional camp inside the political prisoner camp to confine those who did not followed the rules of the political prisoner camp or the orders of the management staff for one to two years after shaving their hair. And since they do not provide food properly while imposing severe labor, many people die in the middle or after the period.

(4) Murder

- (A) The reporter's father who lived in China was taken to the 18th camp and lived with the family including the reporter. Around May 1981, he said, 'I came to

Korea for nothing. I miss my parents and siblings in China' while talking to his peers and someone reported him to the authorities. The next day he was shackled by an integrity department agency while going to work, taken by car, and was never heard from then.

(B) They hold open executions almost once every three months near the side of Daedong River beside 'Simsan School'. When there are many people to execute, they executed five at a time, and in normal times, they executed two at a time. Most of the people executed were those that ran away or committed an act against North Korea. After executing by fire squad, they rolled up the corpses in the straw mats, put them in a car, and buried them somewhere.

C. Released in 1984, escaped North Korea in 1998, and came to South Korea in 2008.

3. Evidences

- Statement of reporter
- Statement of ○○○, a North Korean defector who was also in the same camp

Reformation Camp

▣ Jeongeori Reformation Camp

1. Summary of Report

A. Report Date

- May 27, 2011

B. Reported by

- Gang-il Kim (M)

C. Victim

- Reporter

D. Assailant

- Preliminary Judge ○○○ of the detention house of the Preliminaries Division of People's Security Office of Hoeryeong-si, Hamgyeongbuk-do of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 Hamgyeongbuk-do People's Court Judge ○○○, representative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Hamgyeongbuk-do (people's assessor) ○○○, ○○○, prosecutor ○○○ of the Prosecutor's Office of Hoeryeong-si, Hamgyeongbuk-do of the Central Prosecutor's Office, People's Court Lawyer ○○○ of Hoeryeong-si, Hamgyeongbuk-do of the Central Court
- Major General (Colonel) ○○○ of the 12th Reformation Camp (also known as Jeongeori Reformation Camp) of the Reform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ead of Political Department ○○○, Reformation Section Chief ○○○, Section Chief of Section 1 or 5 ○○○ and Secretaries ○○○

E. Substance of Report

- The reporter was falsely imprisoned for illegal smuggling, tortured in a detention house, sentenced to six years of imprisonment, starved in the reformation camp while exploited in compulsory labor. During the said courses, the reporter's human rights were seriously infringed upon.

2. Details of Report

A. Date and Loc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 Detention house from July 8, 2004 to September 21, 2004
- Trial on September 11, 2004
- Reformation office from September 22, 2004 to February 6, 2007

B. Details of Human Rights Violation

(1) Human Rights Violation in Detention House

(A) Torture

The reporter made a living by selling copper and other items he collected in North Korea to China and was taken to the detention house of the People's Security Office of Hoeryeong-si on July 8, 2004 without an arrest warrant on the charge of 'illegal smuggling without the permit from the army'.

At the detention house, preliminary judges beat him indiscriminately for he did not confess as they wanted, cuffed him to bars in the jail in a way that he could neither sit nor stand until he fainted. His two hands were tied to a radiator above his shoulders (this makes the chest protrude like a pigeon and is also called the

'pigeon torture'). His two feet were also tied tightly making him sit on his knees and then beat him ruthlessly with everything they could get their hands on such as a chair, club, weapon cleaner, and belt. The reporter eventually vomited blood and fainted. Also, the reporter was tortured in various ways at the detention house such as 'Flying Jet' (standing on one foot, holding up the other foot to the back, and holding up the arms like the wings of an airplane for a long time), 'Motorcycle' (standing in the motorcycle riding position for a long time, holding up two arms forward and slightly bending the knees, neither standing nor sitting), and 'Pumping' (repeatedly sitting down and standing up hundreds of times as if pumping up a tire with a manual pump).

(B) Inhumane Act

For each meal, they provided less than 100g (the norm is 150g) of animal feed imported from China resulting in the deaths of many people from physical weakness. They removed the tip of the spoon to prevent prisoners from swallowing the tip to commit suicide. While the reporter was in the detention house for two months, he actually witnessed two people dying of physical weakness.

(C) At the detention house, the prisoners had to stay in a correctional posture at all times except when rising at 5 a.m., for 30 minutes from 7 a.m. for breakfast, for 30 minutes from 12 p.m. for lunch, and for 30 minutes from 7 p.m. for supper. The so-called correctional posture is the posture of sitting at attention forced to prisoners where they have to sit on their knees, lower their heads, and put their hands on the knees inside the cell. Those who strayed from this posture was beaten severely. The door to the cell is called "doghole" being only 45cm×45cm making prisoners have to crawl in and out while keeping their heads low. Even after crawling out of the cell, the prisoner had to be on their hands and knees toward the wall while putting their forehead on the floor.

(D) The reporter is suffering from severe pain in the back and right elbow due to the said torture.

(2) Human Rights Violation at the Court

On September 11, 2004,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at the court sentenced the reporter to six years of 'reformation through labor' which is excessively heavy for the reporter without having any objective evidence. The people's assessors comprised of two local representatives who are supposed to form the judgment panel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agreed with the decision as it is, and the lawyer did not defend the reporter but rather said he deserved the punishment. As soon as the sentence was given, the lawyer forced the reporter to sign the divorce paper submitted under reporter's wife's name with a thumbprint, and the divorce with the wife was officialized at that very moment. Ten days are given for appeal, but the reporter gave up because when one makes an appeal, the court often sentences severer penalties such as increasing ten years to fifteen years or sometimes death as retaliation for standing against the law.

(3) Human Rights Violation at the Detention House

The 12th reformation camp is located in the mountainous region in the north 1,500m above sea level so the winter comes much faster than other regions and on a sunny day, the second highest peak in Korea, Gwanmo Peak, and the sea of Najin can be seen at a distance.

The reporter was put into the 12th reformation camp and received number "RA40" on September 22, 2004. On the day he was sent to the detention house, he went under the sign with a threatening phrase of "Running leads to self-destruction, do not run!" and saw five to six people carrying several corpses on a hand-driven cart with their feet sticking out on the side.

(A) Hunger • Inhumane Act

- ① The meal provided at the detention house was prepared by mixing 10% Annam rice, 60% maize rice, and 30% beans, steaming the mixture in a drawer of a

steam oven, removing the steam, inflating it with a shovel, and made rice blocks graded from one to five with different molds called "Rice Pot." The rice block is given by hand without a bowl or spoon. Each grade is differentiated by the height of the rice block and grade 1 is about the thickness of one steamed bean. The prisoners who drill into the mine and log trees are supposed to have grade 1 or 2 rice blocks but this quantity has never been met. Ordinarily, prisoners are given grade 3 rice block which is 6cm in diameter and 7cm in height (small cup size), prisoners who cannot work due to sickness and new prisoners are given grade 4 rice blocks, as well as for prisoners in solitary confinement. According to the reformation camp's regulation, grade 3 is to be 180g, but the reformation camp misappropriates even that, reducing the volume for grade 3 down to 130g, resulting in prisoners always suffering from hunger (not to mention prisoners entitled to grade 4 or 5 rice blocks). Also, the reformation camp even pocketed the meal they provided (Annam rice, corn, and bean) and sold two months worth in the market in a year and replaced them with potatoes they cultivated on the side at the reformation center with the same 'rice pot' and replaced the meals with them so the prisoners who were already weak became even weaker. The time when prisoners received decent quantities during their prison term was only once or twice a year when the reformation bureau came in for inspections.

- ② Since everyone would die of physical weakness with the meal provided at the detention house, prisoners ate everything they could eat except those that were poisonous such as the wild herbs, roots, and leaves. Rats and snakes were rare and luxurious foods. Visitation was allowed once a quarter (more often with bribes) and corn powder that visitor brought were great help but due to the difficulty of living. Only eight to twelve inmates had visitors among 60 inmates. The corn powder that visitors brought was about 15kg at most, but 10kg of it had to be given to the reformation camp. Visitation was not easy for they allowed visits only when the visitor brought items that the reformation camp

needed such as medical supplies, light bulbs, books, and so forth.

(B) Infectious Disease · Inhumanely Poor Environment

At the Jeongeori Reformation Camp, the number of hardship-driven-criminals such as illegal border crossers increased due to food shortages resulting in the number of prisoners to increase by 2,400 people while the reporter was in the camp. All prisoners were divided into five divisions and each division had 400 to 500 prisoners. For this, 60 to 70 prisoners were put into a 66m² cell that could only accommodate 15 prisoners and inmates had to sleep on their sides in four rows like 'saw teeth'. Also, the toilet bowl inside the cell was left uncovered filling the cell with a stench at all times. Prisoners could not take baths nor change clothes (they did not provide prison uniforms so they wore what they wore when they came to the prison, but they made them look mottled by adding black patches on white clothes and white on black) that the body smelled bad. Furthermore, lice, bedbugs, and round worms were prevalent, and lice as large as barley grains fell from the hair to the dish when eating.

The hygienic environment at the camp was extremely poor that when any prisoner caught a contagious disease (paratyphus becomes vicious every winter), it immediately spread throughout the camp that more people died of infectious disease than work. The reporter was put to a sickbay for eleven days from January 16, 2005 and was then discharged. Eight out of 24 people who were put in the sickbay with him died. The sickbay did not have any medical facilities. This is what the reporter saw in Division 2 but there would have been more deaths in other Divisions where they had more people.

(C) Compulsory Labor · Slavery

They said the 12th camp was established to develop a copper mine, but the copper vein was almost depleted that most prisoners were also mobilized to logging

and farming. Sentries that watch prisoners were mostly young people in their late teens and early 20s, and they continuously and viciously swore at, whipped, and beat prisoners under the pretext of displaying their dignity while enslaving prisoners. They pressed on prisoners to increase the yield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safety while prisoners were logging on the hillside and thus a number of accidents took place but there were no measures to prevent the accidents. They pressed on prisoners to pile up huge construction bricks that were not completely cured to the height of the second floor as a showoff on the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the Labor Party on October 10, 2005, but the wall fell down and killed 14 people immediately. However, none of them took the responsibility and the only thing they did was send a death notice to the bereaved families. Accidents like the collapse of the mine shaft in the copper mine killing six people at once occurred frequently. A similar accident took place in December 2006. There was no safety light inside the shaft and the high tension wires passed by chaotically without any safety facilities that deaths from electric shock also occurred frequently. Accidents such as breaking feet and legs while dragging down the hardwood from the mountain or cutting off a foot while wielding an axe were frequent as well.

(D) Corpse Management • Inhumane Act

A number of people died of infectious disease, compulsory labor, and malnutrition and the number of corpses increased but they were not taken care of and so rats ate into the eyes, nose, ears, and genitals making them impossible to recognize. They put the corpses into a large steel furnace in a place inside the camp called “Bulmangsan” and burned the bodies with logs, but they did not burn them properly that the furnace was filled with charred human bones. They reprocessed the ashes of the corpses and sprinkled them in the field like fertilizer, and vegetables such as pumpkin, radish, and cabbage grew well where they sprinkled the ashes.

(E) Distribution of Prisoners in Reformation Camp

The reporter was taken in on September 2004, released on a pardon in February 2007, and escaped from North Korea in 2009 and came to South Korea. Most prisoners the reporter met through the prison term were hardship-driven-criminals. About 65% of them were illegal border crossers, 20% of them were hunger-driven thieves, 10% of them were violent offenders such as robbers, rapists, and murderers (or combination of such crimes), and 5% of them were swindlers or embezzlers. All prisoners were men at the time, but from around June 2007, Jeongeori Reformation Camp developed a division for female prisoners for there were no facilities to confine illegal female border crossers and the number of female prisoners increased up to 800 by February 2010 and the total number of prisoners in Jeongeori Reformation Camp reached 3,200.

Prisoners say they lose weight in the 'training camp' but lose bones in the 'reformation camp'. At the 'training camp', they can have normal food and are not separated from society even when they are being trained, but at the reformation camp, prisoners suffer from pains of becoming exhausted while suffering from continuous hunger and through separation from society.

3. Evid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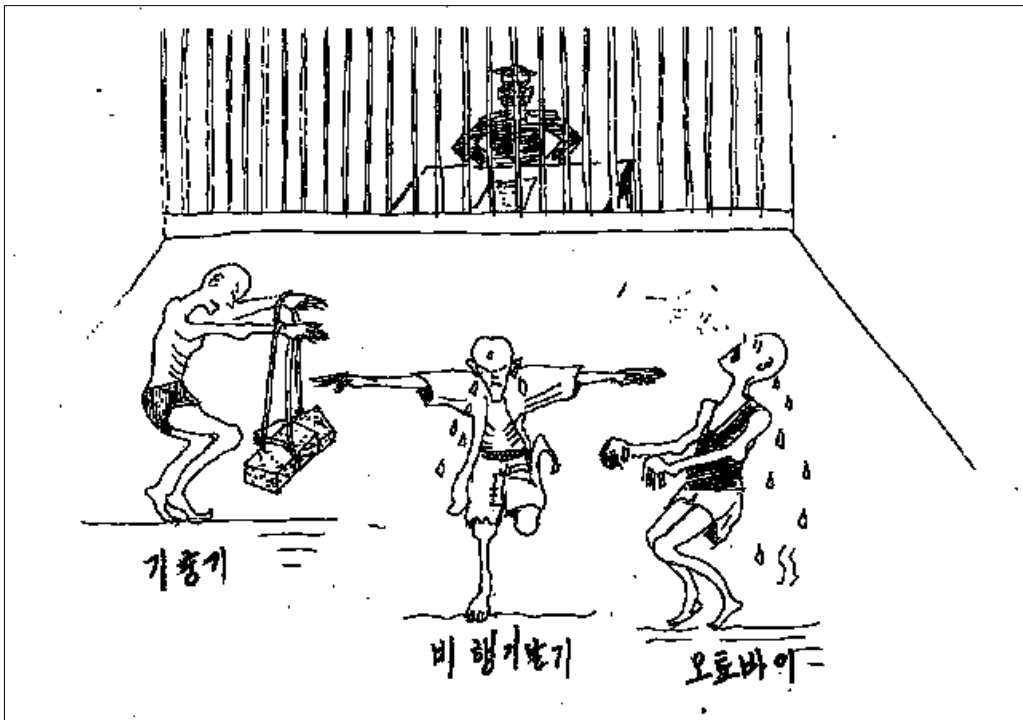
- Statements of North Korean defectors ○○○ who were in Jeongeori Reformation Camp and escaped to South Korea
- Pictures submitted by the reporter

4. Related Regulations

- Article 6 (Right to Life), Article 7 (Prohibition of Torture), Article 8 (Prohibition of Slavery), Article 9 (Personal Liberty), Article 10 (Respect of Dignity), Article 14 (Right to Trial), and Article 26 (Equal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Article 7.1 (Inhumane Crime) (c) Slavery, (e) Confinement in Breach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Other Serious Deprivations of Physical Freedom, (f) Torture, and (k) Inhumane Act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rticle 10 (Personal Integrity Right), Article 12 (Personal Right), Article 23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Article 27 (Right to Fair Trial) of the Constitution



Crane / Flying Jet / Motorcycle

▣ Jeungasan Reformation Camp

1. Summary of Report

A. Report Date

- August 23, 2011

B. Reported by

- ○ ○ ○(F)

C. Victim

- Reporter

D. Assailant

- Hamgyeongbuk-do People's Court Judge ○ ○ ○, Security Agent ○ ○ ○, Prosecutor ○ ○ ○, Lawyer ○ ○ ○ (a different lawyer, not the lawyer of the reporter), Party Secretary ○ ○ ○, Young Socialists Alliance Secretary ○ ○ ○
- Jeungasan Reformation Camp Security Agent ○ ○ ○(59 at the time, served for 30 years at Jeungasan Reformation Camp No. 11 only), ○ ○ ○ Security Agent (28 at the time, single)

E. Substance of Report

- The reporter was captured in China and sent to North Korea and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Jeungasan Reformation Camp from 2005 to 2006.

2. Details of Report

A. Date and Loc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 2005, Hamgyeongbuk-do People's Court
- 2005 · 2006, Jeungsan Reformation Camp

B. Details of Human Rights Violations

(1) Human Rights Violations at People's Court ·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Trial

The reporter was imprisoned for fine months in a preliminary hearing area and a secured area, and then brought to public trial (people's court) in 2005. The public trial was held at the company (munitions works) the reporter used to atte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mpany's auditorium where the open public trial was held was almost filled, there was an audience of about 1,000. All of them were employees at the work and none of them were outsiders such as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The trial was conducted through the criticism of six judges composed of one people's judge, one security agent, one prosecutor, one lawyer, one party secretary, and one Young Socialists Alliance secretary, and the trial went on for about 1 hour and 40 minutes.

The reporter had a nominal lawyer who came to meet the reporter three days before the trial and told her to answer "No" to all questions such as "Did any one hit you in the preliminary trial?" Then the lawyer took the reporter's picture and the fingerprints of all ten fingers, but did not appear at the court on the date of the trial.

During the course of the trial, they gave the reporter a chance to make an excuse only once by asking her whether her possession of the pas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reflects her intention of escaping to South Korea. The reporter made an excuse saying that somebody made the passport and gave it to her and that she knows "Namjoseon (South Korea)" but does not know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or not. As a result, she avoided execution by a firing squad and was sentenced to 13 years of reformation through labor.

After the 13 years of reformation was sentenced instead of execution by firing squad, someone in the back stood up and started shouting “Punish her! Punish her!” and instigated the crowd to chaos as if they made a promise to do so in advance.

When the trial ended, the sentence was not issued to the reporter but the reporter was asked to seal a sentencing document with her thumbprint and the document was sent to the reformation camp guard to claim the reporter.

(2) Human Rights Violation at Jeungsan Reformation Camp

(A) Scale and Daily Routine of Reformation Camp

① The reporter was sentenced to 13 years of reformation at the open trial and was sent to the 11th Reformation Camp (Jeungsan Reformation Camp) in 2005. In the reformation camp, there was a writing in black on a white wall that says, “Running leads to self-destruction” and there were seven to eight large dogs (white) that were trained not to bite. The reformation camp was built with mud and water leaked in many spots on the ceiling. As soon as the reporter arrived at the camp, two female guards came and ordered all female prisoners to take off their clothes, fold their hands on the back of the neck, and sit down and stand up to search their body.

Jeungsan Reformation Camp was made up of Divisions 1-12, and male prisoners were put in Divisions 1, 4-5, and 7-12 and female prisoners were put in Divisions 3 and 6. The reporter was put in Division 3 and became the general representative in about four months. She remembers the number of prisoners exactly, and the number of female prisoners put in Division 3 was 683 at the most and 480 at least. From Divisions 1-12, the total number of prisoners in the reformation camp was around 10,000.

Jeungsan Reformation Camp was quite large because it was merged with the

Gaechon Reformation Camp and it took a form of a large village where there was a school and residences of the families of security agents. The division the reporter was put in was divided into Groups 1-10 and each group had a representative. One group used one room and about 50 to 60 people shared a room. Some prisoners belonged to the kitchen and warehouse instead of the group.

- ② Prisoners at Jeungsan Reformation Camp were mobilized to rice farming most of the time such as rice planting, weeding, harvesting, and fertilizing. Usually one group cultivated 200,000m² of rice paddy, in other words, 50 women painstakingly cultivated the land with an oxcart. Since the camp was beside the sea, some prisoners fished. Usually, financial criminals who were involved in bribery engaged in light labor.

The wakeup hour at the camp was 5 a.m. and prisoners came back from farming around 9 p.m. and went to bed around 10 p.m. They did not have prisoners do anything but sleep because no electricity was available. During lunch, when one or two prisoners in each group went and brought meals from the camp, they stopped and ate outside.

(B) Rape

The most wicked camp guard was ○○○ (about 59 years old when the reporter was released, probably retired by now). He worked 30 years only at the Jeungsan Reformation Camp and was regarded as an exemplary guard, and his rank was two stripes and two stars (lieutenant colonel).

The camp had a system called “Makgali” where they organize teams of four women and have the team set up a tent in the rice paddy and stay outside to guard the paddy. ○○○ impregnated a young woman (from ○○), and she was released for illness on the sixth month of pregnancy. This was known by the security center and they came in for inspection. ○○○ was summoned here and there, but they could not do anything to him for his elder brother was the deputy head ○○○ of

the camp. The guards raped female prisoners inside the reformation camp frequently. However, the victims did not have anyone to report to and the guards that raped the victim reduced the workload or made the victim the representative of the group, giving conveniences, that some of them rather felt proud of it.

(C) Torture and Inhumane Act

○○○ above hit prisoners with the blade of the shovel or other tools. ○○○ and all other guards hit prisoners routinely, and most of them kicked prisoners with military boots or fabric shoes wherever they could such as the face and torso saying that they do not want to dirty their hands.

Also, ○○○ (female, security agent, 28 at the time, single, 1 stripe + 4 stars (brigadier)) hit prisoners a lot. She took away good quality clothes from prisoners who have been to China. Her style of beating was to use a lumber to hit the shoulder area. When in a bad mood, she asked the group representative to bring the lumber and hit prisoners until the lumber broke. The prisoners beaten vomited what they could not digest and grew weaker. Also, she used to grab hair and pounded the face against the mud wall.

(D) Slavery

The reporter was barely beaten after she became the general representative and became the immediate subordinate of the camp staff. They did not treat the group representative badly for the group representative was sometimes given the duty of spying concerning specific figures such as the security chief ○○○ and security manager ○○○. The general representative received reports from each group representative at 9 p.m. (i.e. "Makgali" team is supposed to have four people but today it has five people, etc.). Guards lived with their families inside the camp. Therefore, they often used prisoners like their personal slaves to do work other than the camp's work. Also, the guards frequently embezzled the camp's resources. For

example, the guard for the rice embezzled rice and the guard for the kitchen embezzled beans. They mobilized prisoners to carry bags of rice to their homes for the embezzlement. The female guards working inside could not easily embezzle camp resources that they asked prisoners to take rice grains in their pocket when returning from the farm and take the grains from them afterwards. There were three female guards and one male guard working inside the camp.

(E) Inhumane Act

The meal was comprised of ground whole corn and beans (called “danjibap”) and a soup made of salt. There is a standard for meals that the state specified and each meal has to contain at least 136 grains of beans (136-150 grains) but guards pocketed a lot of them in the middle and the meal actually contained 40-50 grains. The inspector comes from time to time and that is when the meal would contain enough number of bean grains, and the guards ordered prisoners to answer, “We always get this much of beans” when somebody asks them about it. Prisoners were always hungry that they quietly picked up and ate the ear of rice on the field while working and when they caught frogs while planting rice, they skinned it and ate it on the spot and also caught snakes and kept them as food in their pockets. They even fought among themselves for rats they caught.

Many people died in the camp. Usually two to three died a day and in the summer, six to seven. The cause of death was usually physical weakness (malnutrition) and especially those who ate well in China who could not adapt to the suddenly reduced volume of food died in most cases and the death rate of young people was high too.

Visitations could be arranged on every Wednesday after one month of the visit prohibition period which is applied to new prisoners. Visits were not allowed originally, but as rumors spread that many people die at the camp, they allowed visits from August 2003. However, prisoners on life sentence were not allowed to have visitors at all. They were confined to the cell and were not even mobilized to farming. The

reporter heard that family visits could be arranged at Jeongeori Reformation Camp but it was not possible at Jeungsan Reformation Camp.

(F) Murder

As soon as the reporter was taken to the camp, they called all out prisoners after 11 p.m. It turned out that a 19-year-old male prisoner (name unknown) ran away and was shot in the head by a 21-year-old guard. The limbs were unharmed, but the brain was blown up severely that the face was unrecognizable. They showed the corpse to the prisoners saying that it will happen to them if they try to run.

A young woman in her 20s in the camp (name unknown) caught a disease that maggots grew in her eyes and she lied down barely clothed and murmured, "Give me my rice, give me my rice." When they gave her the "danjibap", she could barely eat it and died a few hours later.

They did not have enough blankets that they did not cover the corpses. There was a bald hill called "flower garden" in Jeungsan Reformation Camp, and that was where they buried the dead bodies. One of the bodies the reporter remember burying with male prisoners was the corpse she carried on an oxcart and buried in June 2005. The dead person's name was ○○○ (29 years old at the time of death, from ○○, died of 3rd degree physical weakness but they recorded the cause of death as heart attack as all deaths inside the camp are recorded as heart attack. No one could dream of having an autopsy to diagnose the exact cause of death such as malnutrition.) and the number given to the corpse then was 3721. The reporter asked what it meant, and they said it indicates the number of deaths counted from January 1 of the year. The reason they had so many deaths was that Jeungsan Reformation Camp is located on the west coast and once more than 1,000 prisoners died in a wave that swept the coast while they were working on the embankment on the shore that year.

The corpses are usually carried on an oxcart and buried in a shallow hole, and covered flat with soil. They did not burn the corpse and kept the width narrow about

30cm that they had to press in the body. The “flower garden” is a bald red hill and they buried the dead body all over the hill that it feels squashy when stepping on the hill. It stands out in the village with the Jeungsan Reformation Camp for it is the only hill without grass.

The reporter was quite shocked after burying the corpse that she did not want to return to the flower garden. But since she was the group representative, she had to bury the dead body and report to the office that she had to go to the flower garden. There were seven times the reporter went to the flower garden in person to bury the corpses. When burying the corpses, the doctor would be accompanied by one male and three female prisoners. She still has mental aftereffects and has nightmares about the flower garden that she sometimes puts a knife under the pillow to go to bed.

At Jeungsan Reformation Camp, when a person dies, they place the corpse in storage and fill it with lime powder until there are six to seven corpses piled up. When there many corpses, they took the dead bodies on an oxcart and buried them in the flower garden. Once, there were so many deaths that they took four oxcarts to take ten corpses to the flower garden. However in the summer, they bury the body immediately. They roll the body in a straw mat and carry two bodies on a stretcher each time. Because they had not eaten enough while they were alive, the corpses are very light so that two men could carry two of them in a stretcher.

3. Evidences

- Statement of reporter, ○○○ who was with the reporter in Division 3 (from ○○, about 28 years old at the time), ○○○ (from ○○, about 10 years older than the reporter, deported to North Korea six times), ○○○ (birthplace unknown, older than the reporter, currently lives in South Korea)

Other Confinement Facilities

■ ○○ County Integrity Department

1. Summary of Report

A. Reception Date

- August 23, 2011

B. Reported by

- ○ ○ ○ (F)

C. Victim

- Reporter

D. Assailant

- ○ ○ County Integrity Department Advisor ○ ○ ○ (serviceman, man in plain clothes), section chief ○ ○ ○ (mid 50s at the time, male, always wore plain clothes and about 167cm tall, chubby and had big eyes)

E. Substance of Report

- Reporter escaped North Korea many times but was deported to North Korea from China and was beaten and her human rights were violated at the ○ ○ County Integrity Department.

2. Details of Report

A. Date and Loc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 2003. ○○ County Integrity Department, 2004. ○○ County Integrity Department

B. Details of Human Rights Violation

(1) Inhumane Act · Unjust Body Search

When searching the body, five to six men in their 20s made female prisoners line up on one side of the hallway and children on the other, forced women to undress completely, put their hands above their heads, and sit down and stand up and searched from inside the hair to the tip of the toe by touching their crotches and so forth. They took valuable items such as rings and necklaces found during the search. Children on the opposite side saw everything while their mothers were being searched naked. They searched all the clothes of the children down to the diaper strings. When young women defied out of embarrassment during the body search, they hit their body, legs and arms.

After the body search, they ordered prisoners to take their clothes and move to the cells. The cell was about 26m² and they put too many people into each room that once an inmate fails to get a spot as soon as she enters the cell, she will not have a spot to sit. There were two pregnant women and they became a common eyesore among inmates for taking more space. There was a flush toilet with a wooden cover inside the cell, and pregnant inmates were pushed over to the toilet. It was a flush toilet, but the water was supplied only in the early morning in small amounts for a short time. Until then, the toilet would be filled with excrement that it smelled awful and when the excrement was flushed, the water was also used for drinking. The inmates waited for the right moment and wet their towel to keep the water and they squeezed the towel to feed their baby later.

(2) Torture and Inhumane Act

- (A) After the prisoners were transferred to the ○○ County Integrity Department, integrity department agent ○○○ (soldier in plain clothes) hit them with a piece of wood that looked like a leg of a table, and he did not hit the head but mostly knees and fingers. In particular, he made prisoners put both hands on the table and hit the fingers with the wood. Some of the prisoners suffered from knee fractures that they could not use their knees like others. The one that hit the prisoner was not punished even when the prisoner died. The cell had a wooden floor but it was dirty that lice and bedbugs were all around causing too much itching to sleep at night when the lights were out.
- (B) The reporter witnessed the injection of abortion drug to pregnant women while confined in the integrity department. When a pregnant female prisoner from China comes in, they aborted the baby. They injecteed 20cc of Rivanol solution into the abdomen of the pregnant prisoner (into the head of the fetus) and contraction begins on the next morning. Sometimes, the fetus that are five to six months old came out alive, and in this case, they wrapped the fetus in a newspaper and handed it over to the outside the cell and the other integrity department agents placed it on the hallway inside a bucket. The mother of the fetus watched the bucket that contains the fetus through the hole where the food comes in and the cry is heard from the bucket. After a while, the cry is no longer heard; the integrity department agent took the bucket outside. They pour out the dead fetus near the grapevine in the front yard of ○○ Integrity Department. A number of baby corpses will be found there.
- (C) The group representative (name is not known) was scarier than the integrity department agents. She was also a defector but she used violence such as taking the clothes of others and hitting other inmates under the pretext of discipline. The group representative was also a woman and she did not hit others with her fist or tools, but grabbed hair and pounded the head to the wall.

When the reporter was sent north in the winter of 2004, the section chief of the integrity department of ○○ city, ○○○ (mid 50s at the time, male, always wore plain clothes, about 167cm tall, chubby and had big eyes), called her to the interrogation room when she was with her baby who was sick with a fever. Two male agents (young and single) of the integrity department came into the room with the section chief. The section chief undressed the reporter completely, had her sit on her knees and fold her hands behind the back, and sit the baby behind her during the interrogation. There was a stove right beside the desk and there was a kettle on top of the stove. The section chief asked, “Do you need discipline?” and when the reporter answered, “I made a mistake, forgive me”, he said, “(You should answer only yes or no,) Why the long answer?” So the reporter added, “I will not go (to China) again, even after I die,” and he said “Then die. You will not go when you die” and took a hook (kindling) out of the stove and stabbed the area near the right breast of the reporter (there is a 10cm long and 1-2cm wide burn wound on the right breast of the reporter). When the reporter rolled on the floor in pain, the section chief said, “You still have the strength to die.” The reporter’s two-year-old baby watched this and cried loud and the chief plugged the baby’s mouth with an old rag. The section chief asked the said two men. One poured boiling water out of the kettle into a cup, and the section chief pushed over the cup, took the kettle, and poured the boiling water on the back of the neck of the reporter. The entire content of the kettle was poured down from the neck to shoulder. This left a scald from the back of the neck where hair does not grow any more to the back of the right shoulder. Afterwards, the section chief continued to stab the inner side of the right ankle of the reporter with the kindling, leaving scalds. Currently there is a light keloid near the inner ankle bone of the right foot overlapped with a number of semicircular scalds that turned black.

While the reporter could not keep herself steady due to the pain from the burn, the section chief put her on the seat and made her open her hands (palm up).

Each time they called her to the interrogation room, they also brought the reporter's belongings (bag, etc.) and asked her about the items she had like "Where did you get this thing?" The section chief found a knitting ball made of wool and crochet hooks she picked up in the trash can in Changbai, China, from the reporter's bag and he tore the skin off the right palm with the crochet hooks (there are a number of small crochet hook-sized scars below the middle, ring, and pinky fingers of the right palm). The reporter was so much in pain that she pleaded with the section chief by holding on to his hand, and he took the rag out of the baby's mouth and put it into her mouth and made her stand outside. As the scald oozed and she could not stand still for she felt so much pain, they made her pull up her arms folded, shackled her from behind and left her so until the evening. Even this time, the reporter was completely naked. When they unshackled her in the evening, she could not pull her arms down right away for it felt as if the joint would fall off. It was morning when she was called to the interrogation room, and she could not have lunch for she was being interrogated. After being released, she took her clothes back, went back to the cell, and cried, and they still applied restrictions such as not giving water for crying.

- (D) The meal provided at the integrity department was whole corn, and when they gave a bowl, the group representative then divided among inmates by counting the kernels. 30 kernels for adults and 15 for children. Everyone was so hungry that when someone died in the integrity department, they did not report it for a few days to share the extra corn for the dead person.

3. Evidences

- Statement of reporter, remaining scars, named ○○○ (currently about 48 years old) and lives in ○○.

▣ ○○ County Security Department

1. Summary of Report

A. Reception Date

- 2011. 8. 10.

B. Reported by

- ○ ○ ○ (F)

C. Victim

- Reporter

D. Assailant

- Warrant Officer ○ ○ ○ of the ○ ○ County Security Department's Watchmen, second lieutenant ○ ○ ○ (31-32 years old in 2001. Married and had a child. Roundish and flat face, good-looking, normal height, slightly slender)

E. Substance of Report

- The reporter tried to escape North Korea but was deported to North Korea from China and her human rights were infringed upon.

2. Details of Report

A. Date and Loc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 2001. ○ ○ County Security Department Detention House

B. Details of Human Rights Violation

(1) Rape and Inhumane Act

When the reporter was confined to the ○○ County security department's detention house, there were three women in the cell including the reporter.

The place the reporter was confined to was watched by three people including a junior lieutenant (insignia with 1 star and 1 stripe), warrant officer, and sergeant first class, who took turns on guard. The name of the warrant officer was ○○○, and he woke the reporter up every night by tapping the reporter with a long bush cover stick in front of the steel grating of the cell. When the reporter wakes up as commanded, he sexually harassed the reporter by telling the reporter to pull up her skirt, pull up the breast rope, and pull down her panty while tapping and poking the reporter with a long stick. The reporter was wearing the clothes at the time she was arrested (skirt and short sleeved top, could not obtain clothes to change).

The reporter did not do as asked, and the warrant officer pulled the reporter's hair (or back of the head) toward the door and pounded the head against the grating many times. The reporter's nose bled and she could not bear the violence that she had to do as she was told. This happened not once but many times, and each time she disobeyed, he pounded her face to the grating violently. Due to the violence, not only did her nose bleed but also the areas near her eyes were bruises and her eyes became red. He told her to sleep near the grating. When she tried to sleep on the inner side of the cell, he poked her with a long stick to come out that she could not sleep well.

Among the three inmates, two of them who came before the reporter were transferred before her that she was alone for the last few days. During those days, one of the watchers, junior lieutenant, ○○○ (31-32 years old in 2001, known to be married and had a little child. Roundish and flat faced, good looking, medium height, slightly slender body) asked the reporter to crawl out of the "doghole (steel door)" of the cell. At first, the reporter was scared and did not go out, but she had to after

he threatened her repeatedly. When she went out, he raped the reporter. She was sent into the cell after being raped and no medical treatment was given.

The reporter was asked swear 'not to reveal any of the things that happened here' by sealing a document with her thumbprint before she was transferred to the labor training camp. She said, "I will not" as asked, but they pounded her face to the grating again to make sure she was scared enough not to reveal what happened.

(2) Poor Quality of Confinement Facilities

Three meals of corn and rice were provided a day. There were no hygienic facilities to clean, and the bowl for eating was also used as the washbowl.

3. Evidences

- Reporter statement, inmate ○○○ (○○nam-do ○○), ○○○

Prisoners of War, Abductees, Separated Families

■ Prisoners of War

1. Summary of Report

A. Reception Date

- June 24, 2011

B. Reported by

- ○ ○ ○

C. Victim

- Reporter and 57 family members of prisoners of war who came to the Republic of Korea
- Families in North Korea ○ ○ ○

D. Assailant

- Person in charge of the North Korean authority ○ ○ ○

E. Substance of Report

-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orter was seriously wounded in the battle of ○ ○ ○ on July 4, 1953 and was taken prisoner by the Communist Chinese army. He was detained in North Korea on July 27, 1953 regardless of the cease-fire agreement. The reporter suffered from compulsory labor and discrimination at the coal mine of Aoji prison camp in Eundeok-gun, Hamgyeongbuk-do from ○ ○ ○

○○, 1954 until he escaped North Korea on ○○○, 2000 and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repatriate prisoners of war detained in North Korea, help families reunite, and secure free travel and exchange of letter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f the government does not take care of its prisoners of war, who would fight for the country risking their lives?

2. Details of Report

A. Details of Human Rights Violations

(1) Illegal Detainment and Transfer

The reporter received a draft notice at the end of March 1952, received training, and was then assigned to a front division at the ○○○ base and fought in the battle of ○○○ in the frontline. The reporter received the Hwarang Order of Military Merit in December 1952 and was promoted to the rank of staff sergeant, but in the battle of ○○○ in the front line in ○○○, 1953, he was seriously wounded and taken prisoner by the Communist Chinese army. He heard that the cease-fire agreement was signed from ○○○ in the evening of July 27, 1953, but was transferred to ○○ ○ prison camp in ○○○, 1953 in Pyeongannam-do. There were 500 or more South Korean prisoners and about six American prisoners, and he also met fellow soldiers there. A month later, he was transferred to ○○○ mine in Pyeongannam-do and was expropriated in the 'Central Hospital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where he met fellow soldiers such as ○○○. In ○○○, 1954, he was put in a train and was transferred to Aoji prison camp in Eundeok-gun (Gyeongheung-gun before liberation), Hamgyeongbuk-do. There were about 450 South Korean prisoners there and they were called the "1701 Construction Uni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North Korea installed prison camps disguised under the name, the "Construction Uni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n 20 or more of the toughest and most dangerous coal

mines, mines, steelworks, and ironworks exploiting 50,000 South Korean prisoners. In just Hamgyeongbuk-do, there were many mines, steelworks, and ironworks such as Aoji Mine, Obong Mine, Gogeonwon Mine, Tongbuk Mine, Hunryung Mine, Pungin Mine, Onseong Mine, Juwon Mine, Sangha Mine, Hwakpo Mine, Yuseon Mine, Musan Mine, Gimchaek Steelworks, and Seongjin Ironworks. North Korea expropriated many South Korean prisoners under the disguise of the “Construction Uni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lso in the Geomdeok Mine and Ryongyang Mine in Hamgyeongnam-do.

(2) Enslavement (Forced Labor) and Inhumane Treatment

Aoji Mine is rich in methane gas and thus an explosion can lead to a number of deaths. Therefore, workers need at least 15 days of training on safety, but South Korean prisoners were immediately pushed into the gang without any training that many of them died in accidents from the first day. Life in the mine was a living hell. The meal provided in the morning and evening was a half bowl of steamed millet and salt soup which is not enough for one meal. The temperature in the blind end in a mine gallery 2,000m to 4,000m underground is 40°C making it difficult to breathe. Regular workers brought lunch from home and had it in the middle of work but South Korean prisoners could not. The production quota for a day was eight tons and workers had to work eight hours without resting to barely meet the quota. If the quota was not achieved continuously, South Korean prisoners were dragged to the political prisoners camp. The outside temperature was 35°C below zero that everything froze instantly when the workers in sweat came out from the blind end. After dinner, South Korean prisoners had to study about Il-sung Kim's family and write critiques for two to three hours and could only go to bed after 11 p.m. South Korean prisoners always starved and were only provided with two work clothes and one or two underwears a year. South Korean prisoners were discriminated against severely compared to regular miners who were provided with work clothes and two

pairs of boots each quarter. South Korean prisoners could not even speak of their illness and were only sent to the sickbay inside the Construction Uni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when they became very sick that they passed out, and the sickbay only had four beds without a chair or medicine that resting for a few hours was all the treatment they received. The police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lways followed the workers with guns pointing at them, watching every move of the prisoners inside the mine gallery so prisoners could not talk to each other. Prisoners could only take one or two days off a mon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Decree No. 143 in June 1956, which stated that they will issue citizenship cards to 450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so that they can be released to society. However, receiving the citizenship card was no different in that they still suffered the same harshness in the same coal mine as before when they were South Korean POWs. They were watched by the prison guards only as POWs, but after they received citizenshipship, they were watched by not only the prison guards but also the integrity department, security department, and even the people's group in each village. The citizenship card was only a cover-up for continuous exploitation of the labor of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for post-war recovery in North Korea. In the Yongyang Mine in Dancheon, Geokdeok Mine and Yuseon Mine in Hamgyeongnam-do, a number of South Korean prisoners submitted petitions that they do not need citizenship cards and asked North Korean authorities to send them back to South Korea. Hundreds of them were taken to the integrity department's camp and communication with them were cut off. They also made all South Korean prisoners members of the Young Socialists Alliance to watch every move and exploit their labor.

(3) Extreme Discrimination

South Korean prisoners were treated with contempt and referred to as "sons of bitches" where the reporter was. The reporter married a North Korean woman, ○ ○

○, and even joined the party, but he was treated no differently and was continuously being watched and discriminated against. Most families lived in a single bedroom and average workers with five or more people in the family were given a two bedroom house while the reporter, a South Korean prisoner of war, was only given a single bedroom house when he had eight people in the family. His son was a good worker but he was discriminated against and could not join the party even after the age of 40. The families of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could not even consider marrying someone from so-called “good lineage.” Instead, they mostly married those who were being discriminated against such as descendants of families that were punish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for their social classes in the past, families of landowners and capitalists, families of political prisoners, and families of those had been to the reformation camp in the course of building the socialist nation. Children of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could not enter universities. They were not rewarded no matter how hard they worked, but instead they were suspected of all accidents that happened in the mine and were punished. One day in 1958, 39 South Korean prisoners were killed and a number of workers were scalded in a methane gas explosion, and they accused the South Korean prisoner, ○○ Baek, as the prime cause of the incident because he was the first one to escape from the pit. They executed him openly. 450 South Korean prisoners were sent to Aoji coal mine in the beginning, but currently only 20 of them are alive after the gas explosion in the Hoeam mine gallery 2 in 1961 where 20 people died, a fire in July 1985 where 40 people died, and more accidents.

B. Escape from North Korea and Request for Return and Repatriation

Food rationing stopped from around 1994 when Il-sung Kim died that it became extremely difficult to obtain food, and the family of the reporter wandered every where looking for food and ate all kinds of wild herbs excluding only those that were poisonous. The reporter escaped from North Korea in 2000 and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must make all-out efforts to bring back South Korean prisoners of the Korean War detained in North Korea and make arrangements for separated families to meet.

3. Evidences

- Statement and book of reporter

4. Related Regulations

- Article 8 (Prohibition of Slavery), Article 9 (Personal Liberty),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Article 17 (Freedom of Privacy), Article 23 (Family Right), and Article 26 (Equal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Article 7.1 (Inhumane Crime) (c) Slavery, (e) Deprivation of Physical Freedom, and (i) Forced Disappearance, Article 8.2 (War Crime) (a)(ii) Torture, (vi) Deprivation of Right to Trial, (vii) Illegal Confinement, (viii) Taking Hostages of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rticle 10 (Personal Integrity Right), Article 12 (Personal Right), Article 13.3 (Prohibition of Guilt-By-Association), Article 14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nd Article 36 (Family Right) of the Constitution

▣ Abductee

1. Summary of Report

A. Reception Date

- March 15, 2011

B. Reported by

- Seong-yong Choi (Representative of the Families of the Abducted)

C. Victim

- Won-mo Choi (born February 23, 1910) and his son who is the reporter and his family

D. Assailant

- North Korean Espionage Operations in the South Director ○○○, Armed Espionage Boat Manager ○○○

E. Substance of Report

- Reporter's father was abducted by North Korea and his whereabouts and life or death are unknown for a long time that the family including the reporter is suffering from great agony.

2. Details of Report

The reporter's father, Won-mo Choi, had engaged in fishing in Jeongju-gun, Pyeonganbuk-do, until he led a public safety corps and fought the communist army

after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reporter's father returned to fishing after the war. On June 4, 1967, the reporter's father went out to the sea near Yeonpyeong Island to catch croaker with seven crew members on the boat named "Pungbok" and on June 5, 1967 around 08:00, he and his crew were sieged by over ten North Korean patrol boats and were shot at and kidnapped to North Korea.

Five members of the crew were released but the reporter's father's record of fighting against the communist army was revealed that he was detained with two other crew members.

According to government records that the reporter recently obtained, the reporter's father was detained in North Korea because they revealed that he killed a left-winger in his original place of residence while moving south during the Korean War. The whereabouts of the reporter's father afterwards are unknown.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s the reporter had with fishermen who were abducted to North Korea and released, or from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porter's father was executed around 1970. The pain that the family, including the reporter, suffered for a long time without knowing the whereabouts of the father is indescribable.

3. Evidences

- Statement of reporter
- Notification letter ○ ○ ○ prepared around October 2008
- Confirmation letter ○ ○ ○ prepared around May 2007

4. Related Regulations

- Article 9 (Personal Liberty),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and Article 23 (Family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Article 7.1.(i) Forced Disappearance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rticle 10 (Personal Integrity Right), Article 12 (Personal Right), Article 14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nd Article 36 (Family Right) of the Constitution

1. Summary of Report

A. Reception Date

- March 15, 2011

B. Reported by

- In-cheol Hwang (Representative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Abducted KAL Airplane)

C. Victim

- Won Hwang (born September 12, 1937), Reporter (son), Chan-wook Hwang (daughter, born 1969), Seok-rye Yang (wife, born 1938)

D. Assailant

- North Korean Espionage Operations in the South Director ○ ○ ○

E. Substance of Report

- Reporter's father was abducted by North Korea and his whereabouts and life or death are unknown for a long time that the family including the reporter is suffering from great agony.

2. Details of Report

The victim, Won Hwang, was a produce for Yeongdong MBC (currently, Gangneung MBC) and was abducted to North Korea inside airplane YS-11 of Korean Airlines, scheduled to travel from Gangneung to Gimpo on December 11, 1969, in

the air above Gangneung just ten minutes after departure, by North Korean resident spy, Chang-hee Jo. At the time a total of 50 people including the crew and passengers (excluding one spy) were aboard the airplane. After the abduction, North Korea forced the abducted victims to learn about their ideology for at least four hours and they were displeased with the logical answer that victim Won Hwang gave that they took him somewhere for two weeks where they threatened and tortured him. Two weeks later on January 1, 1970, they took him somewhere again for singing “I want to go” thinking about his hometown, and he has not been heard from again since then.

On February 14, 1970, North Korea only returned 39 passengers and has not returned 11 people including four crew members and seven passengers including the victim. North Korea sent a notice saying “Impossible to Confirm Life or Death” through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in June 2006. However, Gil-nam Oh who worked as a broadcaster for North Korea’s broadcasts toward South Korea, “Gugugeuisori (Voice to Save the Nation)”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in November 1986 and came to South Korea in 1992, testified in December 2008 that he saw the victim working as a broadcaster for “Gugugeuisori” in 1986. North Korea did 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at all causing much pain for family of the victim including the reporter from extreme physical and spiritual agony throughout their lives.

3. Evidences

- Statement of reporter
- Chosun Ilbo Daily article (February 16, 1970, extra)
-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Meeting of Yeongdong Broadcasting Corporation (May 20, 1970)
- Nocut News article (February 14, 2012)

▣ Separated Familie

1. Summary of Report

A. Reception Date

- May 24, 2011

B. Reported by

- 683 persons including Sang-cheol Lee (chairman of the Korean Assembly for Reunion of Ten-Million Separated Families)

C. Victim

- Reporters and families

D. Assailant

- ○ ○ ○ of North Korea and authorities

E. Substance of Report

- The family including the reporter is suffering from great pains for they could not meet the victim nor confirm the life or death of the victim for over 60 years.

2. Details of Report

The family of the victim including the reporter is suffering from separation of family by North Korea for over 60 years and also has been victimized by inhumane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no confirmation of life or death, family reunion, travel, and

meeting have been realized.

The separation of families deprives the “right to be protected as a family as defined by the family right and communication rights” and therefore infringes upon human rights by breaching Articles 12, 16.3, and 13.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3. Evidences

- Statement of reporter
- Statement of ○○○, a member of an association of separated families

4. Related Regulations

- Article 12 (Freedom of Movement) and Article 23 (Family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Article 10 (Family Righ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Article 10 (Personal Integrity Right), Article 14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nd Article 36 (Family Right) of the Constitution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인 쇄 | 2012년 5월

| 발 행 | 2012년 5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22 | F A X | (02) 2125-984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79-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Hosted by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CLA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